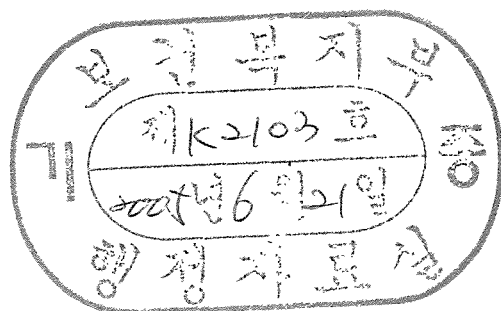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변 용 찬 윤 상 용
박 성 민 박 을 종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건 사회 연구 원

빈 면

머 리 말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장구의 사용은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보장구의 사용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 직업,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손상된 신체 일부분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운동성을 증진시켜 장애인 스스로 주위 환경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최대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따라서 보장구는 신체의 기능적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장애의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실시는 그 동안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전국민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구의 품목, 기준 금액, 내구연한 및 지급절차 등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장구의 품목이 협소하여 보장구 유형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보장구 급여의 지급절차에 의해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보장구 제작업소에서 본인 부담으로 보장구를 구입하고 이후 다시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의 검수를 받고 나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 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여 보장구 지급 주기의 적정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보장구 수요에 대한 분석과 현재의 지급 품목,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적정 기준금액 산출을 위한 과정으로서 품목별 원가 및 재정추계를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급여 기준 개정 시 이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장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변용찬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윤상용 주임연구원과 박성민 연구원 그리고 박을중 한국복지산업연구소 소장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김복환 사무관, 한국보장구협회 이수길 회장 및 정호용 사무국장, 서울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박윤서 소장과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 문무성 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보장구수가자문위원과 보장구 수요 전망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재활의학 및 기타 분야 전문의, 보장구 업체, 그리고 장애인단체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최병호 박사와 변재관 박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3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박 순 일

목 차

요 약	11
제1장 서 론	43
제1절 연구의 기본방향	43
제2절 장애인 보장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49
제3절 보장구의 특성	54
제2장 보장구 급여제도 및 보급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57
제1절 보장구 급여제도의 현황	58
제2절 정부의 보장구 교부사업 현황	63
제3절 민간기관의 보장구 보급사업 현황	65
제4절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의 문제점	68
제3장 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70
제1절 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70
제2절 일본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87
제4장 장애인 보장구 수요분석	109
제1절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현황	109
제2절 보장구 수요 전망 조사 결과	113
제3절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분석	122
제5장 보장구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산정	126
제1절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126
제2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의 기본 원칙	134
제3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 방법	136
제4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 결과	138

제5절 적정 내구연한 산정	141
제6절 수리비 급여의 필요성	143
제6장 소요 재정 분석	144
제1절 소요 재정 추계 방법	144
제2절 재정추계 결과	145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151
제1절 결론	151
제2절 정책건의	152
제3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57
참고문헌	159
부 록	161

표 목 차

〈표 1- 1〉 미국의 보장구 분류 체계	52
〈표 1- 2〉 보장구의 국제 분류체계	53
〈표 2- 1〉 건강보험 · 산재보험 · 보훈처의 보장구 급여 품목 수	61
〈표 2- 2〉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의 연간 지출 규모	62
〈표 2- 3〉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의 지급실적 구성비(2002)	63
〈표 2- 4〉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예산 현황	64
〈표 2- 5〉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보장구 교부사업의 품목별 교부 현황	64
〈표 2- 6〉 정보통신부의 보장구 교부 사업 현황	65
〈표 2- 7〉 민간기관의 보장구 보급사업 현황	66
〈표 2- 8〉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급 품목 추이	68
〈표 3- 1〉 미국 재가 장애인구의 특성(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71
〈표 3- 2〉 미국 재가 장애인들의 보장구 이용 실태(1994년)	73
〈표 3- 3〉 인구 천명당 재가 장애인들의 보장구 이용자 수(1994년)	74
〈표 3- 4〉 메디케어 수입·지출·피보험자 현황(2002년)	76
〈표 3- 5〉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실적(2002년)	79
〈표 3- 6〉 최근 8년간의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실적	79
〈표 3- 7〉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수가 결정 방식	81
〈표 4- 1〉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소지여부	109
〈표 4- 2〉 재가장애인의 소지 보장구 종류	110
〈표 4- 3〉 재가장애인의 현재 보장구 사용정도	111
〈표 4- 4〉 재가장애인의 필요 보장구 유무	111
〈표 4- 5〉 재가장애인의 필요 보장구 종류	112
〈표 4- 6〉 필요 보장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113
〈표 4- 7〉 전문의의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115

〈표 4- 8〉 전문의의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116
〈표 4- 9〉 보장구 업체의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118
〈표 4-10〉 보장구업체의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119
〈표 4-11〉 장애인 단체의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120
〈표 4-12〉 장애인 단체의 건강보험 비급여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121
〈표 4-13〉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수요(2000년)	123
〈표 4-14〉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수요 비교(1995년, 2000년)	124
〈표 4-15〉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수요(2000년) 및 건강보험 지급 실적 비교	125
〈표 5- 1〉 팔의지 현 기준금액 적정성	127
〈표 5- 2〉 다리의지 현 기준금액 적정성	128
〈표 5- 3〉 보조기 현 기준금액 적정성	129
〈표 5- 4〉 기타 보장구 현 기준금액 적정성	130
〈표 5- 5〉 팔의지 현 내구연한 적정성	131
〈표 5- 6〉 다리의지 현 내구연한 적정성	132
〈표 5- 7〉 보조기 현 내구연한 적정성	133
〈표 5- 8〉 기타보장구 현 내구연한 적정성	134
〈표 5- 9〉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적정 기준금액 산정 결과	139
〈표 5-10〉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적정 내구연한	141
〈표 5-11〉 산재보험 수리비 기준금액	143
〈표 6- 1〉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재정추계 결과	147
〈표 6- 2〉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수요 추계 결과	148
〈표 6- 3〉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재정추계 결과 구성비	149
〈표 6- 4〉 장루·요루 용품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소요 재정 추계 결과	150
〈표 7- 1〉 단계적 품목 확대 방안	154

그림목차

[그림 1- 1] 연구의 흐름도	47
[그림 1- 2] 연구 대상의 범위	49
[그림 2- 1] 건강보험 보장구 지급절차	59
[그림 2- 2]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절차	60
[그림 3- 1]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급절차	83
[그림 3- 2] 일본 보장구 지급에 관한 각종 급여제도	91
[그림 3- 3] 일본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93
[그림 3- 4] 일본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95
[그림 3- 5] 일본 후생연금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96
[그림 3- 6] 일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99
[그림 3- 7] 일본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102
[그림 7- 1]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급절차 개선(안)	156

빈 면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기본방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함(장애인복지법 제 55조).
-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장구의 사용은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보장구의 사용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 직업,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 정부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실시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전국민의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1997년에 4개 종류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시작한 이래로 2003년 현재에는 의지·보조기 및 기타 보장구 등 모두 17종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의지에는 팔의지(21개), 다리의지(18개) 등 39개 품목이, 보조기에는 팔보조기(5개), 척추보조기(7개), 골반보조기(1개), 다리보조기(11개) 등 2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보장구에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 보조안경

등 11개 품목이 있음.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 금액 및 내구연한 등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동휠체어나 정형외과용 구두 등이 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장구의 품목이 협소하여 보장구 유형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보장구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가 지원되고 있으나,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이 보장구의 현실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장애인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행 보장구 급여의 지급절차에 의해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보장구 제작업소에서 보장구를 본인 부담으로 구입하고 이후 다시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의 검수를 받고 나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절차임.
-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기준금액, 내구연한, 지급절차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보장구 보험 급여 기준 개정 시 이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 본 연구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와 정부 및 민간기관의 보장구 보급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품목별 보장구 수요 추정, 기존 급여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원가 산출,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추가 소요 예산 추계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인터넷 검색에 의한 자료수집을 통해 보장구

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검토하였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장구 급여 제도 및 민간 기관의 보장구 보급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의 보장구 지급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또한 미국 및 일본의 보장구 급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1995년 ·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아울러 전문의 · 보장구업체 운영자 ·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장구 수요 전망 및 현행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지급 품목, 기준금액, 내구연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마지막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장구 품목별 원가분석, 적정 기준금액 · 내구연한 산정 및 건강보험 소요재정을 추계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건의를 제시하였음.

3. 연구대상의 범위

- 본 연구는 보장구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개선 방안 수립에 충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분류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구 중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 17종과 비급여 품목 중 전동 휠체어, 스쿠터, 정형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산소호흡기, 복막투석장치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품목 6종,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장루 · 요루 장애인의 필수 보장구인 장루 · 요루 처리 용품 2종 등 총 25종의 보장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2절 장애인 보장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1. 보장구의 정의

- 보장구란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가·유지시키고,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물건, 장비의 부분, 제품, 혹은 설비를 의미하지만, 그 개념은 나라마다 다르고 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범위 및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

-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는 보장구를 Technical Aids라고 칭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 기기, 시스템으로 장애인의 장애(Impairment), 능력저하(Disability) 및 사회적 불리(Handicap)를 방지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음(ISO, 1992).
- 미국에서는 보장구를 ‘Assistive Technology Devices’라고 칭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 및 활동을 돕는 각종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Assistive Technology Act, 1998), 일본에서는 보장구를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실 및 손상된 신체기능을 보전할 목적의 용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 용구 및 보장구를 총칭하여 ‘복지용구’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보장구’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하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자, 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2. 보장구의 분류체계

- 장애인 보장구 분류의 국제적 기준은 북유럽분류체계(Nordic Classification System on Aids for Disabled Persons)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각국 분류체계의 기준이 되었음.
- 국제표준화기구는 1989년 국제규격시안(ISO/DIS)을 완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의견을 수집하여 1992년 장애인 보장구분류법(Technical Aids for Disabled Persons: ISO 9999)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목적은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되고 명확한 분류와 구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국이 이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90년부터 재단법인인 테크노에이드협회 주관으로 복지기기정보제공 시스템(TAIS: Technical Aids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을 실시하면서 복지기기

의 분류는 정보검색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복지관련기기용어위원회’를 설치하여 ISO/DIS 국제 규격안을 토대로 1995년 일본복지용구분류코드(CCTA: Classification Codes of Technical Aids)를 제정하였음.

- 한편 미국의 경우 2000년에 교육부 산하 ‘국립장애·재활연구소(NIDRR: The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에서 개정한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분류 10개 품목, 중분류 71개 품목, 소분류 494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보장구 이외에 치료훈련용구, 가정용구, 교육용구, 오락기구 등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기구나 기기, 물품들은 물론 관련 서비스까지 망라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9월 보건복지부 고시 2002-66호를 통해 분류체계가 확립되었는데, 이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999 체계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대분류에는 치료훈련용구 등 10종이, 중분류에는 호흡기 치료용구 등 72종이, 소분류에는 인공호흡기 등 231종이 지정되어 있음.

제3절 보장구의 특징

- ☐ 보장구는 품목간 기술적 특성이 서로 독립적이고, 의지·보조기와 같이 다품종 소량 맞춤방식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 보장구는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다른 산업제품과는 달리 시장규모는 적으나 일정한 수요가 창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보장구 출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 보장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들은 그 취급품목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보장구업체는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형태로 일반산업체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장구의 유통구조는 제조 및 수입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직거래형태와 판매전문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간접거래형태로 이원화되어있음.

제2장 보장구 급여제도 및 보급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보장구 급여제도의 현황

- 정부는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무료로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음.
- 지원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원에 있어서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2종 수급권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0%는 의료급여기금에서, 20%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는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등록된 신체 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에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보장구 급여 지급 절차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의사의 처방이 불필요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장애인이 자비로 먼저 보장구를 구입한 후 구입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 사본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를 신청해야 함.
 - 그 외의 보장구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하여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군·구청)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급 절차는 장애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절차임.

- 2003년 8월 현재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보장구 품목 수는 의지보조기 및 기타 보장구 등 모두 74개로서, 이 중 의지에는 팔의지(21개), 다리의지(18개) 등 39개 품목이, 보조기에는 팔보조기(5개), 척추보조기(7개), 골반보조기(1개), 다리보조기(11개) 등 24개 품목이 포함되며, 기타 보장구에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 보조안경 등 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장애자를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음.

- 산재보험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수는 수리료를 포함하여 총 121개로서,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지가 38개, 보조기가 27개, 기타 보장구가 13개, 그리고 수리료가 4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을 통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등에게 해당 보장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수는 총 344개에 달하는데,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지가 102개, 보조기가 66개, 기타 보장구가 11개, 그리고 수리료가 165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보훈처 등 공적 보장구 급여 제도의 총 지출액 중 각 제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약 49.0%, 의료급여가 19.1%, 산재보험이 6.5%, 그리고 보훈병원이 25.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각 제도별 연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2001년도에는 6,486백만원(22,150건), 2002년도에는 6,686백만원(24,560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2,609백만원(7,423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341백만원(3,772건), 2002년도에 882백만원(5,951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훈병원의 경우에는 2001

년도에 3,213백만원(9,396건), 2002년도에는 3,465백만원(9,558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부의 보장구 교부사업 현황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교부해왔으며,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가 실시된 이후에는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의 품목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나, 그 동안 장애영역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장구 교부사업은 특정 장애영역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졌음.
 - 교부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이며, 교부신청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장구는 현물로 지급받게 됨.
 - 최근 5년간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의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1,44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5년간 보장구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총 37,725명임.
- 최근 정보통신부는 2003년에 4,5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신기종 P-IV PC, 시각장애인용 음성낭독 S/W(스크린리더) 및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마우스 스틱, 발 마우스 등 특수입력장치를 9,950명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음.
 - 교부대상은 장애 1~3등급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며, 완전 무상방식이 아닌 20%내외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일부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음.

제3절 민간기관의 보장구 보급사업 현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보장구 보급사업은 장애인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간접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무선신호

기, 점자프린터 등 다양한 품목의 보장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24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등의 장애인관련 민간 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업 및 타 단체 자부담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보장구(전동휠체어)와 정보 및 방송접근을 돕는 정보통신 신호기기(TV자막수신기,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음.

제4절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제도의 문제점

-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 증대와 장애인의 낮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는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급여 품목이 협소하여, 장애인의 수요가 가장 높은 전동휠체어 등은 급여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낮은 품질의 보장구를 사용하게 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액으로 인해 보장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구의 구입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기준금액은 제도 도입 시 산재보험 보장구 급여 기준금액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산재보험 기준금액이 물가 및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을 감안하여 2001년에 수가를 인상한 반면에 건강보험 기준금액은 그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아 산재보험 수가보다 낮은 실정에 있음.
 - 또한 일부 의지·보조기 또는 기타 보장구의 경우 내구연한이 장기간으로 책정되어 보장구가 내구연한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파손 또는 고장으로 인해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에는 수리비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종료할 때까지는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본인부담으로 수리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지급절차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처방

을 받은 후 보장구 제작업소에서 보장구를 본인 부담으로 구입하고 이후 다시 의료 기관에 가서 의사의 검수를 받고 나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절차이며, 또한 의사의 처방 및 검수 또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음.

제3장 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제1절 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1. 미국 장애인의 보장구 이용 실태

-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재가 장애인 수는 약 4,9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5세 이상 전체 인구 수 25,720만명의 19.3%에 달하는 수치로서 미국인 5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 1994년과 1997년에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보건 통계국(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이 실시한 18세 이상 전체 성인 장애인 인구 4,180만명을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인 ‘장애 추적 조사(Disability Followback Survey)’의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보장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장애인은 약 166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 보장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약 740만명의 장애인이 목발, 보행기, 정형화, 휠체어 등과 같은 이동 관련 보장구(Mobility device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460만명의 장애인들이 의지·보조기(Orthopedic devices)를, 450만명의 장애인들이 보청기, 문자전화, 캡션 TV 등과 같은 청각관련 보장구(Hearing devices)를, 그리고 527천명의 장애인들이 저시력보조기, 흰지팡이, 음성출력기 등의 시각관련 보장구(Vision device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단일품목으로는 목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480만명), 다음으로 보청기(420

만명), 보행기(180만명), 허리보조기(170만명), 휠체어(160만명)의 순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 미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장구 급여제도는 크게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의한 공적 급여제도와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적 급여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급여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급여제도이며, 본 연구의 주제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와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제도는 파트B인 보충적 의료보험의 급여 중 하나로서 1989년에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2003년 현재 급여 지급 품목 수는 총 2,421개로서 여기에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및 장착훈련·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음.

— 지급 품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보장구(Durable Medical Equipment)’에는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Oxygen), 휠체어(Wheelchairs), 혈당측정기(Blood Glucose Monitors), 욕창방지용 침대(Hospital Beds), 심장박동장치(Heart pacemakers) 등이 포함되며, ② ‘보조기구(Prosthetic Devices)’에는 장루·요루 및 후두 보조기구(Ostomy, Urological & Tracheostomy Supplies), 안경 및 저시력보조기(Eyeglasses & Lenses), 인공가슴(Breast Prostheses), 인공후두(Voice Prostheses) 등이 포함된다. 또한 ③ ‘의지·보조기(Prosthetics & Orthotics)’에는 의지, 보조기, 의안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④ ‘기타 보조기구(Supplies)’에는 가정용 신장투석기(Home Dialysis Supplies & Equipment), 정형외과용·당뇨치료용 구두(Therapeutic/Diabetic Shoes) 등이 포함됨.

□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는 해당 급여 품목에 한하여 실제 가격(Actual Charge)과 메디케

어 수가(Fee Schedule)를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의 80%를 메디케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메디케어의 보장구 급여 지급 방식은 임대(rental)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품목의 특성에 따라 구입(신제품 및 중고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2002년 현재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총 지출액은 98억달러로 집계되었는데, 보장구 유형별 급여액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의료용 보장구가 70억달러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조기구가 12억달러(13%), 그리고 의지·보조기가 9억달러(9%), 기타 보조기구가 7억달러(7%)의 순으로 나타났음.

-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8년간의 메디케어 총 지출액과 보장구 급여비를 살펴 보면, 메디케어 총 지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보장구 급여 지출도 계속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보장구 급여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메디케어 총 지출 2,657억달러 중에서 보장구 급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수가체계는 보장구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방식에 의해 결정됨.

- 저가·구매 품목과 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 산소호흡장치 및 상한액 임대 품목은 보장구 급여가 도입된 198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품목으로서 1986년 이후 각 주(States)의 해당 품목별 ‘합리적 평균 가격(Average reasonable charges)’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각 주의 값 중 중앙값)과 최저 가격(중앙값의 85%)사이에서 주의 수가가 결정되며, 이는 매년 갱신되는데 1989년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1.9% 인상되어왔음.
- 합리적 평균 가격이란 해당 품목의 실제구입가격(actual charge), 공급자 통상가격(supplier's customary charge), 지역내 지배 가격(local prevailing charge)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거나 또는 전년도 최저 가격에 물가인상지수를 반영한 가격(inflation-indexed charge: previous lowest charge + CPI-U update)을 의미함.
- 의지·보조기 또한 198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품목으로서 1986년 이후 각 주의 ‘합리적 평균 가격’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과(각 주의 값 중 평균값의 120%) 최저

가격(평균값의 95%)내에서 지역의 수가가 결정되며, 이는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되는데 1989년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1.6% 인상되어왔음.

- 음식섭취 보조기구(Parenteral & Enteral Nutrition)는 200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품목으로서 1995년 이후 해당 품목의 ‘합리적 평균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가가 결정되며, 매년 갱신되게 되는데, 2003년 인상률은 1.1%임.
-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품목(Certain Customized Items)은 임대가 아닌 구입만 가능한 품목으로서 해당 품목에 대한 중간지불기관(Carriers)의 개별적인 심사에 의해서 수가가 결정됨.

□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에서 지급되는 품목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해서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내구연한을 따로 정하기도 함.

- 보장구의 교체는 내구연한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리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태만에서 비롯되지 않은 분실이나 혹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인 경우에만 수리비 급여를 지급함.

□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급 절차에는 ‘중간지불기관(Durable Medical Equipment Regional Carrier: DMERC 또는 Local Carrier: LC)’이 의료기관 및 보장구 공급자로부터 청구되는 각종 급여의 접수, 심사 및 지불업무를 대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이들 중간지불기관은 의료재정청(CMS)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심사지불기준에 대해서는 CMS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데, 중간지불기관에 의해 부정청구로 판명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과가 3회 계속되는 경우에는 영원히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제외됨.

3. 국내 제도에의 시사점

□ 미국의 보장구 급여제도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보장구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적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는 공적 프로그램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및 국가보훈처 등 4개에 불

과한 반면, 미국은 앞서 소개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특수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서비스, 국가보훈처 등 5개의 주요 프로그램 외에도 발달장애 프로그램
 (Programs for Development Disabled), 아동의료서비스(Children's Medical Services), 근로
 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Social Security Work Incentive Programs) 등에서 다양한 보장구
 급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과 미국의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제도의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한 시사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출 수준이 메디케어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2001년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6,486백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지출액 14,107,500백만원의 0.0459%에 해
 당되는 금액인데 반해, 동년도의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전체 지출대비 3.4%
 에 이르고 있음.
- 보장구 급여 지출액의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수가의 차이와 함께 보장구 급여제도
 에 포함되는 급여 품목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급여 품
 목의 경우 2002년 현재 건강보험이 불과 74개 품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데 비해, 메디케어는 무려 2,421개 품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둘째는 보장구 급여의 지급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먼저
 해당 품목을 구입한 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신
 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
 간지불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 건강보험 지급절차의 경우 허위 및 부당 청구 등 공급자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예
 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장애인의 불편함
 을 초래하는 현재와 같은 지급 절차는 의·약품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이 직접 보
 험 급여 청구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라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는 급여의 종류와 관련된 것으로서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급여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신제품 구입, 중고품 구입 및 임대 등으로 차별화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구입에 한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고가의 첨단 제품이 등장하고, 제품의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중고품 구입이나 임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메디케어가 보장구의 수리 및 장착·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 건강보험은 이러한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산재보험에서도 2001년부터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수리비의 경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보장구 수가 결정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메디케어의 경우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최초의 수가를 설정한 이후 물가인상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가를 갱신해 오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수가 산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며 더구나 1997년에 보장구 급여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 번도 수가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향후 건강보험 보장구 수가 갱신과 관련하여 메디케어의 수가 결정 방식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음.

제2절 일본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1. 개요

- ☐ 일본의 보장구 지급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법이나 제도에 의해 급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체계와 세금(국세 및 지방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신체장애자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사회복지 체계임.
- ☐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체계는 서구 여러나라와 비교해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갱생상담소 또는 복지사무소에서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교부함.

2. 지급품목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는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범위, 지급방법, 대상자에 따라 다르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의 대부분은 신체장해자복지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교부 기준에 준하고 있음.

- 지급품목은 의지(쇼케트, 동력전달계, 외장 등 의지의 모든 부분이 오랜 시간 사용해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됨), 훈련용 의지(본의지를 제작 전 실험 또는 검토 가능하도록 동력전달부와 훈련용 임시 쇼케트를 조합시킨 의지), 의료용 장구(의학적 치료가 완료되기 전 또는 단순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구), 재활용 장구(의학적 치료가 끝나고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고정된 후에 일상생활 동작 등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구), 일상생활용품(신체기능이 저하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사용하는 용품), 기타(수노기, 스토마용구, 보행보조기 등)가 포함됨.

3. 일본의 보장구 급여 지급체계

-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치료중일 경우에는 의료보험, 근로재해보험, 생활보호법 등에 의해 치료용장비, 훈련용 임시의지를 교부받을 수 있고, 치료는 완료했으나 장애가 남아 계속하여 보장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보험제도, 신체장해자복지법 등에 의해 갱생용의지, 갱생용장비 등을 받을 수 있음.
-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장구 급여는 의사의 처방이 있을 후 의사가 제작업체에 발주, 완성 후 검수를 받아 장착하며, 보험가입자는 보장구 제작업체에 현금 지불 한 후, 보험사무소에 청구하여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근로재해보험제도는 치료단계에서 보장구가 지급되는 것과 급여방식에 있어서 의료보험제도와 동일하나, 수급기관이 노동기준감독서라는 것과 자부담이 없다는 것이 다르며, 치료가 종료되고 증상이 고착되면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복지사업을 통하여 보장구의 지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됨.
- 근로재해보험제도의 보장구 지급절차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신청, 노동기준감독서를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에서 승인서 발급, 환자는 승인서를 제작소에 제출 접수, 제작

소는 노동기준국에 견적서 발행, 노동기준국은 제작소에 주문서 발행, 보장구 완성 후 노동기준감독의 검수 후 제작소는 신청자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완료됨.

- ☐ 후생연금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자부담 없이 보장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치료가 완료되고 장애가 고착화되었을 때 가능함.
 - 후생연금제도에서의 보장구 지급절차는 의사의 진단서·견적서를 첨부하여 사회보험사무소에 신청, 후생연금병원에서 판정, 지정업체에 보장구 처방 제작, 후생연금병원 의사에 의해 검수, 업체는 대금을 후생연금병원에 청구하고 지급을 받음.
- ☐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는 공적급부시스템으로 재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으며 소득상태(납세액)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있음.
 - 신체장해자복지법에 따른 보장구 지급은 장애자가 시·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시·지방자치단체는 갱생상담소장에게 판정 의뢰, 갱생상담소장은 판정서를 시·지방자치단체에 송부, 시·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와 교부권을 지급하고 제작업체에 위탁통지서 교부, 신청자는 업체에 교부권을 제시하고 보장구 제작, 완성 후 갱생상담소의 적합판정을 받은 후 장착, 제작업체는 교부권을 시·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대금 수령, 자부담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징수함.
- ☐ 전상병자특별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는 전액국고부담이므로 자부담이 없으며, 보장구 지급절차는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준함.
- ☐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는 치료용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관할 복지사무소에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에 치료용 장비를 지급받고, 치료가 끝난 후의 장애에 대해서는 신체장해자복지법 등의 복지제도가 우선하여 적용됨.
- ☐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급여에서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의 품목은 대어품목(휠체어, 휠체어 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부속품, 욕창예방용구, 체위변환기, 슬로프(slope),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치매성노인배회감지기구, 이동용 리프트)과 구입비 지급품목(의자좌변기, 특수소변기,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 및 이동용 리프트의 들것)으로 각기 정해져 있음.

4. 보장구 교부(수리)의 사무절차

□ 보장구의 종류·가격은 「보장구의 종류, 수탁 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1973년6월 16일, 후생성고시(71호)」 및 「신체장애자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장구의 종류, 수탁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 관련된 완성용 부품의 지정 등에 대한 지침(장애보건복지부장 지침)」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시각장애(맹인용 안전 지팡이, 의안, 안경, 점자기기), 청각장애(보청기), 언어장애(인공후두), 지체부자유(의지, 보조기, 앉은자세유지장치, 휠체어, 전동휠체어, 보행기, 머리보호모자, 수노자, 보행보조지팡이), 내부장애(스토마용 보조기)용품이 포함됨.
- 보장구의 가격(업체에서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금액)은 「보장구의 종목, 수탁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주재료, 제작법 또는 기본구조, 부속품 등에 의한 경우의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본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법인이 설치하는 보장구제작시설이 자체 제작한 보장구에는 가격의 95%에 해당하는 액수를 적용함.
- 보장구 급여에 대하여 시·정·촌 등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제작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구의 제작 등에 관한 전문업체에 위탁하며, 이때 설비·기술 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함.
- 신체장애인의 장애상황, 생활환경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종목, 수탁, 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장구의 종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표에서 정한 명칭, 형식, 기본구조 등에 따르기 어려운 보장구를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에 기초하여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여 지급될 수 있음.

□ 일본의 보장구 교부 및 수리는 ① 교부(수리)신청, ② 판정의뢰, ③ 판정서의 교부, ④ 급부의 결정통지, ⑤ 교부(수리)권 교부, ⑥ 교부(수리) 위탁통지, ⑦ 조치의 결과보고, ⑧ 교부(수리)권 제출, ⑨ 적합판정·업체지도, ⑩ 제작품 교부, ⑪ 자기부담액 지불, ⑫ 공적급여 부담액 청구, ⑬ 공적급여 부담액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장착훈련과 현장관찰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지도하에 훈련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협력을 얻어 이용상황을 관찰하고, 장착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신속히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스토마용보조기는 보장구교부권으로써, 보청기용전지 및 절단부양말은 보장구수리권으로 일괄교부할 수 있음.
 - 보장구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1종목당 1개로 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장애상황을 감안하여, 직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2개를 교부할 수 있음.
 - 수리기준의 종목, 형식명칭 또는 수리부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보장구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유사종목의 수리부위를 참고하거나 각각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견적 등에 의해 적절한 금액을 정하여 지장이 없도록 함.
 - 보장구의 교부, 수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해당 행정조치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을 시·정·촌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체장해자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부담능력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 ☐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보장구의 종목, 수탁보수의 금액등에 관한 기준」에 표시되어 있으나, 교부받은 자의 직업의 종류 또는 장애상황 등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조절할 수 있음.

제4장 장애인 보장구 수요분석

제1절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현황

1.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현황

- ☐ 우리나라의 보장구 수요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맞물리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의 증대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수족과 보조기를 중심으로 한 보장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령인구의 증대에 따른 복지용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00년 현재 전체 장애인 중 39.6%의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청각장애인의 보장구 소지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의 순으로 보장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이나 심장장애 등의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해 보장구를 소지하는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장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 소지하고 있는 보장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지팡이(53.9%), 목발(21.1%), 수동휠체어(15.8%), 보조기(13.7%), 의지(8.0%)의 순으로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59.2%), 흰지팡이(22.6%), 의안(7.7%)이,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청기(88.6%)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보장구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한 보장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장구가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필요한 보장구가 없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약 89%로서 ‘있다’고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 이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18.0%, 청각장애 15.5%, 지체장애 12.5% 등으로 보장구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보장구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보장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보장구가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30.7%)와 수동휠체어(17.7%)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안경(21.3%), 의안(17.8%)이, 청각장애인은 보청기(78%)가, 그리고 언어장애인은 인공후두(7.3%)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2절 보장구 수요 전망 조사 결과

1. 전문의의 수요 전망

☐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대한 전문의의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의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요증가를 전망하는 비율이 수요감소를 전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보조기나 기타 보장구에 비해서는 수요감소를 전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조기의 경우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다리보조기의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2%에 이른 반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2.2%에 불과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관절염 등의 유병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음.

☐ 기타 보장구의 경우 향후에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휠체어(64.1%)를 꼽았으며, 지팡이(58.9%), 목발(44.4%)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장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보청기(51.0%) 또한 높게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보장구 중에서는 돋보기(40.3%), 저시력 보조안경(38.1%), 콘택트렌즈(37.5%)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체외용 인공후두는 전체의 24.8%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현행 건강보험 급여품목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전동휠체어(75.8%), 욕창방지용품(72.4%), 보행기(72.3%), 대소변 처리용구(72.0%), 세면·목욕용품(70.2%)의 순으로 나타났음.

2. 보장구업체의 수요전망

☐ 보장구 업체의 경우 전문의와는 달리 의지·보조기의 향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보조기에 있어서는 척추보조기를 제외한 다른 보조기의 수요는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장구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

고, 또는 현재 업체가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한 데서 비롯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되며, 척추보조기의 경우에는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척추측만증 교정을 위한 보조기 수요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 기타 보장구의 경우 향후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보청기(48.1%), 지팡이(34.4%), 휠체어(30.8%)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 중에서는 돋보기(34.0%), 콘택트렌즈로서(32.7%), 저시력 보조안경(32.1%)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망원경의 경우에는 보장구업체의 10.0%만이 수요 증가를 전망한 반면 수요 감소를 전망한 비율이 28.0%로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품목으로 나타났고, 체외용 인공후두의 경우에는 전체 업체의 21.3%만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함.
- ☐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 중에서는 전동휠체어(61.9%), 혈압계(58.0%), 스쿠터(48.3%), 욕창방지용품(40.4%), 세면·목욕용품(40.0%)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장애인이 사용하는 복막투석장치와 호흡기 장애인이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24.0%, 23.5%로 나타났음.

3. 장애인단체의 수요전망

- ☐ 전반적으로 장애인단체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기타 보장구의 경우 향후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지팡이, 휠체어, 보청기로서 75.0%의 단체가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은 저시력보조안경과 돋보기로서 62.5%의 단체가 지적하였으나, 망원경과 의안은 전체의 25.0%만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수요증가 전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 장애인단체가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 중 향후에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 품목은 전동휠체어(100.0%), 스쿠터(87.5%)이며, 정형외과용 구두, 혈압계, 체온조절장치, 체온계, 복막투석장치, 욕창방지용구, 세면·목욕용품, 대소변 처리용구는 모두 50% 이상의 단체가 수요증가를 예측하였고, 수요 증가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보행기와 음성증폭기임.

4.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전문의,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보장구 수요 전망 결과는 전문의와 장애인단체는 조사에 포함된 대부분의 품목이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보장구업체는 현재의 수요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수요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품목이 많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보장구 업체가 처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이는 의지·보조기 제작업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장구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첨단 제품의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선호 및 잠재 수요를 국내 보장구 업체들이 흡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동휠체어(전문의 75.8%, 보장구업체 61.9%, 장애인단체 100.0%)가 향후에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향후 건강보험 급여품목 확대 시 전동휠체어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구, 복막투석기, 대소변 처리 용구 등의 비급여 품목도 향후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임.

제3절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분석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장구를 보유한 장애인과 현재 보장구는 없지만 보장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보장구 수요자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708.4천명의 장애인이 보장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보장구의 수요를 건강보험의 내구연한으로 나누어 연간 보장구 수요량을 추정한 결과, 상지의지는 연간 약 3.9천건, 하지의지는 약 3.2천건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기의 경우에는 척추보조기 8.1천건, 상지보조기 2.1천건, 하지보조기 11.8천건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인 안경·콘택트렌즈는 연간 26.9천건, 흰지팡이는 30.6천건으로 추정되며, 보청기의 경우 5년이라는 내구연한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6.1천건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현재 보험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정형외과용 구두는 연간 6.4천건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내구연한 6년을 적용할 경우 연간 8,056건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보장구 수요가 지난 5년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추정하기 위하여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와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31.7%의 수요 증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수요 증감율이 가장 높은 보장구는 의안, 흰지팡이로서 각각 263.1%, 234.3%의 급증이 예상되며, 다음이 정형외과용 구두로서 134.2%의 높은 수요 증가율을 보였으며, 또한 보조기 역시 99.4%의 높은 수요 증가율을 나타냈음.

□ 이러한 연간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2001년과 2002년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보장구 급여실적과 비교해 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2001년도에 모두 22.0건의 보장구를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0.8% 증가한 24.4천명에게 보장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수요대비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보장구는 하지의지,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수요추정 결과 장애인의 수요가 매우 높은 품목은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이며, 그 외에 보청기, 보조기 등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제5장 보장구 유형별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제1절 건강보험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1. 현행 건강보험 급여품목 기준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의 기준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팔의지

의 경우 전문의,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 모두 현 기준금액이 낮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조사대상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의 경우 현 기준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균 점수는 1.69, 전문의는 1.62점으로 나타난 반면 보장구업체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1.16에 불과하여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다리의지, 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의 경우 역시 팔의지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어 세 집단 모두 현행 건강보험 기준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보장구업체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척추보조기의 경우도 현행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이 적정가격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세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토마스 소프트칼라 목뼈 보조기의 경우 전문의는 1.96점, 업체는 2.05점으로서 다른 품목에 비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 기타 보장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집단 모두 현행 건강보험 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팔의지나 다리의지에 비해서는 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돋보기, 저시력 보조안경, 지팡이의 경우 현 기준금액이 거의 시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휠체어의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현 기준금액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청기의 경우에는 업체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현행 건강보험 급여품목 내구연한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 ☐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의 내구연한이 적정한 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팔의지와 다리의지 모두 내구연한을 줄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고 특히 보장구업체가 가장 두드러졌으나, 어깨가슴의지 미관형의 경우 세 전문가 집단 모두가 현 내구연한 5년이 짧아 내구연한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다른 품목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나타났음.
- ☐ 보조기의 경우에도 세 집단 모두 현 내구연한이 적정 내구연한에 비해 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 전문의의 순서로 내구연한 단축

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타 보장구의 현 내구연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세 집단 모두 기타 보장구의 현 내구연한이 길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나 의지·보조기와 달리 장애인단체가 보장구업체보다 현 내구연한을 더 길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이는 흰지팡이의 경우 전문의와 장애인단체의 평균점수가 각각 1.97점, 1.73점으로 나타나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내구연한을 약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으나 이는 흰지팡이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현재의 1년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임.

제2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의 기본 원칙

-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장애인이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장구의 구입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으로 구입 가능한 저품질의 보장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재활의 효과가 미미함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함.
 -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장구 품목별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그리고 이윤을 구성요소로 한 원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보장구의 기준금액을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기준금액 조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소폭 현실화하는 방향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별 품목의 항목별 단가의 산정에 있어서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최저가인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음.

제3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 방법

- 의지·보조기·정형구두 등 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제작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개별 품목별로 원가에 소요되는 항목별 산출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는 크게 재료비와 인

건비, 경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료비의 경우 1999년 산재의료관리원의 품목별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되, 산재의료관리원 재료비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보장구협회가 제시한 재료비를 사용하되 0.8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1999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인상률 13%를 반영하였음.
 - 인건비의 경우 2003년 5월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용종업원 중 제조업 종업원의 임금과 월 평균 근로일수 및 하루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산출된 시간당 평균임금을 산재의료관리원의 품목별 제작시간과 보훈병원의 품목별 제작시간을 평균한 시간에 적용하였음.
 - 주로 제세공과금이나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비와 이윤은 각각 재료비와 인건비 합이 10%를 적용하였음.
- ☐ 지팡이 · 콘택트렌즈 등 완제품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 ☐ 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고가의 보장구 품목의 경우에는 재료비는 업체 요구의 80%를 적용하였으며, 인건비는 업체에서 조립 등을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다만 경비와 이윤을 각각 10% 적용하였음.
- 다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스쿠터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였음.
- ☐ 장루 · 요루 장애인이 사용하는 대소변 처리 용품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제4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 결과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보장구의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을 살펴 본 결과, 기존의 기준금액에 비해 평균 36.6%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팔의지는 평균 63.9%로서 전체 평균 인상률보다 높았으며, 그밖에 다리의지 42.7%, 수동휠체어 60%, 보청기 36.0% 등의 인상률을 보였음.

제5절 적정 내구연한 산정

- 적정 내구 연한은 산재의료관리원 내구연한과 보장구업체 요구 내구연한, 그리고 일본 신체장애자복지법의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주로 산재보험 내구연한에 근접한 수준으로 산정하였음.

제6절 수리비 급여의 필요성

- 현행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에서는 보장구의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수리비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에 수리비 급여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명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장구 급여 지출액의 증가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리를 통해 보장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제6장 소요 재정 분석

제1절 소요 재정 추계 방법

- 앞서 산출된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식으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였음.
 - － 첫번째, 산출된 적정 기준금액을 2002년도 건강보험 실제 지급 건수에 적용하여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하였음(추계 1).
 - － 두 번째, 산출된 적정 기준금액을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건강보험 실제 지급건수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보장구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을 추계하였음(추계 2).
 - － 세번째,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 외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장

- 루·요루 용품 등 추가 품목의 적정 기준금액을 장애인실태조사의 수요 추정 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품목별 수요량을 적용하여 소요 재정을 추계하였음(추계 3).
- 마지막으로, 기존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적정 기준금액을 적정 내구연한에 적용하여 건강보험 소요 재정의 총량을 파악하였음(추계 4).

제2절 재정추계 결과

- 추계 1의 경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9,178백만원으로서 2002년도 지출액에 비해 2,49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2년 지급실적과 추계 1의 전체 급여 지출에서 주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추계 1의 경우 다리의지나 보청기의 비중은 각각 30.4%, 28.3%로서 2002년 지급실적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수동휠체어는 19.7%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추계 2의 경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9,713백만원으로 나타나 2002년도 지출액에 비해서는 3,027백만원, 그리고 추계 1에 비해서는 53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추계 1과 추계 2의 전체 급여 지출에서 주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다리의지의 비중은 24.6%로서 크게 낮아진 반면, 보청기와 수동휠체어의 비중은 각각 31.8%, 21.2%로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 다리의지의 지급 실적이 2001년에 비해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추계 3의 경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17,425백만원으로 나타나, 품목 확대에 의한 추가 소요 재정은 7,71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 추가 소요 재정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 14억원, 스쿠터 11억원, 정형구두 282백만원, 그리고 장루·요루 용품이 49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추계 3에서는 장루·요루 용품의 비중이 28.2%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청기, 다리의지, 수동휠체어의 비중은 각각 17.7%, 13.7%, 11.8%로서 현저히 낮아졌음.

□ 추계 4의 경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약 19,203백만원으로서 이는 2001년도 건강보험 전체 급여 지출의 0.1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추계 4에서는 장루·요루 용품의 비중이 25.5%로서 전체 지출의 약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리의지(19.2%), 보청기(16.1%), 수동휠체어(10.7%)의 순으로 나타났음.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보훈병원 등의 기준금액을 검토한 후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험급여 기준가격은 현행 기준금액에 비해서는 평균 36.4% 정도 인상된 것이지만, 시장 가격을 100% 반영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장애인의 자부담 축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임.

□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중요한 현실에서 급여 품목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하되 장애인의 재화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개인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리비 급여를 신설함.
 - 이렇게 할 경우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를 먼저 확대하고, 다음으로 장루·요루 품목, 호흡기 장애인 관련 품목(산소발생기, 네블라이저 등) 및 스쿠터, 욕창방지용 매트 및 복막투석장치 등의 순서로 지급 품목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의 수리비도 보험 급여에 포함하도록 함.

□ 학계, 제조업계 및 기타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보장구 보험급여 수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보험급여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장구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러한 수가위원회에서는 보험급여 기준금액뿐만 아니라 품목의 추가 및 내구연한의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의 지급절차는 보장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최소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판단되나,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지급 절차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 신청을 보장구 제작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비단 지급 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절차는 장애인이 보장구 가격의 전액을 제작업체에게 지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까지 환불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은 전액 지급 능력이 부족하여 보장구 제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된 기관에 한하여 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덧붙여 미국의 경우와 같이 보장구 제작업소가 허위 및 부당청구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여하고, 3회 부당 청구시에는 제작업체의 자격을 정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부당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보장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관리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정확한 처방과 검수가 필수적이나, 이러한 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전문가적 지식이 부족한 실정임(김봉옥, 2002).
 - 이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연수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방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아울러 보장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각 보장구의 적절한 사용 방법, 금기사항 등 사용시 주의할 점을 지침화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보장구에 관한 욕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보장구 사용실태 및 수요조사, 보장구 산업실태 및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의 보장구 지급실적 등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건강보험 보험급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 후속연구에서는 신제품 구입뿐만 아니라 중고품 구입 및 임대 등의 형태로 급여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 보장구 기준금액 산정에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기준금액과의 비교를 통한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산정방식, 단계적 추가확대품목의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기본방향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의하면,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즉 재활보조기구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재활보조기구 또는 보장구¹⁾는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보장구의 사용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 직업,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손상된 신체 일부로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운동성을 증진시켜 장애인 스스로 주위 환경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최대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박을중, 1995; 박윤서, 1996; 권선진, 1997). 따라서 보장구는 신체의 기능적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장애의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보장구를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거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보장구의 건강보험 급여실시는 그 동안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전국민의 건강한 생활유

1) '보장구'라는 용어는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재활보조기구'로 대체되었지만, 본 연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중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보조기구보다는 보장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1997년부터 장애인에 한해 4가지 종류의 보장구에 대해 급여를 시작한 이래 2003년 8월 현재에는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은 의지·보조기 및 기타 보장구 등 모두 17종 74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지에는 팔의지(21개), 다리의지(18개) 등 39개 품목이, 보조기에는 팔보조기(5개), 척추보조기(7개), 골반보조기(1개), 다리보조기(11개) 등 2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보장구에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 보조안경 등 11개 품목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구의 품목, 기준 금액, 내구연한 및 지급 절차 등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동휠체어나 정형외과용 구두 등이 보험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장구의 품목이 협소하여 보장구 유형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장구 적용 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가 지원되고 있으나,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이 보장구의 현실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장애인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보청기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 가격은 귀걸이형이 40~50만원이며 장애인이 보다 더 선호하는 컷속형은 70~120만원 이상이고, 디지털 보청기의 경우는 더욱 고가로 판매되는 실정이라 현재 지원되는 보험적용 보청기의 상한가 25만원은 불합리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보장구 급여의 지급절차에 의해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보장구 제작업소에서 본인 부담으로 보장구를 구입하고 이후 다시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의 검수를 받고 나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절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 급여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여 보장구 지급 주기의 적정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장구 수요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지급 품목,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적정 기준금액 산출을 위한 과정으로서 품목별 원가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

한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험급여 기준 개정 시 이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장구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사회통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각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와 함께 보장구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전반적인 보장구 공급 규모를 파악하고자,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장구 급여 제도와 보건복지부 및 정보통신부 등에서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장구 교부 사업, 그리고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보장구 보급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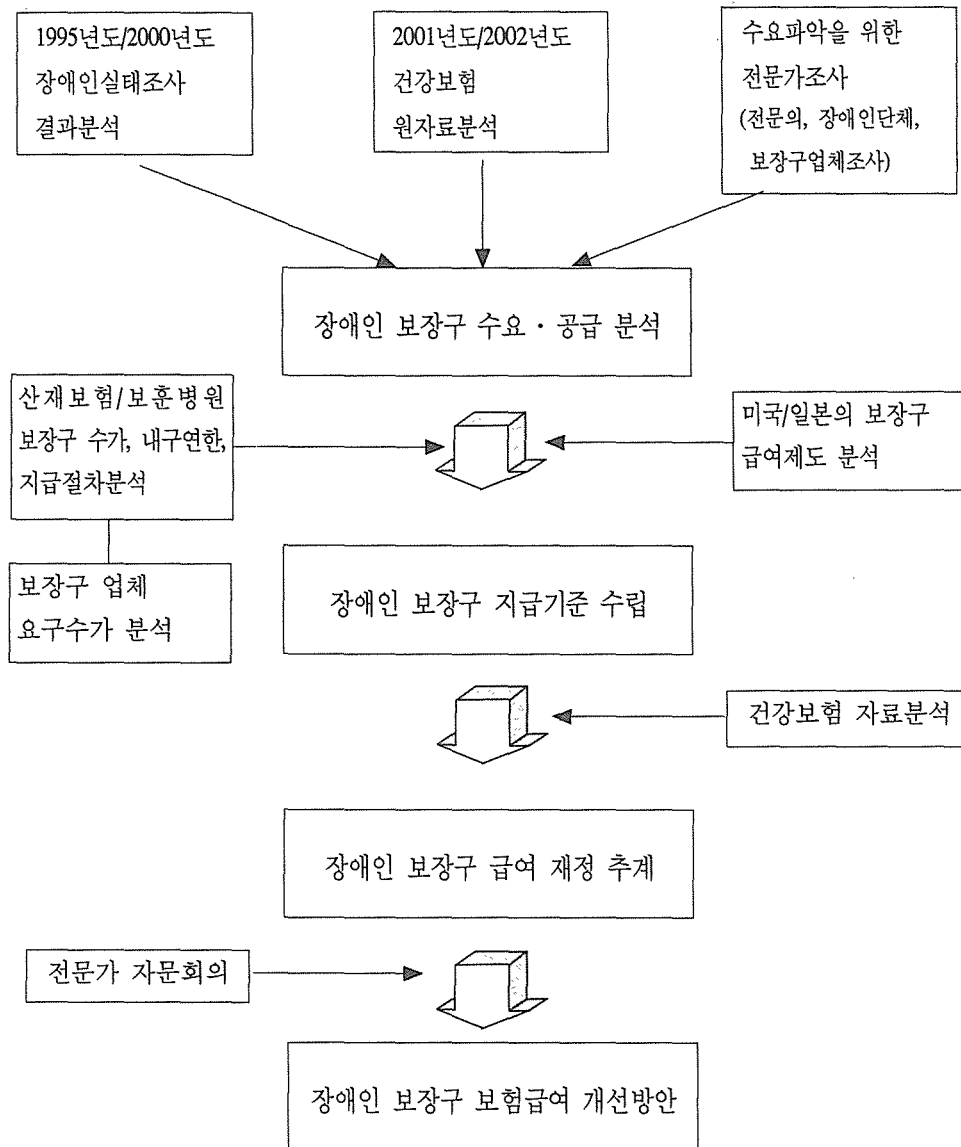
미국과 일본의 보장구 급여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특히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구 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현행 지급품목,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품목, 적정 내구연한 및 기준금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보장구 품목별 원가 산출을 통해 건강보험의 적정 기준금액을 도출하였고,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소요재정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현행 보장구 지급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급절차 방안을 제시하였고 앞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건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충실히 서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문헌연구,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먼저 보장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보장구 지급 제도 및 보급 사업의 현황, 그리고 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의 검토는 국내의 문헌 연구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 분석은 장애인 실태조사(1995년도, 2000년도)와 건강보험(의료급여)의 원자료 분석과,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중 전문가 조사는 대한재활의학회에 소속된 재활의학과 전문의 590명, 그리고 병원 및 종합 병원에 근무하는 보장구 관련 전문의(안

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 2,800명, 보장구 업체 운영자 374명, 장애인단체 관계자 17명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 등 총 3,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8개소의 보장구 업체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가 조사표 개발 및 조사결과 활용 방안, 보장구 급여 관련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구진, 재활의학과 전문의, 재활보조기구업체 운영자,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부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수 차례 개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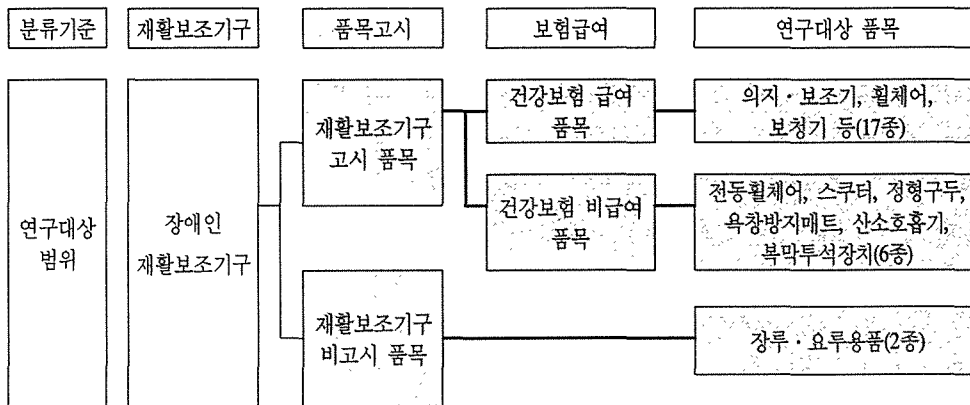
3. 연구대상의 범위

본 연구는 보장구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에서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보완과 일상 생활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제로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보장구의 품목이 총 몇 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 보장구의 공식적인 분류체계인 보건복지부의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에 따르면, 2002년 9월 현재 총 231종의 품목이 재활보조기구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 안에 모든 종류의 보장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2003년 7월부터 확대된 장애범주에 새롭게 포함된 장루·요루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인 인공항문 등은 재활보조기구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재활보조기구는 다시 건강보험 급여 품목과 비급여 품목으로 나뉘는데, 2003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은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총 17종에 불과하며 전동휠체어, 정형화, 스쿠터 등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보장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구 중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 17종과 비급여 품목 중 전동휠체어, 스쿠터, 정형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산소호흡기, 복막투석장치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품목 6종,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장루·요루 장애인의 필수 보장구인 장루·요루 처리 용품 2종 등 총 25종의 보장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²⁾

2) 연구대상 품목 중 욕창방지매트, 산소호흡기, 복막투석장치의 경우에는 전문가 수요 전망 조사 등에 근거하여 향후 건강보험 급여 품목 확대시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품목임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수요량 및 수급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적정 기준금액·내구연한 산정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 등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그림 1-2] 연구 대상의 범위



제 2 절 장애인 보장구의 정의 및 분류체계

1. 보장구의 정의

보장구란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증가·유지시키고,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물건, 장비의 부분, 제품, 혹은 설비를 의미하지만, 그 개념은 나라마다 다르고 법적·제도적으로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실제로 보장구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범위 및 종류도 다양해졌다.

1950년 이후 약 20년간 보장구는 신체장애인을 위한 의지·보조기(Prosthesis & Orthosis) 및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감각기능보조장치(Sensory Aids)를 일컬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보장구에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도입하면서 보장구를 공학적 보조장치라는 의미에서 ‘Technical Aids’로 칭하였다(박을중, 1996).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는 공식적으로 보장구를 Technical Aids라고 칭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 기기, 시스템으로 장애인의 장애(Impairment), 능력저하(Disability) 및 사회적 불리(Handicap)를 방지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ISO, 1992).

최근에는 Technical Aids라는 용어보다 ‘개인의 기능상의 제한을 없애거나,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기술’이란 의미의 ‘Assistive Devices’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Assistive Devices란 개인의 기능적 제한성을 없애거나,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적을 고안된 기술을 일컫는다(Technical Aids Seminar, 1998). 또한 장애인의 신체 기능적 능력을 증진, 유지 혹은 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 기구, 장비 또는 시스템으로서 특별히 제작된 것이나 일반기성품 또는 일반기성품의 일부 수정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결국 보장구란 장애의 결과를 완화하거나 장애인의 삶을 용이하게 해주는 용구를 총칭하는 것이다. 미국은 보장구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ABLEDATA³⁾에 따르면, 미국의 보장구에는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낮은 기술 수준(low-tech)의 제품에서부터 계단을 오르는 휠체어 같은 첨단 기술 수준(high-tech)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총 2만 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이 망라되어 있다(Carlson 외, 2001).

한편 일본에서는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보장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보장구를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실 및 손상된 신체기능을 보전할 목적의 용구’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보장구를 크게 의지, 장구, 자조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지는 상지 또는 하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손이 있는 자가 그 결손을 보완하거나 또는 그 결손에 의해 상실된 기능을 대체할 목적의 기구나 기기를 말하며, 장구는 상지 또는 하지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체간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가 착용하여 당해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기능의 저하를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을 보완할 목적의 기구나 기기를 말한다. 또한 자조구는 장애인이 자립해 갈 때 신체처리동작이나 가벼운 작업을 위해 도안된 도구류를 의미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용구 및 보장구를 총칭하여 ‘복지용구’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복지용구란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지장이 있는 노인 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이들의 기능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용구 및 보장구를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보장구’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하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3)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장애·재활연구소(NIDRR: The 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의 자금지원으로 보장구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기타 보건의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재활보조기구는 보장구와 생활용품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복지용구와 유사한 개념이다.

2. 보장구의 분류체계

장애인 보장구 분류의 국제적 기준은 북유럽분류체계(Nordic Classification System on Aids for Disabled Persons)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각국 분류체계의 기준이 되었다(권선진, 1997). 국제표준화기구는 1989년 국제규격시안(ISO/DIS)을 완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각국의 의견을 수집하여 1992년 장애인 보장구분류법(Technical Aids for Disabled Persons: ISO 9999)을 제정하였다.

ISO/DIS 9999의 목적은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되고 명확한 분류와 구분을 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통일적이고 명확한 분류 및 구분을 함으로써 보장구 정보의 검색과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 ② 기기 정보, 사용법, 처방을 위한 방침, 법적 기술, 공문서, 조사연구, 리스트, 카타로그 등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③ 보장구 개발, 재고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구축 기반 제공을 위해 ④ 보장구에 관한 통계의 기초, 컴퓨터 기반의 (computer-based) 정보시스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DIS 9999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개인이 사용하는 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의약품, 의료영역에만 이용되는 기기, 보장구의 조작 훈련에 관한 것, 설치를 위한 설비, 경제적 원조 및 지급 시스템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ISO/DIS의 분류코드는 3의 배수인 2행의 숫자를 대·중·소 3단계로 각각 부여하고 있으며, 소분류의 항목은 6행의 숫자로 코드화되어 있다. 3의 배수를 부여한 것은 나중에 중간 코드가 필요해질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SO/DIS 9999를 토대로 각국이 이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부터 재단법인인 테크노에이드협회 주관으로 ‘복지기기 정보 제공 시스템(TAIS: Technical Aids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을 실시하면서 정보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이용하기 위해서는 복지기기의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복지관련 기기 용어 위원회’를 설치하여 ISO/DIS 국제규격안을 토대로 1995년 ‘일본복지용구분류코드(CCTA: Classification Codes of Technical Aids)’를 제정하였다.

각국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북유럽 국가들은 치료훈련기기(03)⁴⁾, 보조기·의지(06), 위생용구(09), 이동기기(12), 가정용품(15), 가구·건축용품(18), 커뮤니케이션기기(20), 타제품조작기(24), 오락기구(25)로 되어 있다. ISO의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기기(27), 오락기구(30)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들 외에 작업용구(27)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장구 이외에 치료훈련용구, 가정용구, 교육용구, 오락기구 등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기구나 기기, 물품들과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보장구 분류체계를 제정하였다. ‘국립장애·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이하 NIDRR)’에서 작성한 보장구(관련 서비스 포함)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분류 10종, 중분류 71종, 소분류 49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NIDRR, 2000).

〈표 1-1〉 미국의 보장구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건축 기기	지지 기기, 문/창문 개폐장치, 가정내 건축기기, 리프트/엘리베이터/램프, 안전 기기, 특수바닥
감각 기기	시각기기, 청각기기, 인지기기, 중복장애기기, 의사소통기기
컴퓨터 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악세사리
제어 기기	환경제어기기, 타이머, 리모콘, 운전기기
독립생활 기기	의복, 위생용구, 신체보호용구, 옷입고벗기용구, 화장실용구, 세면용구, 손발톱 관리용구, 헤어관리용구, 구강관리용구, 피부관리용구, 가사용구, 손조작용구, 방향안내용구, 기타 치료 용구
이동 기기	교통기기, 걷기/서기 보조기, 휠체어, 기타 이동기기
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윗팔보조기, 짧은팔보조기, 전기자극기, 혼합보조기, 윗팔의지(1), 윗팔의지(2), 짧은팔의지, 미관용짧은팔의지, 기타 의지
스포츠·레저 기기	장난감, 실내게임용구, 미술/도예용구, 사진용구, 헬스용구, 조정용구, 캠핑용구, 하이킹용구, 낚시/사냥/활쏘기용구, 스포츠용구, 음악기기
가구 및 작업 기기	탁자, 조명, 앉기 보조기, 침대, 받침대, 작업 기기
관련 서비스	개인 평가, 보장구 구입 지원, 보장구 선택 및 이용 지원, 기타 서비스 의뢰, 훈련/기술적 지원, 기타 서비스

자료: NIDRR,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Services,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재활보조기구의 품목고시를 하도

4) ()안의 수자는 ISO의 대분류번호이다.

록 함으로써 재활보조기구의 분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후 2002년 9월 보건복지부 고시 2002-66호를 통해 분류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품목고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999 체계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고시된 재활보조기구 분류체계에 의하면, 대분류에는 치료훈련용구 등 10종이 지정되었으며, 중분류에는 호흡기 치료용구 등 72종이, 소분류에는 인공호흡기 등 231종이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① 의약품 및 식품, ②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이나 보호자, 장애인 보조견 등 생물체와 이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③ 보건 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의료용구(다만 의사의 처방·지도로 장애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구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법률의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편의시설(다만 장애인의 주택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는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하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활보조기구로서 인공 호흡기, 복막투석장치, 이명차폐장치,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기립훈련기, 후두 튜브, 소변줄, 목발,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기립형 이동기기, 인공후두, 보청기, 인공중이, 인공달팽이관시스템이다.

〈표 1-2〉 보장구의 국제 분류체계

북유럽		ISO		일본		한국	
03	치료훈련기기	03	치료훈련기기	03	치료훈련기기	03	치료훈련용구
06	보조기, 의지	06	보조기, 의지	06	의지, 장구	06	의지·보조기
09	위생용구	09	위생용구	09	위생용구	09	개인위생·보호용구
12	이동기기	12	이동기기	12	이동기기	12	이동기기
15	가정용품	15	가정용품	15	가사용구	15	가사용구
18	가구·건축용품	18	가구·건축용품	18	가구, 건축설비	18	가구·건축물용부대시설,
21	커뮤니케이션기기	21	커뮤니케이션기기	21	커뮤니케이션기기	21	정보통신신호기기
24	타제품조작기	24	타제품조작기	24	조작용구	24	조작용구
25	오락기구	27	환경개선기기	27	작업용구	27	환경개선기기
		30	오락기구	30	오락기구	30	레크리에이션용구

자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보장구 품목고시 및 용어의 단일화 연구』, 1996; 보건복지부 고시 2002-66.

제 3 절 보장구의 특성

1. 기술수준 및 생산방식의 다양성

보장구는 범주에 포함되는 품목들의 다양성 만큼이나 개별 품목의 생산에 투입되는 기술 수준도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목발이나 지팡이 등의 단순한 품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지만, 컴퓨터 기기나 전동 휠체어 같은 품목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품목들이다. 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이러한 기술의 다양성은 품목간에 기술을 호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장구는 품목에 따라 생산 방식도 다양하다. 휠체어나 보청기처럼 자동화된 공정에 의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있는 반면, 의지나 보조기 같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제품의 규격이 달라지는 제품은 대량 생산을 하기가 어렵기에 소량의 제품을 맞춤 방식으로 생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보장구의 특성은 타 산업과 구별되는 보장구 산업의 정체성 확립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표준산업분류에 보장구 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보장구는 타 산업의 제품과는 달리 시장규모는 적으나 비교적 수요가 일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시장 규모가 작다는 것은 보장구의 주요 소비자가 장애인과 노인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것은 주 고객인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대부분 일생동안 지속되며, 또한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아 경기가 좋다고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경기가 나쁘다고 구입하지 않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보장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 및 장애범주의 확대에 의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보장구의 출현, 그리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보장구 보급의 확대 등을 근거로 한 전망이다. 장애인구는 실제로 장애범주가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장애출현율이 청

장년층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령화 추이는 향후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⁵⁾ 또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보장구가 등장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컴퓨터 기기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보장구의 출현도 수요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보장구 수요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공적 급여제도이다.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소득수준은 훨씬 낮고 실업률은 훨씬 높은 현실속에서 건강보험 등의 지원 없이 장애인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보장구를 구입하기는 매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보장구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장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U. S. Department of Commerce, 2003).

3. 생산 및 판매업체의 영세성

보장구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들은 취급품목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일반산업체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보장구 업체들은 대부분 개인이 설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법인의 형태는 드문 실정이다. 2001년 보건복지부의 보장구 업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248개 업체 중 198개소(79.8%)가 개인설립업체이며, 자본금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업체가 152개소(61.3%), 종사자 수는 평균 6.3명으로서 2명 이하인 업체도 99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대부분의 업체가 자본 부족 및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00년에 미국 상무부가 실시한 보장구 산업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업체의 60%가 직원 10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보건복지부·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 등 장애인복지관련 정부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1차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계획(1997. 12) 및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 2)에 의해서 최근 장애범주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00년 1월에는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발달장애(자폐증)가, 2003년 7월에는 안면기형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간장애가 새롭게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으며, 향후에는 암, 치매, 에이즈 등도 장애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장애출현율은 약 21%로서 청장년층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볼 때, 향후에는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장애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중적 유통구조

보장구의 유통구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 및 수입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직거래형태와 판매전문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간접거래형태로 이원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의지나 보조기 같이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 생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중간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일반제조업 품목들처럼 자동화된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휠체어 같은 품목은 생산과 판매가 비교적 분리되어 있다. 결국 보장구의 유통 구조는 이러한 해당 품목의 특성 및 제품의 사용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장애인의 장애기간, 장애상태 등 개별적 필요에 따라 직거래나 간접거래 형태가 결정되고 있다(권선진, 1997).

제 2 장 보장구 급여제도 및 보급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999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으며, 동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 것을 장애인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이념 및 장애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정부는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 요인인 신체장애의 극복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보장구는 장애인에게 신체장애의 경감 또는 완화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교육, 직업, 사회·심리적 재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손상된 신체 일부로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운동성을 증진시켜 장애인 스스로 주위 환경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최대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더불어 향후에는 장애범주 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장구의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 가운데에서도 보장구 보급과 관련한 정책은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장구 보급의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 및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국가보훈처 등 사회보험기금 및 조세를 재원으로 한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일부 저소득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장구 교부사업이다. 이 외에 보장구 보급의 또 다른 주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등 사회복지 관련 민간 기관

들도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보장구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보장구 급여제도 및 보급 사업의 현황을 급여의 내용, 급여 실적, 지급 절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보장구 급여제도의 현황

정부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보장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⁶⁾ 다만,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보장구 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며,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한다.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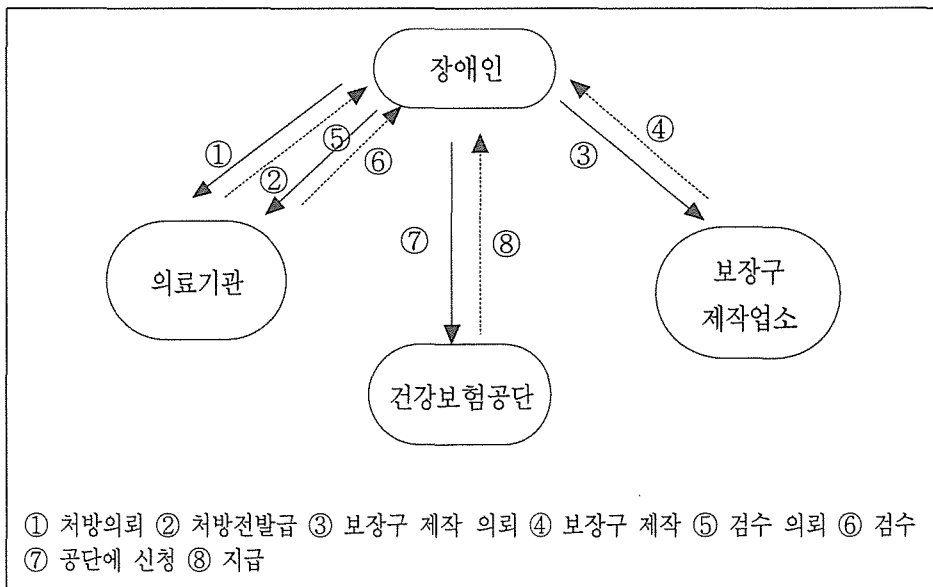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등록된 장애유형을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에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 건강보험대상자는 용도가 등록된 장애와 다를 경우 의사의 의학적 소견 및 보험자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

6) 의료급여의 보장구 급여 재원은 대상자 종별에 따라 다른데,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2종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0%는 의료급여기금에서, 20%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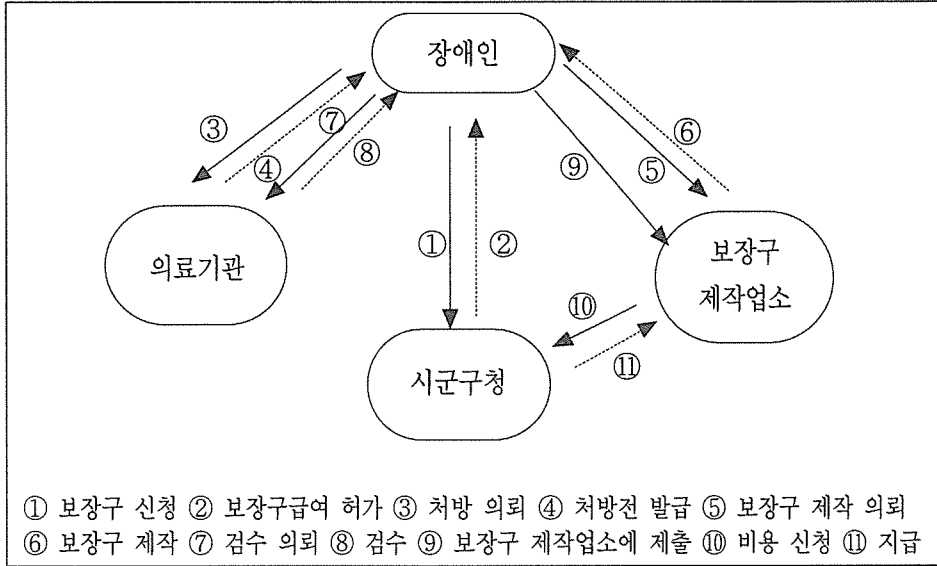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한다. 한편,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지원 절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보장구와 처방이 불필요한 보장구로 나눌 수 있다. 처방이 불필요한 보장구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이다. 이러한 보장구에 대해서는 자비로 먼저 보장구를 구입한 후 구입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 사본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그 외의 보장구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이러한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 통장사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러한 지급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건강보험 보장구 지급절차



[그림 2-2] 의료급여 보장구 지급절차



2003년 8월 현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수는 총 74개이다. 이 중 의지에는 팔의지(21개), 다리의지(18개) 등 39개 품목이, 보조기에는 팔보조기(5개), 척추보조기(7개), 골반보조기(1개), 다리보조기(11개) 등 24개 품목이 포함되며, 기타 보장구에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 보조안경 등 11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업재해장해자를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2-7호, 제2001-70호) 및 후유증상진료업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최근 달라진 보장구 지급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12월까지의 지급횟수가 2회로 제한되고, 시중 업체서만 구입이 가능했으나 2001년 12월 이후 노동부 개정 고시에 따라 부위별 내구연한에 따라 평생토록 보장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신청분에 한해서는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로 무료 지급하고 있다. 추가 품목 중 구두, 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의안, 가발, 흰지팡이, 인공후두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업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 변경은 재해 당시의 연령 및 상병 부위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2회만 지급함으로써 대다수의 사용자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보장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산재보험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수는 수리료를 포함하여 총 121개로서,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지가 38개, 보조기가 27개, 기타 보장구가 13개, 그리고 수리료가 4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병원을 통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등에게 해당 보장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수는 총 344개에 달하는데, 종류별로 살펴보면 의지가 102개, 보조기가 66개, 기타 보장구가 11개, 그리고 수리료가 165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점은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표 2-1〉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국가보훈처의 보장구 급여 품목 수

구분	건강보험(의료급여)		산재보험		국가보훈처	
의지	팔의지	21	상지의지	20	의수	49
	다리의지	18	하지의지	18	의지	53
소계		39		38		102
보조기	팔보조기	5	상지보조기	6	상지보조기	12
	척추보조기	7	척추보조기	9	척추보조기	21
	골반보조기	1	골반보조기	1	골반보조기	1
	다리보조기	11	하지보조기	11	하지보조기	32
소계		24		27		66
기타	기타보장구	11	구두	3	구두	9
			의자차및목발	3	의이 · 의안	2
			기타	7		
소계		11		13		11
수리료			상지의지	8	수리료	165
			하지의지	20		
			보조기	8		
			의자차	7		
소계		0		43		165
계		74		121		344

급여 내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및 국가보훈처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지급 품목 수에서는 국가보훈처가 가장 많고 건강보험이 가장 적으며(표 2-1 참조), 동일 품목에 대한 지원 상한액 역시 국가보훈처의 보훈병원이 대체로 가장 높고, 산재보험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다(부록 참조). 또한 산재보험과 국가보훈처는 보장구를 무료로 교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지원 상한액의 8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내구연한 내에 수리를 하거나 보장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과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수리 및 추가 구입에 대한 비용 역시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공적 보장구 급여 제도의 연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의 경우 2001년도에는 6,486백만원(22,150건), 2002년도에는 6,686백만원(24,560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2,609백만원(7,423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341백만원(3,772건), 2002년도에 882백만원(5,951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훈병원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3,213백만원(9,396건), 2002년도에는 3,465백만원(9,558건)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표 2-2〉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의 연간 지출 규모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연도	건수	지급액	상지의지	하지의지	보조기	기타
건강보험	2001	22,150	6,486	375	2,434	751	2,926
	2002	24,560	6,686	388	2,030	859	3,409
의료급여	2002	7,423	2,609	151	947	478	1,032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	2001	3,772	341	24	145	73	99
	2002	5,951	882	156	384	80	263
보훈병원	2001	9,396	3,213	165	1,320	450	1,177
	2002	9,558	3,465	171	1,564	441	1,289

자료: 건강보험공단,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 서울보훈병원의 2003년도 내부자료임.

7) 산재보험 보장구 급여 지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명시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의 지급 실적 외에 민간 보장구 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보장구(구두, 휠체어, 보청기, 인공후두 등 총 10종)에 대한 지급액이 포함되어야 하나 자료의 제약으로 누락되었기에 실제 산재보험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보훈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상경 등에 대한 무료 교부 실적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한 실적이 합산되어 있어 순수한 보훈병원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본문에 명시된 수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지출규모의 각 제도별 구성비를 구해보면 건강보험이 약 49.0%, 의료급여가 19.1%, 산재의료관리원이 6.5%, 그리고 보훈병원이 25.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전체 보장구 지급의 약 50%를, 그리고 보훈병원이 약 25%를, 의료급여가 약 20% 정도를 분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의 지급실적 구성비(2002)

(단위: 백만원, %)

구분	지급액	구성비
건강보험	6,686	49.0
의료급여	2,609	19.1
산재의료관리원(재활공학연구소)	882	6.5
보훈병원	3,465	25.4
계	13,642	1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 · 서울보훈병원 내부자료.

제 2 절 정부의 보장구 교부사업 현황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재활보조기구를 구입 또는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교부해왔고, 이들 품목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후에는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하여 보급하고 있다.

교부대상은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서는, 교부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후에 현물로 지급 받게 된다. 최근 5년간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의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1,44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국고 74%, 지방비 26%로 편성되었다. 5년간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총 37,725명이며, 2003년에는 13,600명이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장애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장구 무료 교부 사업이 지체 및 시각 등 특정 장애유형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건강보험급여 품목이 확

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무료교부사업의 지급 품목은 축소되어 왔다는 점은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표 2-4〉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계	국 고	지 방 비
2003	1,440,000	1,060,800	379,200
2002	988,200	734,832	253,368
2001	617,490	456,507	160,983
2000	589,650	456,750	132,900
1999	630,000	456,750	173,25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2-5〉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보장구 교부사업의 품목별 교부 현황

구분 연도	교부 품목									
	계	의수족	보조기	음성손 목시계	TV자막 수신기	정형외과 용구두	욕창 방지용 매트	음향신 호기리 모콘	음성탁 상시계	휴대용 무선 신호기
계	37,725	530	244	9,233	6,464	2,256	12,398	1,500	1,500	3,600
1999	5,853	530	244	3,579	1,500	-	-	-	-	-
2000	8,661	-	-	5,654	3,007	-	-	-	-	-
2001	3,280	-	-	-	1,957	1,323	-	-	-	-
2002	6,331	-	-	-	-	933	5,398	-	-	-
2003(계획)	13,600	-	-	-	-	-	7,000	1,500	1,500	3,600
교부대상	장애유형	지체	지체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신장	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시각	청각
	등급	의사 처방	의사 처방	-	-	의사 처방	1-2급	-	-	-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최근에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애영역별로 다양한 특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보급이 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정보화에 어려움

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2003년에 4,5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신기종 PC, 시각장애인용 음성낭독 S/W(스크린리더) 및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지체, 뇌병변 장애인용 마우스 스틱, 발 마우스 등 특수입력장치를 9,950명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보급대상은 장애 1~3등급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며, 완전 무상방식이 아닌 20%내외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부대상에 있어서 전체 장애인이 아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일부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표 2-6〉 정보통신부의 보장구 교부 사업 현황

장애유형	기기	수 량	시중가격	소요예산	정부보조	자부담
시각장애	스크린리더	4,000	220,000	2.5억원	62,500	15,000
	점자정보단말기	50	5,000,000	2억원	4,000,000	1,000,000
청각 언어장애	화상 전화기	1,500	Vizufon 660,000	4.5억원	300,000	132,000
			TelephoSee 900,000			180,000
지체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마우스스틱	560	194,000	4억원	155,200	38,800
	발마우스	60	500,000		400,000	100,000
	롤러트랙볼	307	400,000		320,000	80,000
	한손사용자용키보드	163	700,000		560,000	140,000
	매직터치스크린	300	350,000		280,000	70,000
	헤드마스터	10	1,900,000		1,520,000	380,000
등록장애인	PC	3,000	1,290,000	30억원	1,000,000	290,000
합 계		9,950개		45억원 (2억 운영관리비포함)		

주: 장애인의 자부담은 업체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자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보도자료(2003. 8. 12).

제 3 절 민간기관의 보장구 보급사업 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보장구 보급사업은 장애인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간접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무선신호기, 점자프린터 등 다양한 품목의 보장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24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애인 관련 민간 단체들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업체 및

지원단체 등의 후원금을 통한 지원, 자부담 등을 통하여 보장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품목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없는 보장구(전동휠체어 등)와 정보 및 방송접근을 돕는 정보통신 신호기기(TV자막수신기, 화면읽기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7〉 민간기관의 보장구 보급사업 현황

기관명	지급품목	지급대상	지급연도	지급수량(개)	지급액(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의지/보조기	지체장애인	2003	300	24,000,000
	휠체어	"	"	127	69,340,000
	전동휠체어	"	"	11	22,590,000
	침대휠체어	"	"	1	1,000,000
	전동스쿠터	"	"	1	3,530,000
	휠체어 에어메트리스	"	"	100	47,000,000
	척추측만증 보조기/보조화	"	"	-	2,000,000
	보행기	"	"	-	55,000
	재활운동기구/의료기	"	"	-	5,853,750
	재활스포츠키구	"	"	-	3,000,000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	105	17,850,000
	원지팡이	시각장애인	"	20	260,000
	독서확대기	"	"	3	7,656,000
	의안	"	"	20	10,000,000
	감각치료특수교육장비	"	"	-	5,000,000
	감각통합치료장비	"	"	-	7,050,000
	점자프린터	"	"	-	4,312,000
	점자필기도구류, 음성시계, 원지팡이 등	"	"	50	4,400,000
	신체기능보완의료기구	뇌성마비장애인	"	-	4,000,000
	전동침대3대	한센장애인	"	-	5,000,000
	소계			-	243,896,750
한국농아인 협회	TV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	1999	700	94,500,000
	TV자막수신기	"	2000	1,725	232,875,000
	TV자막수신기	"	2001	2,500	337,500,000
	TV자막수신기	"	2002	2,362	318,870,000
	TV자막수신기	"	2003	2,500	307,500,000
	소계			9,787	1,291,245,000
정립회관	전동휠체어(중고)	자립생활을 원 하는 장애인	2001-2003	20	

<표 2-7> 계속

기관명	지급품목	지급대상	지급연도	지급수량(개)	지급액(원)
한국뇌성마비 복지회	전동휠체어	뇌성마비장애인	2002	3	6,735,000
	휠체어	"	"	8	8,840,000
	소계			11	15,575,000
장애인편의시설 축진시민연대	전동스쿠터	지체장애 1,2급 중 기초생활수급 자	2003	6	-
한국시각장애 인연합회	화면읽기소프트웨어	시각장애인	1998	-	-
	화면읽기소프트웨어	"	1999	-	-
	점자번역소프트웨어	"	2001	-	-
	시각장애인용 토크북 플레이어	"	2001	-	-
	화면읽기소프트웨어	"	2001	-	-
	DVS 화면해설수신기	"	2002 - 2003	-	-
	저시력용 화면확대소프트웨어	"	2002	-	-
	음성유도기 리모콘	"	2002	-	-
	소계			-	-
한국장애인 선교연구소	수동휠체어	기초보장수급자	2002	40	-
	전동휠체어	"	"	3	-
	특수휠체어	"	"	15	-
	목욕용의자	"	"	21	-
	워커	"	"	33	-
	목발	"	"	5	-
	지팡이	"	"	4	-
	기저귀패드	"	"	48	-
	침상용담요	"	"	100	-
	수동휠체어	"	"	107	-
	지팡이	"	"	100	-
	햇팩	"	"	200	-
	기저귀패드	"	"	50	-
	환자용팬티	"	"	4	-
	바디워셔	"	"	144	-
	바디로션	"	"	144	-
	소계				-

주: 공란은 자료의 제약으로 집계가 되지 않은 부분임.

자료: 각 기관 내부자료.

제 4 절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제도의 문제점

1. 지급 품목의 협소

현재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구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총 17종 74개 품목에 불과하다. 1997년 급여 실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급 품목이 확대되어 오기는 했으나,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은 수리료 급여를 제외하고서라도 산재보험(78개) 및 국가보훈처(179개)의 지급 품목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품목을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74개 품목 중에서 67개 품목이 지체장애인(일부 품목의 경우 뇌병변 장애인도 해당)이 사용하는 보장구이고, 나머지는 시각장애인용 5개(안경, 저시력보조기, 돋보기, 의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1개(보청기), 그리고 언어장애인용 1개(체외용 인공후두) 이루어져 있어 특정 장애유형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점자 타자기 등의 품목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의 범주는 사회 참여의 확대 및 첨단 보장구의 출현 등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8〉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급 품목 추이

연도	지급 품목	종류
1997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돋보기, 망원경, 보청기, 인공후두	6종
1998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3종
1999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골반보조기, 척추보조기, 의안, 콘택트렌즈	8종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또한 일부 의지·보조기 또는 기타 보장구의 경우 내구연한이 장기간으로 책정되어 있어 구입한 보장구가 내구연한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파손 또는 고장이 나서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는 수리비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 필요한 보장구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2. 낮은 기준 금액

현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별 기준금액은 판매업체의 시가는 물론 산재보험과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의 기준금액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은 급여제도 도입 당시의 산재보험의 가격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것으로서 산재보험 기준금액이 재료비 및 인건비의 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최근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건강보험 기준금액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처럼 기준금액이 낮다 보니 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의 본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높은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장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에 맞는 낮은 품질의 보장구를 구입함으로써 충분한 재활의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나아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3. 번거로운 지급 절차

현행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제도 하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보장구 제작업소에서 본인 부담으로 보장구를 구입하고 이후 다시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일체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절차로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사의 처방 및 검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를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는 보장구의 특성상 의학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검수를 보장구 구입의 필수적인 절차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보장구에 대한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장구를 처방 및 검수하는 재활의학전문이나 정형외과전문의 등 담당의사들의 보장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처방 및 검수의 과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 3 장 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제 1 절 미국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1. 미국 장애인의 보장구 이용 실태

미국에서는 보장구를 ‘Assistive Technology Devices’⁸⁾라고 칭한다. 1998년에 개정된 ‘보장구에 관한 법률(Assistive Technology Act)’에 따르면, 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 및 활동을 돕는 각종 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팡이나 보행기 같은 낮은 기술 수준(low-tech)의 제품에서부터 계단을 오르는 휠체어같은 첨단 기술 수준(high-tech)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망라되어 있다(Carlson 외, 2001). 연방정부의 교육부 산하 ‘국립 장애·재활 연구소’에서 작성한 보장구 분류체계에 따르면, 미국의 보장구 품목은 대분류 10종, 중분류 71종, 소분류 494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⁹⁾, 또한 약 2,000여 개의 회사에서 약 18,0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보장구 품목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NIDRR, 2000 ; ABLEDATA, 2001).

한편, 2000년 인구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재가 장애인 수는 약 4,9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5세 이상 전체 인구 수 25,720만명의 19.3%에 달하는 수치로서 미국인 5명 중 1명은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장애특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3.6%인 930만명이 시력과 청각을 포함한 감각기능 장애인이며, 2,120만명(8.2%)이 걷기와 계단 오르기 등의 기본적인 신체 활동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신체 장애인이고, 1,240만명(4.8%)이 배우고 기억하며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80만명(2.6%)이 옷 입기, 목욕하기 등의 신변처리 활동 등에 어려움을 가지고

8) ‘Assistive Technology Devices’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보조공학 도구’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장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보장구’로 명명하고자 한다.

9) NIDRR의 ‘재활보조기구 및 관련 서비스 분류체계(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Services)’에는 재활보조기구 외에 재활보조기구의 평가, 구입방법·제품 선정 등에 관한 지원, 장착훈련, 수리 등 관련 서비스가 별도로 분류되고 있으나 본문의 품목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있으며, 16세 이상 전체 인구의 8.6%인 1,820만명이 쇼핑하기, 병원가기 등의 외부 활동에 장애를 갖고 있고, 경제활동 연령대에 해당하는 16세 이상 64세 이하 전체 인구의 11.9%인 2,130만명이 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 미국 재가 장애인구의 특성(성별, 연령, 장애유형별)

(단위: 명, %)

연령	계		남자		여자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5세 이상 인구	257,267,527	100.0	124,638,825	100.0	132,530,702	100.0
장애인 수	49,746,248	19.3	24,439,531	19.6	25,306,717	19.1
5~15세 인구	45,133,667	100.0	23,125,324	100.0	22,008,343	100.0
장애인 수	2,614,919	5.8	1,666,230	7.2	948,689	4.3
감각기능장애	442,894	1.0	242,706	1.0	200,188	0.9
신체장애	455,461	1.0	251,825	1.1	203,609	0.9
정신장애	2,078,502	4.6	1,387,393	6.0	691,109	3.1
신변처리장애	419,018	0.9	244,824	1.1	174,194	0.8
16~64세 인구	178,687,234	100.0	87,570,583	100.0	91,116,651	100.0
장애인 수	33,153,211	18.6	17,139,019	19.6	16,014,192	17.6
감각기능장애	4,123,902	2.3	2,388,121	2.7	1,735,781	1.9
신체장애	11,150,365	6.2	5,279,731	6.0	5,870,634	6.4
정신장애	6,764,439	3.8	3,434,631	3.9	3,329,808	3.7
신변처리장애	3,149,875	1.8	1,463,184	1.7	1,686,691	1.9
외부활동장애	11,414,508	6.4	5,569,362	6.4	5,845,146	6.4
직업활동장애	21,287,570	11.9	11,373,786	13.0	9,913,784	10.9
65세 이상 인구	33,346,626	100.0	13,940,918	100.0	19,045,708	100.0
장애인 수	13,978,118	41.9	5,634,282	40.4	8,343,836	43.0
감각기능장애	4,738,479	14.2	2,177,216	15.6	2,561,263	13.2
신체장애	9,545,680	28.6	3,590,139	25.8	5,955,541	30.7
정신장애	3,592,912	10.8	1,380,060	9.9	2,212,852	11.4
신변처리장애	3,183,840	9.5	1,044,910	7.5	2,138,930	11.0
외부활동장애	6,795,517	20.4	2,339,128	16.8	4,456,389	23.0

자료: U.S. Census Bureau, Disability Status, 2003.

현재 미국 장애인의 보장구 이용 실태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1994년과 1997년에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보건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가 실시한 18세 이상 전체 성인 장애인 인구 4,180만명을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인 ‘장애 추적 조사(Disability Followback Survey)’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보장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장애인은 약 1,66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 840만명의 장애인이 목욕, 옷입기, 먹기, 걷기, 외출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기초적인 일상생활수행(ADLs)에 있어서 보장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1,540만명의 장애인이 장루 주머니(ostomy bags), 혈당측정기(glucose monitors), 흡입용 마스크(inhalers), 호흡기(nebulizers), 보청기, 목발, 보행기, 휠체어, 스쿠터 등의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Carlson 외, 2001).

보장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약 740만명의 장애인이 목발, 보행기, 정형화, 휠체어 등과 같은 이동 관련 보장구(Mobility device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460만명의 장애인들이 의지·보조기(Orthopedic device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450만명의 장애인들이 보청기, 문자전화, 캡션 TV 등과 같은 청각관련 보장구(Hearing devices)를 사용하고 있으며, 527천명의 장애인들이 저시력보조기, 흰지팡이, 음성출력기 등의 시각관련 보장구(Vision device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일품목으로는 목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480만명), 다음으로 보청기(420만명), 보행기(180만명), 허리보조기(170만명), 휠체어(160만명)의 순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2 참조).

연령별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장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관련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61.5%, 청각관련 보장구의 68.8%, 그리고 시각관련 보장구의 51.0%가 65세 이상 노인들로서 타 연령대의 이용률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의지·보조기에 있어서는 44세 이하의 장애인들이 54.6%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구 천명 당 보장구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연령과 재활 보조기구 이용 빈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 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장구 이용 빈도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천 명당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보장구는 이동관련 보장구로서 인구 천 명당 28.5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천 명 당 무려 146.5명이 이동관련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표 3-2〉 미국 재가 장애인들의 보장구 이용 실태(1994년)

(단위: 천명, %)

보장구	계		44세 이하		45세 ~ 64세		65세 이상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수	구성비
의지·보조기	4,565	(100.0)	2,491	(54.6)	1,325	(29.0)	748	(16.4)
허리보조기	1,688	(100.0)	795	(47.1)	614	(36.4)	279	(16.5)
목보조기	168	(100.0)	76	(45.3)	78	(46.7)	13	(8.0)
손보조기	332	(100.0)	171	(51.5)	119	(35.9)	42	(12.7)
팔보조기	320	(100.0)	209	(65.4)	86	(26.7)	25	(7.9)
다리보조기	596	(100.0)	266	(44.6)	138	(23.2)	192	(32.2)
발보조기	282	(100.0)	191	(67.8)	59	(21.0)	31	(11.2)
무릎보조기	989	(100.0)	694	(70.2)	199	(20.1)	96	(9.7)
기타 보조기	399	(100.0)	239	(59.9)	104	(26.1)	56	(14.0)
팔의지	199	(100.0)	69	(35.0)	59	(29.6)	70	(35.4)
다리의지	173	(100.0)	58	(33.4)	50	(29.1)	65	(37.6)
손의지	21	(100.0)	9	(42.7)	6	(30.9)	6	(26.4)
이동관련 보장구	7,394	(100.0)	1,151	(15.6)	1,699	(23.0)	4,544	(61.5)
목발	575	(100.0)	227	(39.4)	188	(32.7)	160	(27.8)
지팡이	4,762	(100.0)	434	(9.1)	1,116	(23.4)	3,212	(67.5)
보행기	1,799	(100.0)	109	(6.1)	295	(16.4)	1,395	(77.5)
정형화	677	(100.0)	248	(36.6)	226	(33.4)	203	(30.0)
휠체어	1,564	(100.0)	335	(21.4)	365	(23.4)	863	(55.2)
스쿠터	140	(100.0)	12	(8.4)	53	(38.2)	75	(53.4)
청각관련 보장구	4,484	(100.0)	439	(9.8)	969	(21.6)	3,076	(68.6)
보청기	4,156	(100.0)	370	(8.9)	849	(20.4)	2,938	(70.7)
음성증폭 전화기	675	(100.0)	73	(10.8)	175	(26.0)	427	(63.2)
문자전화	104	(100.0)	58	(56.2)	25	(24.0)	21	(19.8)
자막TV	141	(100.0)	66	(47.0)	32	(22.7)	43	(30.3)
청력 보조장치	106	(100.0)	26	(24.1)	22	(21.1)	58	(54.8)
음향표시장치	95	(100.0)	37	(38.8)	23	(23.9)	35	(37.3)
수화통역사	57	(100.0)	27	(46.4)	21	(37.5)	9	(16.2)
기타	93	(100.0)	28	(30.0)	24	(26.0)	41	(44.1)
시각관련 보장구	527	(100.0)	123	(23.4)	135	(25.7)	268	(51.0)
저시력보조기	158	(100.0)	40	(25.0)	49	(31.1)	70	(43.9)
점자용구	59	(100.0)	28	(47.6)	23	(39.3)	8	(13.1)
독서기	68	(100.0)	15	(22.1)	14	(20.2)	39	(57.7)
흰지팡이	130	(100.0)	35	(26.8)	48	(37.0)	47	(36.2)
컴퓨터 장치	34	(100.0)	19	(57.2)	8	(22.3)	7	(20.5)
기타	277	(100.0)	51	(18.4)	76	(27.3)	151	(54.3)

자료: NCHS, Trends and Differential Us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United States(1994), 1997에서 재구성.

〈표 3-3〉 인구 천명당 재가 장애인들의 보장구 이용자 수(1994년)

(단위: 천명, 명)

보장구	계		44세 이하		45세 ~ 64세		65세 이상	
	이용자수	천명당 이용인구	이용자수	천명당 이용인구	이용자수	천명당 이용인구	이용자수	천명당 이용인구
총 인구	259,626		178,198		50,403		31,025	
의지·보조기 이용자	4,565	(17.6)	2,491	(14.0)	1,326	(26.3)	748	(24.1)
이동관련 보장구 이용자	7,394	(28.5)	1,151	(6.5)	1,699	(33.7)	4,544	(146.5)
청각관련 보장구 이용자	4,484	(17.3)	439	(2.5)	969	(19.2)	3,076	(99.2)
시각관련 보장구 이용자	527	(2.0)	123	(0.7)	135	(2.7)	268	(8.6)

자료: NCHS, Trends and Differential Us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United States(1994), 1997에서 재구성.

2.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미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장구 급여제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의한 공적 급여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적 급여제도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급여제도는 메디케어 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제도는 급여 대상과 급여 품목, 급여 액수 등에서 다른 보장구 급여 제도를 압도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 급여제도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타 급여제도는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가. 메디케어(Medicare) 보장구 급여 제도

1) 메디케어 개요

미국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장제도는 없고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한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와 일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공적의료보장의 대상자는 전국민의 24%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일반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한편,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무보험자」가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약 4,137만명(2000년)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어 보험의 사각지대(Insurance Crack)로써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메디케어에는 입원서비스 등을 보장하는 강제가입인 파트A(병원보험 또는 입원보험: Hospital Insurance)와 외래에 대한 의사의 진찰 등을 보장하는 임의가입인 파트B(보충적 의료보험: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가 있다. 파트A의 재정은 사회보장세 일부(파트A 비용의 85.5%, 2002년), 연방유족노령보험신탁기금 등으로 조달되고, 파트B의 재정은 가입자의 매월 월정 보험료(1인당 매월 54달러, 2002년)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의 각출금(파트B 비용의 73.7%) 등으로 조달된다.

메디케어의 피보험자는 크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2년 현재 메디케어 피보험자 수는 약 4,110만명으로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피보험자 수는 약 3,510만명(85.4%)이고, 장애인 피보험자 수는 약 6백만명(14.6%)이다. 병원보험(파트A)와 보충적 의료보험(파트B)의 피보험자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파트A (병원보험 또는 입원보험)

아래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다만, 다음의 자격이 없더라도 65세 이상이고 자발적으로 소정의 보험료(월액 319달러, 2002년)를 지불하는 고령자 등은 피보험자가 된다.

- 65세 이상으로 사회보장제도(OASDI) 또는 철도종업원 퇴직제도에 따른 연금수급자격(퇴직과는 관계없음)을 가진 고령자
- 65세 미만으로 2년 이상 장애연금을 수급한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일정기간 철도종업원 퇴직장애급여를 받고, 사회보장법의 장애인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 메디케어의 적용을 받는 일정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 신장이식과 신장투석이 필요한 말기신장질환자(End Stage Renal Disease: ESRD)

② 파트B (보충적 의료보험)

파트B는 임의가입 보험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월액 54달러(2002년)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는 피보험자가 된다.

- 파트A의 강제적용자
 -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 미국시민
 - 합법적으로 미국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신청일 직전 5년간 미국에 거주한 자
- 2002년의 피보험자는 파트A가 합계 약 4,060만명(65세 이상 3,460만명, 장애인 600만명), 파트B가 합계 약 3,810만명(65세 이상 3,290만명, 장애인 520만명)이 되고 있다.

〈표 3-4〉 메디케어 수입·지출·피보험자 현황(2002년)

(단위: 십억달러, 백만명)

구분	병원보험	보충적의료보험	계
총 수입(십억달러)	\$178.6	\$106.2	\$284.8
사회보장세	152.7	—	152.7
기금이자	14.4	2.7	17.1
연방노령유족보험신탁기금	8.3	—	8.3
보험료	41.6	25.1	26.7
일반세입	0.6	78.3	79.0
기타	1.0	0.0	1.0
총 비용(십억달러)	\$152.5	\$113.2	\$265.7
급여비	149.9	111.0	260.9
입원서비스	104.9	15.4	120.3
전문간호서비스	15.6	—	14.6
가정간호서비스	6.1	4.4	10.5
외래서비스	—	45.0	45.0
메니지드케어	19.4	17.3	36.7
기타	4.9	28.8	33.7
행정경비	\$2.6	\$2.2	\$4.8
피보험자 수(백만명)	40.6	38.1	41.1
65세 이상 노인	34.6	32.9	35.1
장애인	6.0	5.2	6.0
피보험자 1인당 평균 급여비	\$3,689	\$2,915	\$6,604

자료: CMS, 2003 Annual Report of The Boards of Trustees of The Federal Hospital Insurance and The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s, 2003.

메디케어의 운영은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가 관장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재정청(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담당하고 있다.

2) 보장구 급여제도

가) 보장구 지급 품목

메디케어의 보장구 급여제도는 파트B인 보충적 의료보험의 급여 중 하나로서 1989년에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메디케어에서 지급하는 보장구 품목은 2003년 현재 총 2,421개 품목으로서 여기에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및 장착훈련·수리 등의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메디케어는 앞서 언급한 NIDRR에서 작성한 보장구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품목의 보장구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품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우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 주로 의료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거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보장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①‘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보장구(Durable Medical Equipment)’에는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Oxygen), 휠체어(Wheelchairs), 혈당측정기(Blood Glucose Monitors), 욕창방지용 침대(Hospital Beds), 심장박동장치(Heart pacemakers) 등이 포함되며, ②‘보조기구(Prosthetic Devices)’에는 장루·요루 및 후두 보조기구(Ostomy, Urological & Tracheostomy Supplies), 안경 및 저시력 보조기(Eyeglasses & Lenses), 인공가슴(Breast Prostheses), 인공후두(Voice Prostheses) 등이 포함된다. 또한 ③‘의지·보조기(Prosthetics & Orthotics)’에는 의지, 보조기, 의안 등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④‘기타 보조기구(Supplies)’에는 가정용 신장투석기(Home Dialysis Supplies & Equipment), 정형외과용·당뇨구두(Therapeutic/Diabetic Shoes) 등이 포함된다.

나) 보장구 급여 내용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는 해당 급여 품목에 한하여 실제 가격(Actual Charge)과 메디케어 수가(Fee Schedule)를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의 80%를 메디케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메디케어의 보장구 급여 지급 방식은 임대(rental)가 원칙이다. 임대는 월단위로 하여 최장 15개월까지 가능하며, 월 임대비는 최초 3개월까지는 상한액(national limited payment amount)의 10%이고, 3개월 이후에는 상한액의 7.5%으로 책정된다. 연속해서 10개월을 임대하는 경우 메디케어는 보장구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지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용자는 한 달 내에 구입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이용자가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임대 13개월째 되는 달에 해당 품목의 소유권은 공급자에서 이용자에게로 귀속된다. 이 경우 그 때부터 임대 및 구입 비용은 중단되며, 임대한지 15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수리 및 관련 서비스 비용만 메디케어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보장구 품목의 특성상 임대 지급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품목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들 예외 품목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①저가·구입품목(Inexpensive or routinely purchased equipment), ②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Equipment that requires frequent and substantial servicing), ③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품목(Customized items), ④의지·보조기(Prosthetic and Orthotic devices), ⑤산소호흡장치(Oxygen and oxygen equipment)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들 예외 품목의 급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가·구입품목은 구입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거나 또는 이용자의 75% 이상이 임대가 아닌 구입을 하는 품목으로서 임대나 구입이 모두 가능한 제품이다. 만일 임대를 할 경우, 최장 15개월의 임대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총 비용은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흡입기(aspirator), 통풍기(ventilator), 의료용 분무기(nebulizer) 등 제품의 특성상 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은 월단위 임대만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총 비용은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품목과 의지·보조기는 구입만 가능하며, 산소호흡장치는 임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 보장구 급여 실적

2002년 현재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총 지출액은 98억달러로 집계되었다. 보장구 유형별 급여액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의료용 보장구가 70억달러로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조기가 12억달러(13%), 그리고 의지·보조기가 9억달러(9%), 기타 보조

기구가 7억달러(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표 3-5〉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실적(2002년)

(단위: 억달러, %)		
종 류	급여액	구성비
지속적인 의료용 보장구(Durable Medical Equipment)	70억 달러	71%
보조기구(Prosthetic Devices)	12억 달러	13%
의지·보조기(Prosthetics & Orthotics)	9억 달러	9%
기타 보조기구(Supplies)	7억 달러	7%
계	98억 달러	100%

자료: CMS, Developments in Durable Medical Equipment(DME) Payment, 2002.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8년간의 메디케어 총 지출액과 재활보조기구 급여비를 살펴보면, 메디케어 총 지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보장구 급여 지출도 계속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보장구 급여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메디케어 총 지출 2,657억달러 중에서 보장구 급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표 3-6〉 최근 8년간의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실적

(단위: 십억달러, %)		
연도	메디케어 총 지출	보장구 급여액
1995	184.2	5.6 (3.0%)
1996	200.3	5.9 (2.9%)
1997	213.6	6.1 (2.9%)
1998	213.4	5.8 (2.7%)
1999	213.0	6.2 (2.9%)
2000	221.8	6.8 (3.1%)
2001	244.8	8.3 (3.4%)
2002	265.7	9.8 (3.7%)

자료: CMS, Developments in Durable Medical Equipment(DME) Payment, 2002.

라) 보장구 수가 결정 방식(Fee Schedule Payment Methodology)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수가는 보장구 품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저가·구매 품목과 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 산소호흡장치 및 상한

액 임대 품목은 보장구 급여가 도입된 198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품목으로서 1986년 이후 각 주(States)의 해당 품목별 ‘합리적 평균 가격(Average reasonable charges)’¹⁰⁾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각 주의 값 중 중앙값)과 최저 가격(중앙값의 85%)사이에서 주의 수가가 결정되며, 이는 매년 갱신되는데 1989년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1.9% 인상되어왔다. 의지 보조기 또한 198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품목으로서 1986년 이후 각 주의 ‘합리적 평균 가격’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과(각 주의 값 중 평균값의 120%) 최저 가격(평균값의 95%)내에서 지역의 수가가 결정되며, 이는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되는데 1989년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1.6% 인상되어왔다.

음식섭취 보조기구(Parenteral & Enteral Nutrition)는 200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품목으로서 1995년 이후 해당 품목의 ‘합리적 평균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가가 결정되며, 매년 갱신되게 되는데, 2003년 인상률은 1.1%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품목(Certain Customized Items)은 임대가 아닌 구입만 가능한 품목으로서 해당 품목에 대한 중간지불기관(Carriers)의 개별적인 심사에 의해서 수가가 결정된다.

10) 합리적 평균 가격이란 해당 품목의 실제구입가격(actual charge), 공급자 통상가격(supplier's customary charge), 지역내 지배 가격(local prevailing charge)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거나 또는 전년도 최저 가격에 물가인상지수를 반영한 가격(inflation-indexed charge: previous lowest charge + CPI-U update)을 의미한다.

〈표 3-7〉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수가 결정 방식

수가 결정 방식	해당 품목	지급 방법
1986년 이후 각 주의 ‘합리적 평균 가격’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과(각 주의 값 중 중앙값) 최저 가격(중앙값의 85%)내에서 매년 갱신되며, 1989년 급여 실시 이후 2003년까지의 연평균 인상률은 1.9%임.	저가·구매품목(Inexpensive or routinely purchased equipment)	임대, 구입
	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Equipment that requires frequent and substantial servicing)	임대
	산소호흡장치(Oxygen and oxygen equipment)	임대
	상한액 임대 품목(Capped Rental Items)	임대, 구입
1986년 이후 각 주의 ‘합리적 평균 가격’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과(각 주의 값 중 평균값의 120%) 최저 가격(평균값의 95%)내에서 매년 갱신되며, 1989년 급여 실시 이후 2003년까지의 연평균 인상률은 1.6%임.	의지·보조기(Prosthetics & Orthotics)	구입
1995년 이후 ‘합리적 평균 가격’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되어 매년 갱신되며, 2003년 인상률은 1.1%임.	음식섭취 보조기구(Parenteral & Enteral Nutrition)	구입
해당 품목에 대하여 중간지불기관이 심사하여 결정됨.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제품(Certain Customized Items)	구입

자료: 1) CMS, Developments in Durable Medical Equipment(DME) Payment, 2002.

2) CMS, 2003 Annual Report of The Boards of Trustees of The Federal Hospital Insurance and The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s, 2003.

3) PAI, Assessing Assistive Technology,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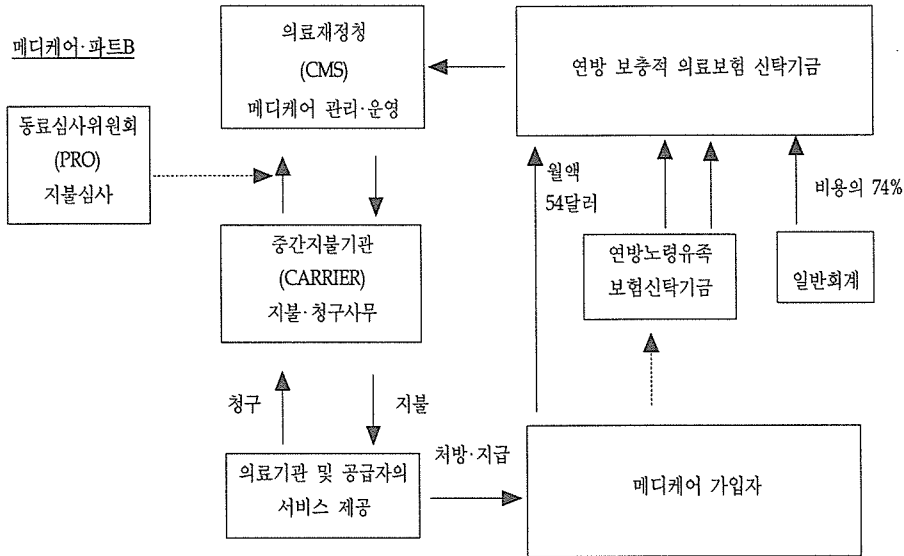
보장구 급여에서 지급되는 품목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해서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내구연한을 따로 정하기도 한다. 보장구의 교체는 내구연한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리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태만에서 비롯되지 않은 분실이나 혹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인 경우에만 수리비 급여를 지급한다. 단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비 급여에 수리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보장구 급여 지급 절차

메디케어 급여 지급 절차에는 ‘중간지불기관’이 의료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청구되는 각종 급여의 접수, 심사 및 지불업무를 대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파트A의 중간지불기관은 ‘Intermediary’라고 하며, 파트B의 중간지불기관은 ‘Carrier’라고 한다. 중간지불기관은 의료재정청(CMS)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심사지불기준에 대해서는 CMS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다. 중간지불기관에 의해 부정청구로 판명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과가 3회 계속되는 경우에는 영원히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지불은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4일에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은행 입금보다는 수표에 의한 지불이 대부분이다. Intermediary는 전국에 44개 기관이 있고, Blue Cross·민간보험회사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Carrier는 전국에 28개 기관이 있고, Blue Shield·민간보험회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보장구 급여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메디케어 급여 지급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급여의 접수, 심사 및 지불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지불기관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주로 ‘보장구급여 전문 중간지불기관(Durable Medical Equipment Regional Carrier: DMERC)’에서 보장구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보장구의 품목에 따라서 ‘일반 중간지불기관(Local Carrier: LC)’이 담당하거나 또는 DMERC와 LC가 공동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보장구 급여의 서비스 공급자는 보장구의 처방 및 테스트, 보장구 관련 약품 처방 등을 담당하는 의사와 보장구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크게 메디케어 서비스 공급기관과 비공급기관으로 구분된다. 메디케어 서비스 공급기관은 메디케어 수가체계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비공급기관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수가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메디케어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20%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비공급기관에 속한 의사의 처방료 등은 메디케어에서 정한 금액의 1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반면, 비공급기관에 속한 보장구 업체는 이러한 초과 상한액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의 지급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1]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급절차



나. 기타 보장구 급여 제도

메디케어 외의 공적 급여제도에에는 메디케이드, 직업재활 프로그램, 특수교육 프로그램, 국가보훈처(Veterans Affairs) 급여 제도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 급여제도를 운영주체, 지급대상, 비용부담, 지급절차 등을 기준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료급여제도이다. 메디케이드의 가입자격을 살펴보면,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일시부조(Temporary Aid to Needy Family: TANF)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가입대상이 되며, 그 외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한다. 의료급여제도라는 특성상 메디케이드는 가입자에게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장구를 지급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장구에는 휠체어, 보행기, 의지, 보청기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메디케이드는 보장

구의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비용도 지급한다.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메디케이드는 보장구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가입자는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나 혹은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보건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특정 보장구에 대한 ‘의료적 필요증명서(Certificate of Medical Necessity)’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보장구 공급자에게 제출하면 보장구 공급자는 해당 품목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둘째,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서비스 수혜대상은 취업준비, 직업훈련, 구직 등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 특히 장애가 중증인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이 되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된다. 서비스 수혜대상 장애인은 ‘재활공학 평가(rehabilitation engineering evaluation)’를 통해 보장구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받게 되는데, 만일 평가 결과 보장구에 대한 필요성이 입증되면 해당 보장구의 구입, 장착 및 훈련, 이용 등에 관한 서비스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무상 혹은 일부 본인 부담의 방식으로 제공 받는다.

셋째,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실제 특수교육 서비스는 지역내 공립학교를 통해 제공된다. 특수교육 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발달이 지체되는 3~5세의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5~21세 장애아동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5~21세 장애아동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끼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애에는 정신지체, 신체장애, 특정 학습장애, 청각 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행동장애, 정서장애, 자폐증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등이 포함된다. 장애아동이 21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특수교육 서비스는 그 후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장구를 지급하는 경우는 장애아동이 보장구를 통해 학교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학습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입증되었을 때이다. 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보장구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시각 장애 아동에게는 오디오테이프(audiotape)를, 의사소통 장애아동에게는 의사소통장치(augmentive communication equipment)를 제공하며, 커다란 손잡이가 달린 필기 도구나 음식섭취 도구 같은 단순 품목들도 제공한다. 또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장애 아동이 학교를

통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장구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장애 아동의 특수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품목이라면 가정에도 해당 보장구를 설치해 주기도 한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장구 및 관련 서비스는 전액 무상으로 제공된다.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학교에 보장구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 결과 보장구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 신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의뢰 절차 없이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보장구 필요성이 입증되면, 장애 아동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에 참여하게 되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보장구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보훈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군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소득지원, 의료지원, 교육 및 재활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참전 중 장애를 입은 자이어야만 한다. 국가보훈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보장구에는 수혜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지급되는데, 여기에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보청기 등의 감각기능 장치, 각종 재활장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동 및 시각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주택개조, 자동차 제공 및 개조 등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s)까지 제공한다. 이러한 재활보조기구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은 대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내에 있는 보훈병원(VA Hospital)을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한다.

3. 국내 제도에서의 시사점

미국의 보장구 급여제도가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보장구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적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지급하고 있는 공적 프로그램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및 국가국가보훈처 등 4개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앞서 소개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특수교육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서비스, 국가국가보훈처 등 5개의 주요 프로그램 외에도 발달장애 프로그램(Programs for Development Disabled), 아동의료서비스(Children's Medical Services), 근로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Social Security Work Incentive Programs) 등 다양한 보장구 급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 상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급격한 지출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수교육 서비스 및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을 통한 새로운 보장구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적 프로그램을 통한 보장구 급여제도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 외에 여기에서는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미국의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제도의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출 수준이 메디케어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01년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6,486백만원으로서 이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지출액 14,107,500백만원의 0.0459%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반해, 동년도의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출액은 전체 지출대비 3.4%에 이르고 있다.¹¹⁾ 보장구 급여 지출액의 이러한 현격한 차이는 수가의 차이와 함께 보장구 급여제도에 포함되는 급여 품목 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급여 품목의 경우 2002년 현재 건강보험이 불과 74개 품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데 비해, 메디케어는 무려 2,421개 품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현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급격한 증가는 아니더라도 향후 수가의 인상 및 급여 품목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 지출액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보장구 급여의 지급절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보험의 경우 장애인이 먼저 해당 품목을 구입한 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간지불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및 이동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식이 더 편리한 지는 명약관화하다. 물론 허위 및 부당 청구 등 공급자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장애인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현재와 같은 지급 절차는 의·약품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이 직접 보험 급여 청구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라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미국의 경우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균형예산에 관한 법률(The Balanced Budget Act)’을 제정하여 급여 지급 방식을 기존의 정해진 수가가 아닌 공급자와의 입찰방식을 통해 수가보다 더 낮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을 몇 개의 지역에서 시행했지만(Hoerger 외, 2001),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품목의 확대 및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급여 지출액은 쉽게 억제되고 있지 않다.

셋째는 급여의 종류와 관련된 것으로서 메디케어의 경우에는 급여 품목의 특성에 따라 신제품 구입, 중고품 구입 및 임대 등으로 차별화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구입에 한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고가의 첨단 제품이 등장하고, 제품의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중고품 구입이나 임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메디케어가 보장구의 수리 및 장착·훈련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 건강보험은 이러한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의지·보조기 등 보장구의 상당수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보장구의 장착 및 훈련, 그리고 파손에 대한 적절한 수리 조치는 보장구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성공적인 재활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미 산재보험에서도 2001년부터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볼 때, 수리비의 경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장구 수가 결정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메디케어의 경우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최초의 수가를 설정한 이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가를 갱신해 오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수가 산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며 더구나 1997년에 보장구 급여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 번도 수가가 인상되지 않았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구 수가 갱신과 관련하여 메디케어의 수가 결정 방식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제 2 절 일본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

1. 개요

일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마련하여 의료행정이나 사회복지행정 또는 노동행정 등의 시행령 안에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보장구 지급제도는 이러한 체제의 일환으로서 의료제도 및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 체제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보험제정에 의해 급부(給付)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 체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세금(국세 및 지방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 신체장애자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사회복지 체계이다.

일본에서의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체계는 서구 여러나라와 비교해보면 대단히 복잡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인 1950년부터 공공기금에서 보장구 교부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이전에는 상이군인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지급하였고, 민간 장애인들은 고가의 보장구를 자기 부담으로 구입하게 되어 실제 보급률이 저조하였다.

1973년부터는 보장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구까지 확대하여 약 50여 종류의 일상생활 용품을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개호 보험제도의 실시로 외상노인에게 그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용구의 지급 또는 대여는 보장구와는 다른 법체계에서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 보장구 급여체제는 매우 복잡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는 ‘보장구 교부·수리사업’과 ‘중도신체장애자일상생활 용구급부등사업’이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는 ‘노인일상생활용구급부등사업’이 있다. 어느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장구를 반납할 필요가 없는 현물급여가 원칙이지만 특수침대나 리프트 등은 대여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보장구 교부·수리사업’에서는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대체·보완하기 위한 용구로 장애의 내용·정도에 따라 맞춤형 용구를 지원하며 ‘중도신체장애자일상생활용구급부등사업’에서는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성제품의 복지용구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실시주체는 일본 전국의 3,20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이며, 기초지자체 담당창구는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담당과가 되고, 노인의 경우에는 고령자 복지담당과로 나뉘어 있다. 또한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급부대상품목과 그 가격이 다르며 급부대상자의 납세액에 대응한 자기부담과 소득상환액도 각기 다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발족 당초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기관위임사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장이 실시했으나, 1986년부터 단체위임사무로 변경되었고 1990년 사회복지관계

8개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주체가 종래의 시 또는 도도부현 복지사무소 대신에 시정촌등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다.

한편 「개호보험법」에 의해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운영주체(보험자)는 각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되고, 40세이상 국민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며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개호가 필요한것으로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피보험자(제1호 피보험자 : 65세 이상, 제2호 피보험자 : 40세이상 65세 미만)에게 개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개호서비스는 크게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택서비스에는 복지용구 대여서비스(대여에 적합하지 않은 특수변기 등 특정복지용구의 경우에는 구입비의 지급)가 포함된다.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이용자는 임대요금의 10%를 부담함으로써 도도부현지사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복지용구를 직접 임차하고, 대여사업자는 보험자로부터 나머지 요금의 90%를 지불 받게 되었다.

2. 지급 품목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의료·사회복지, 국가부조(공적부조), 공중위생 등 크게 4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은 위와 같은 4개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되고 있지만,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범위, 지급방법, 대상자에 따라 지급되는 보장구나 일상생활용품은 다르다.

그러나, 제도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장구의 대부분은 신체장애자복지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교부 기준에 준하고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의지(본의지) : 쇼케트, 동력전달계, 외장 등 의지의 모든 부분이 오랜 시간 사용해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의지
- ② 훈련용 의지 : 장착해서 동작을 하기 위해 본의지를 제작하기 전에 사전 실험 또는 검토 가능하도록 동력전달부와 훈련용 임시 쇼케트를 조합시킨 의지
- ③ 의료용 장구 : 의학적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하는 장구, 또는 단순히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구
- ④ 재활용 장구 : 의학적 치료가 끝나고,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고정된 후에 일상생활 동작 등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구

- ⑤ 일상생활용품 : 신체기능이 저하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사용하는 용품 (예, 리프트, 특수침대, 체위전환기, 입욕보조용구, 변기, 복지전화 등)
- ⑥ 기타 : 수노기, 스토마용구, 보행보조기 등

3. 일본의 보장구 급여 지급체계

현재 일본에서는 의지장비의 처방에서 제작, 적합, 장착훈련에 이르기까지 한 시스템으로 행해지고 있어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일본의 장애인이 공공비용으로 인해 보장구를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은 1950년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며 보장구의 공적인 급여는 이때를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후 선천적 질병, 사고 등 원인을 불문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구를 지급하게 되었다.

보장구의 공적인 급여는 각 장애인의 개인적 목적에 맞게 각종의 법률, 사업에 따라 실시되고 있고, [그림 3-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보험체계와 사회복지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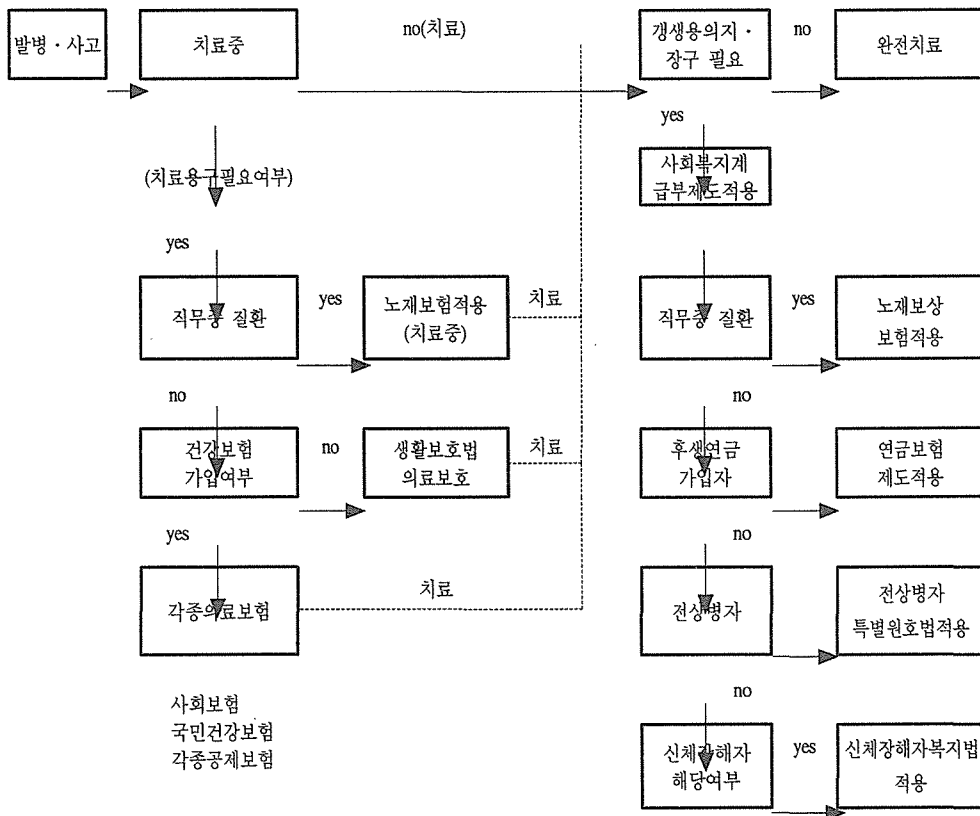
환자는 각종의 제도 중 자기가 필요로 하는 보장구의 급여를 위해서 어느 것을 이용하면 좋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환자가 치료중일 경우와 치료는 완료했으나 장애가 남아 계속하여 의지장비가 필요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치료중일 경우는 의료의 일환으로서 보장구가 처방되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장착되게끔 된다. 이 경우의 장비를 치료용 장비, 치료(훈련)를 위해 사용되는 의지를 훈련용 임시 의지로 칭한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급부제도는 보험체계의 제도가 중심이 된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장애라면 산재보험이 제일 우선순위로 적용되고, 이외에는 환자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 보험제도로 치료 및 보장구의 지급이 시행된다. 이러한 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하지만, 생활이 곤궁하여 보험료 지불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 중 공적부조로서 생활보호법이 적용된다.

치료를 완료한 후에도 장애가 남아 의지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갱생용의지·갱생용장비로서 각 제도의 지급대상자라면 의지장비의 급부를 받을 수 있다. 각 제도의 우선순위로는 역시 산재보험이 최우선이다. 다음으로 연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해 급부가

적용된다.

[그림 3-2] 일본 보장구 지급에 관한 각종 급여제도



가.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질환과 사고 치료에 대해 상호부조에 기초를 둔 국민개보험제도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 또는 사고 때문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치료비를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보험급여에서 부담하지만 보험제도에 따라 지급금액 중 일부는 개

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상조제도의 취지 및 가입하는 사람의 직업 등에 따라 보험제도는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무원공제조합보험, 일일 임시노동자건강보험, 선원보험 등 각각 다르다. 또 이 제도의 적용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가 적용되어 진다.

현재의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현물급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거의 대부분 병원이 해당됨)이 일련의 의료서비스의 급여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부담을 제외한 치료비는 의료기관이 직접 수속 기관인 각 보험사무소에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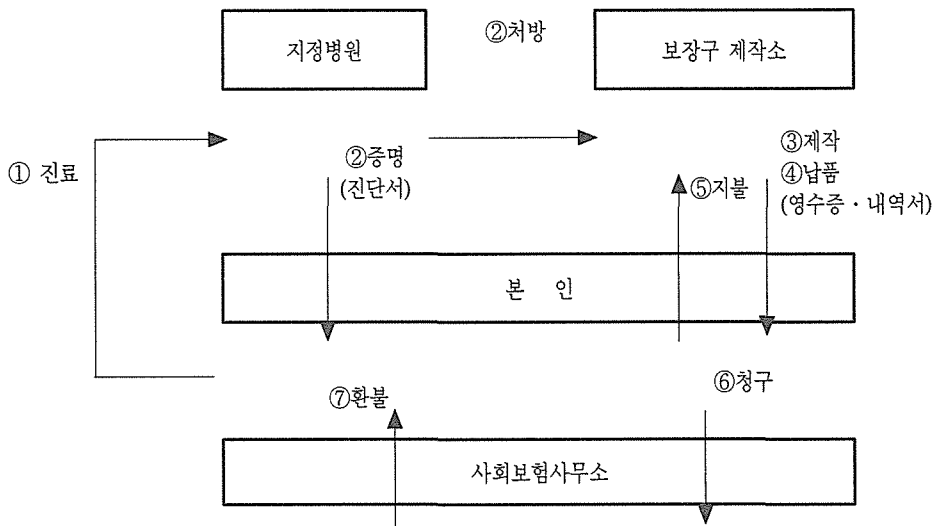
1) 보장구 급여 방식

보장구의 급여는 [그림 3-3]에 나와있는 것처럼 일단 환자(보험가입자)가 보장구의 제작을 맡은 제작시설에 현금 지불을 한 후, 수속기관인 각 보험사무소에 청구를 하여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환불받는 「요양비 지불」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장구는 치료행위 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상은 치료용보장구와 훈련용가의지로 한정된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거나, 계속해서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생용의지·보장구로 분류되어 다른 제도에 의해 급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요양비 지불에 따른 치료용 보장구 지급절차

- ① 의사가 필요한 보장구명과 제작요소 등을 처방한다.
- ② 의사(의료기관)로부터 보장구 제작업체에 발주한다.
- ③ 보장구 완성 후 의사에게 검수받고, 환자는 제작업체에 대금을 지불한다.
- ④ 요양비 지급신청서, 지불한 대금의 영수증,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의견서)를 수속기관이 있는 관할의 보험사무소에 제시하고 요양비 지불을 청구한다.
- ⑤ 보험기관은 개인 부담분을 제외한 대금을 환자(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그림 3-3] 일본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나.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노동재해보험제도는 업무상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행하는 제도로서, 피고용인의 노무재해, 공무원재해에 대하여 고용인이 책임이 있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이나 복지제도에 우선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의 노동감독서가 재해라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재해보험제도의 종류에는 노동자 재해보상보험, 공무원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직무상), 학교건강센터제도가 있다.

보장구 급여제도는 치료단계에서 보장구가 지급되는 의료보험제도와 동일하고, 치료용 장구나 훈련용가의지 등의 급여 방식도 「요양비지불」 시스템과 동일하다. 의료보험제도와 다른 점은 수급기관이 노동기준감독서라는 것, 근로재해보험제도에서는 개인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치료가 종료되고 증상이 고착되면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보장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복지사업을 통하여 갱생용 의지·갱생용 장구 등의 지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재해보험제도는 업무재해와 통근재해를 보험금부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

며, 업무상 그리고 통근 상에 있어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손실된 상병노동자의 노동능력 회복 및 손실의 보전과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료용보장구·훈련용가위의 지급 절차는 의료보험제도와 거의 동일하고, 노동기준감독서에 비용 청구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전국에 노동기준국은 47개소, 노동기준감독서가 348개소가 있으며, 근로재해보험제도가 직접 운영하는 노동재해병원이 전국에 39개소 있고, 이외에도 채형지도의사가 있는 노재의료지정병원도 다수 있다.

재생용 의지장구의 지급, 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받는다.

- ① 사업소 관할의 노동기준감독서에 신청을 한다
- ② 신청서는 감독서를 경유하여 노동기준국에 제출된다.
- ③ 노동기준국에서는 본인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 ④ 환자는 승인서를 가지고 의지장구제작소에 제작 접수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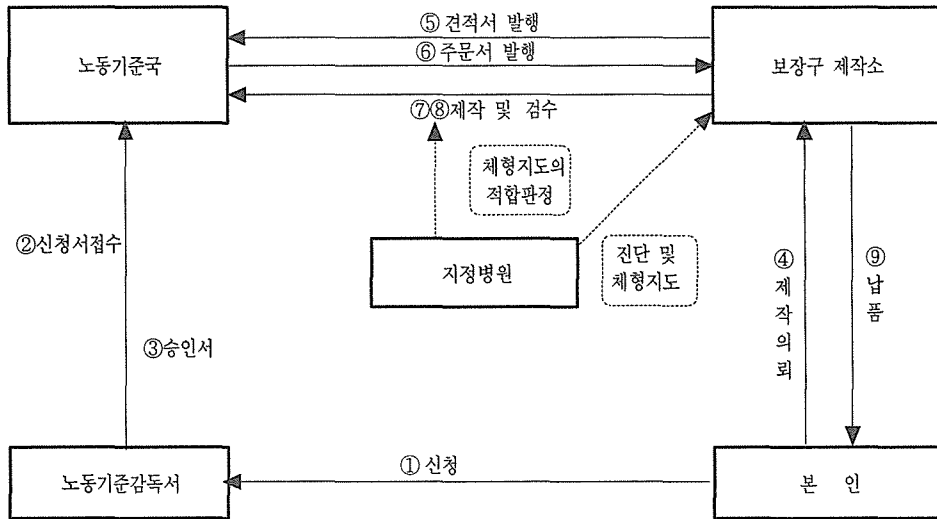
(처음으로 급부를 받는 경우, 환자는 제작소의 의지장구사와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과 채형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⑤ 보장구제작소는 기준국에 견적서를 발행한다.
- ⑥ 기준국은 보장구제작소에 주문서를 발행한다.
- ⑦ 보장구를 제작한다(제작 개시 후 3개월이내에 제작).
- ⑧ 노동기준감독관으로부터 완성한 보장구의 검수를 받는다.

(처음으로 급부를 받는 경우, 채형지도의사에 의한 적합판정이 필요)

- ⑨ 보장구제작소는 본인에게 납품한다.

[그림 3-4] 일본 노동재해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다. 후생연금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피보험자에게 후생연금보험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자부담 없이 보장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후생연금보험은 노동자가 노령·폐질·사망 등에 처해 있을 경우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사고, 질병, 부상 등을 비교적 단기간 소멸하기 위해 사회보험 중에서 「단기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전술한 의료보험제도에 해당하며, 비교적 장기간의 급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후생연금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이 적용된다. 일본의 연금제도에는 후생연금 외에 국민연금, 공무원공제조합보험 등이 있으나 보장구 급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생연금을 재원으로 많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재단법인 후생단이 경영하는 후생연금병원은 의료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연금 가입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후생연금병원에서 보장구의 급여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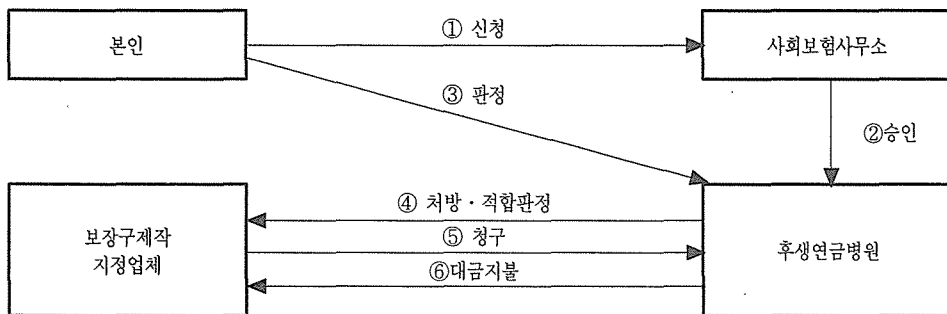
환자(연금가입자)가 상병에 의해 하지가 절단되면, 우선 치료단계에 있어서는 그 치료비

는 환자가 가입한 각종보험제도로부터 지급되고, 개인 부담액은 각 보험의 급여율에 따라 산정된다. 다음에 하지의 절단으로 인해 훈련용가의족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똑같이 의료보험제도(단기보험)로부터 지급된다. 여기까지는 후생연금제도(장기보험)의 가입이 없다. 치료 및 훈련이 종료되고, 하지절단장애가 남아있어 환자가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일생에 걸쳐 필요로 하는 보장구의 지급이 후생연금제도에 의해 자부담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생연금제도에서의 보장구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소정의 신청서에 의사기입의 진단서·견적서를 첨부하여 사회보험사무소에 신청한다.
- ② 신청이 승인되면 후생연금병원에서 판정을 한다.
- ③ 지정업체에 보장구 처방이 내려지고 제작을 한다.
- ④ 후생연금병원에서 의사에 의해 검수를 받는다.
- ⑤ 업체는 대금을 후생연금병원에 청구하고 지급을 받는다.

[그림 3-5] 일본 후생연금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라.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일본의 경우 보장구 공적급부제도의 기본적 골격은 1950년의 「신체장애자복지법」에 따라 정해졌다.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신체장애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재활에 필요한 보호를 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도모하는데 있다.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는 공적급부시스템으로, 그 재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의해 조달되고 있는데, 지급받는 장애인의 거주지가 시의 경우에는 국1/2 + 시1/2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2/4 + 현1/4 + 지방자치단체1/4로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전년도 소득상태(납세액)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있다.

신체장애자복지법에 따른 보장구 지급은 다음과 같다.

- ① 지급가능한 보장구의 종류 및 가격은 「보장구의 종류, 수탁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후생대신이 정한다.
- ② 신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보장구의 교부 및 수리를 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한다. 청구는 시·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③ 신체장애인 갱생 상담소는 보장구의 급여에 있어 전문적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판정업무를 시행한다. 단, 여기에서 기술하는 신체장애인은 18세 이상인 자이며,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한다.

1) 시·지방자치단체의 판정·조치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의 직접 상담 창구는 시·지방자치단체이며, 신청에 의해 지급결정을 하며 장애인의 요구에 가능한 빨리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보장구의 급여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인 현 기능상태, 생활환경 등의 제 조건을 고려하고, 적절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계약한다. 신체장애자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장구가 완성된 후에는 검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 보장구의 지급은 중요한 업무이며 이에 대한 판정업무는 시·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판정의뢰하여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장이 시행한다.

2)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앞서 기술한 대로 판정의뢰가 있었던 경우, 보장구의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판정(의약품판정, 심리판정, 직능판정 등)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각 도 부현 및 지정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업체에 위탁해서 제작할 경우 보장구의 처방 및 검수에 관한 판정을 시행한다.
- 갱생상담소장이 재임의사 또는 적절한 검사 설비를 정할 때에는 관계 의학계의 의견

을 기본으로 하여 선정한 전문의의 판정을 위촉한다.

※ 이 판정에 대해서는 후생성이 실시하는 보장구 등 적합판정의사연수회를 수강한 의사가 종사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 갱생상담소장은 적합 판정은 최초의 지급 판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부적합한 경우 신청자의 과실 등을 제외하고 업체의 책임에 대해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는 「4. 보장구교부의 사무절차」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마. 전상병자특별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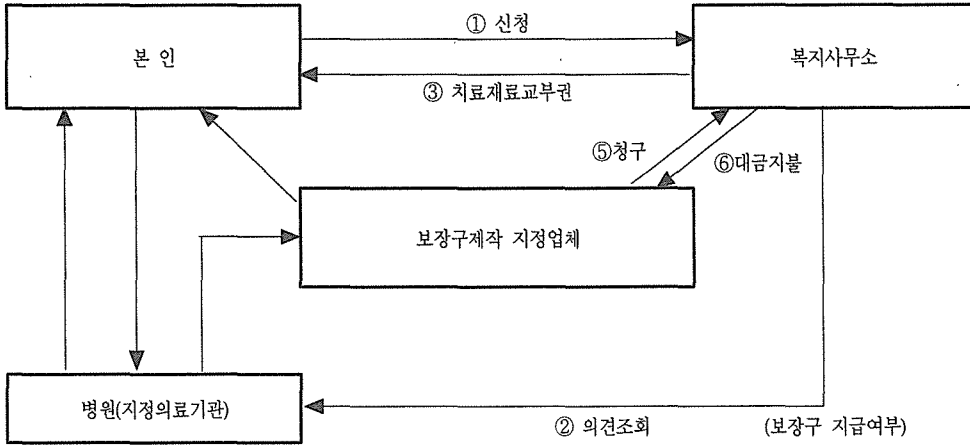
전상병자특별보호법은 전상병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정신에 기본적인 원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장구의 지급이 있다. 이 제도에 의한 보장구 지급은 전액국고부담이므로, 본인부담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보장구 지급절차는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준한다.

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의 생활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능력, 그 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활용하여도 최저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외 여러 가지의 것들이란 타법·타시책의 전부를 가리키며 타법에 의한 조치를 우선한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는 치료용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변경신청서」에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관할 복지사무소에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에 치료용 장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치료가 끝난 후의 장애에 대해서는 신체장해자복지법 등의 복지제도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림 3-6] 일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사.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의 품목으로서는 1999년 3월 31일 후생성 고시 제93호 및 제94호에 의한 대여품목으로서 휠체어, 휠체어 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부속품, 욕창 예방용구, 체위변환기, 슬로프(slope),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치매성노인 배회감지기구, 이동용 리프트가 있다. 구입비 지급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은 의자좌변기, 특수소변기,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 및 이동용 리프트의 들것 부분으로 각기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시책의 보조장비 및 일상생활용구와 개호보험의 복지용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1) 보장구

개호보험에서 대여되는 복지용구로서는 보조장비와 같은 품목(휠체어,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품목은 개호보험의 보험급부로서 지급된다. 그러나 휠체어 등 대여되는 품목은 표준적인 기제품 중에서 선택하게 되므로, 의사나 갱생상담소 등에 의해 장애인의 신체상황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준한 보조장비로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2) 일상생활용구

일상생활용구에 대해서는 장애의 상황에 따라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호보험의 보험급부 대상이 되는 품목(특수침대, 특수매트, 체위변환기, 보행지원용구, 이동용 리프트, 특수소변기, 입욕보조용구, 변기 및 간이욕조)은 개호보험으로부터 대여나 구입비를 위한 지급이 실행된다. 개호보험의 복지용구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용구급부 등의 사업으로서 계속하여 지급이 실행된다.

4. 보장구 교부(수리)의 사무절차

가. 제도의 개요

1) 목적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실된 신체기능이나 손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용구인 보장구의 교부·수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보장구의 종류·가격

보장구의 종류·가격에 대하여는 「보장구의 종류, 수탁 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 (1973년6월 16일, 후생성고시(71호)」 및 신체장애자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보장구의 종류, 수탁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 관련된 완성용 부품의 지정 등에 대한 지침(장애보건복지부장 지침)」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시각장애 : 맹인용 안전 지팡이, 의안, 안경, 점자기기
- ② 청각장애 : 보청기
- ③ 언어장애 : 인공후두
- ④ 지체부자유 : 의지, 보조기, 앉은자세유지장치, 휠체어, 전동휠체어, 보행기, 머리보호모자, 수노자, 보행보조지팡이
- ⑤ 내부장애 : 스토마용 보조기

3) 보장구의 제작·수리 위탁업체

보장구 급여에 대하여 시·정·촌 등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제작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구의 제작 등에 관한 전문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설비·기술 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나. 보장구 교부 및 수리 절차

1) 신청과 급부 결정

① 교부(수리)신청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보장구교부(수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보장구교부(수리) 신청 및 결정장부에 기재한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구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체장애자복지법에 기초하는 급부에 우선하여 관련 법에 의해 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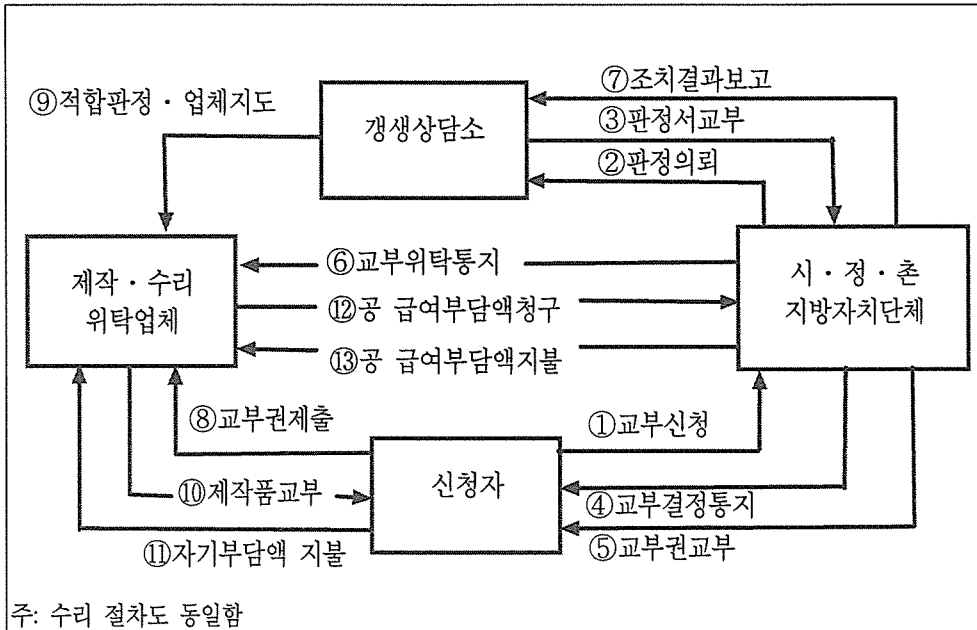
② 판정의뢰

교부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체적 상황, 경제적 상황, 세대구성원의 제반 상황 등을 조사(조사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에 보장구의 필요여부에 대한 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한다.

장애인의 교부신청이 의지, 보조기, 앉은자세유지장치, 안경(색안경, 교정안경, 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 보청기, 수동휠체어(주문제작)의 신규교부일 때에는 그 교부의 필요여부 및 처방에 대하여 갱생상담소의 판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맹인용안전지팡이, 색안경, 점자기기, 인공후두(전동식에 한함), 수노기, 스토마용보조기 및 보행보조지팡이의 교부 및 수리시에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의안,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인공후두(피리식에 한함), 수동휠체어, 머리보호모자(기성품), 및 보행보조지팡이 등 보장구 교부·수리신청서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림 3-7] 일본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장구 지급절차



③ 판정서의 교부(갱생상담소)

판정의뢰를 받은 갱생상담소는 신청자에 대해 의학적 판정을 실시하고, 판정서를 작성하여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다.

④ 급부의 결정통지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에 기초하여 특별히 의학적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보장구 교부(수리)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또한,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각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⑤ 교부(수리)권 교부

보장구교부(수리) 결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속히 보장구교부(수리)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한편 보장구교부(수리) 결정통지서는 필요에 따라 보장구교부(수리)권으로 이

를 대신할 수 있다.

⑥ 교부(수리) 위탁통지

보장구교부(수리)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보장구 제작·수리위탁업체에 보장구교부(수리) 위탁통지서를 교부한다.

⑦ 조치의 결과보고

시·정·촌등 지방자치단체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체장애인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갱생상담소에 조치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적합판정과 보장구 급여

시·정·촌등 지방자치단체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행할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장구제작시설에 위탁할 경우를 포함함)

⑧ 교부(수리)권 제출

시·정·촌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권을 송부받은 신청자는 이 교부권을 시·정·촌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업체에 제출하고, 보장구 교부 또는 수리를 받게 된다. 의지, 보조기의 취형, 치료·훈련용 임시의지보조기에 대해서는 급부판정에 준하여 전문의의 지도하에 실시한다.

⑨ 적합판정·업체지도

갱생상담소의 판정에 기초하여 제작 또는 수리받은 보장구를 지급할 때에는 급부판정에 준하여 갱생상담소의 적합판정을 받아야한다. 한편, 적합판정을 실시할 때에는 보장구 급부를 받는 자, 의사, 보장구제작기술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장구 담당직원 및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의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한다. 의지, 보조기의 적합판정은 측위 및 절단부와 소켓과의 적합상황, 사용재료, 공작법, 조작성의 정확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아울러 외관과 중량, 내구력을 고려하여 적합판정을 실시한다. 또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검토하여 신청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판정한다. 이때, 보장구가 신청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제작업체에 대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시킨 후 지급한다.

⑩ 제작품 교부

제작업체는 적합판정을 받은 후 신청자에게 제작품을 교부한다.

3) 자기 부담액, 공적급여 부담액의 지불 등

⑪ 자기부담액 지불

자기부담액이 있는 자는 업체에 직접 지불한다.

⑫ 공적급여 부담액(신체장애자복지법 제21조)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적급여 부담액을 청구한다.

⑬ 공적급여 부담액 지불(신체장애자복지법 제35조)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서 등을 확인한 후, 업체에 해당되는 공적급여 부담액을 지불한다.

4) 기타사항

가) 장차훈련과 현장관찰

- (1)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는 갱생상담소와 연락하여 수시로 장차훈련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 (2) 장차훈련 때에는 보장구 장착에 관하여 숙련된 자를 모델로 하여 전문의의 지도하에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훈련에 임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는 급부한 보장구에 대해 항상 사회복지사 등의 협력을 얻어 이용상황을 관찰하고, 장차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신속히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일괄교부

스토마용보조기는 보장구교부권으로써, 보청기용전지 및 절단부싸스는 보장구수리권으로써 다음에 의해 일괄교부할 수 있다.

(1) 스토마용보조기

- 보장구교부권은 2개월분을 1매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보장구교부권은 신청 1회당 3매까지 일괄교부할 수 있다.

(2) 보청기용전지

- 연간 필요로 하는 기준수는 표준형의 경우는 건전지24개, 고도난청용의 경우는 36개이며 수은전지는 30개이다.
- 일괄교부하는 숫자의 한도는 건전지는 12개, 수은전지는 15개까지이다.
- 보장구수리권은 건전지는 1매당 4개, 수은전지는 1매당 5개를 기재하고, 신청1회당 3매까지 일괄교부할 수 있다.

(3) 인공후두용전지

- 연간 필요로 하는 기준수는 건전지는 16개, 축전지는 2개까지이다.
- 일괄교부수의 한도는 건전지의 경우 8개까지이다.
- 보장구수리권은 건전지의 경우 1매당 4개를 기재하여 신청1회당 2매까지 일괄교부할 수 있다.

(4) 보행보조지팡이 고무

- 직업의 종류, 보행보조지팡이의 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6개월분의 한도와 최저한도의 개수를 정하여, 보장구수리권 1매를 교부할 수 있다.
- 보장구수리권은 신청1회당 2매까지 일괄교부할 수 있다.

다) 운용상 유의사항

(1) 총괄사항

- 보장구의 가격(업체에서 시·정·촌등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금액)은 「보장구의 종류, 수탁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주재료, 제작법 또는 기본구조, 부속품등에 의한 경우의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보장구의 가격을 「보장구의 종류, 수탁보수의 금액등에 관한 기준」의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열거하는 가격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액수로 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본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법인이 설치하는 보장구제작시설이 자체 제작한 보장구에만 적용된다.
- 보장구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1종목당 1개로 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장애상황을 감안하여, 직업상 특히 필요로 인정한 경우에는 2개를 교부할 수 있다.
- 보장구의 내구연한은 「보장구의 종류, 수탁보수의 금액등에 관한 기준」에 표시

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상태에서 당해 보장구가 수리불능이 되기까지의 예상 연수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교부받은 자의 직업의 종류 또는 장애상황 등에 따라서는 그 내구연한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교부 시에는 실정에 맞도록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수리기준의 종류, 형식명칭 또는 수리부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보장구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유사종목의 수리부위를 참고하거나 각각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견적 등에 의해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앉은자세유지장치

- 앉은자세유지장치의 급부대상자는 체간 및 사지 기능의 장애로 장시간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자 또는 자력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는 자로 한다.

(3) 안경

- 차광안경의 지급대상은 망막색소변성증에 의해 수명감(시력장애로 인하여 밝은 빛을 바라보지 못함)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자로 한다.
- 고배율의 약시안경 급부대상자는 직업상 또는 교육상 정말 필요한 자로 한다.

(4) 보청기

- 귀걸이형보청기의 급부대상자는 직업상 또는 교육상 정말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 귀속형보청기의 급부대상자는 박스형 및 귀걸이형 보청기 사용이 곤란하고 정말 필요한 자로 한다. 특히, 주문제작품의 교부는 장애상황, 귀형태의 상태등 기성품으로 대응불가능한 자로 한다.
- 골도형보청기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가성난청자로 이루어(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병)가 현저한 자 또는 외이폐쇄증 등을 갖는 자, 귀마개 또는 이어몰드의 사용이 곤란한 자로 한다.

(5) 인공후두

- 전동식 인공후두의 급부대상자는 직업상 또는 교육상 정말 필요한 자로 한다.

(6) 수동휠체어

- 휠체어의 교부는 갱생상담소의 처방에 특단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성품(가격의 75% 범위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 리크라이닝식휠체어의 급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경추손상자로 저혈압성발작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항상 누운 자세를 취하여 발작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자
- 류마티스성장장애 등에 의해 사지나 척추에 현저한 운동제한이 있어 앉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언제라도 누운 자세를 취하여 앉은 자세에 의한 생활동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자
- 수동리프트식보통형휠체어는 좌석의 높이가 바닥면에서 약 70cm의 안전한 범위에서 조정가능한 것으로 하고, 지급대상자는 당해 휠체어를 사용함으로써 자력 승상이 가능해 지는 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자로 한다.

(7) 전동휠체어

- 전동휠체어의 지급대상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중도의 하지기능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보행기능을 할 수 없는 자
 - 호흡기기능장애인, 심장기능장애인등으로 보행에 의한 이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자로 의학적 견지에서 적응이 가능한 자
 - 「전동휠체어급부사무소취급요령(장애보건복지부장지침)」에 기초하는 판정의 결과 당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
- 리크라이닝식전동휠체어의 지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 한다.
 - 경추손상자로 저혈압성발작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언제라도 누운 자세를 취하여 발작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자
 - 류마티스성 장애 등에 의해 사지나 척추에 현저한 운동제한이 있어 앉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언제라도 누운 자세를 취하여 앉은 자세에 의한 생활동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자
- 전동리프트식 전동휠체어의 대상자는 수동리프트식 휠체어 사용이 곤란한 자로, 당해 휠체어를 사용함으로써 자력승강 등이 가능해지는 자
- 수동 겸용 전동휠체어의 대상자는 경추손상자 등 당해 휠체어를 사용함으로써 잔존기능을 유지하거나, 비탈길, 험로,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이 휠체어는 대체식 또는 개호용이 아니다.

라) 기타 보장구의 교부

신체장애인의 장애상황, 생활환경 등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종류, 수탁, 보수의 금액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장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표에서 정한 명칭, 형식, 기본구조 등에 따르기 어려운 보장구를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에 기초하여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시할 경우의 사무처리요령

(1)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설치한 보장구제작시설에서 제작 또는 수리할 경우

㉓ 갱생상담소가 정한 처방 또는 적합판정 등

갱생상담소가 정한 급부의 판정, 적합판정, 장착훈련 등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에 준하여 실시한다.

㉔ 급부의 결정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급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장구 교부(수리)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기각결정통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구를 직접 구매하여 교부하는 경우

㉕ 구입해서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갱생상담소의 판장 또는 의사의 의견서가 필요하다.

㉖ 교부의 결정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일시를 지정하여, 그 취지를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에도 신속하게 기각결정통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비용 징수 관계

보장구의 교부, 수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해당 행정조치에 필요한 소요된 비용을 시·정·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체장애자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부담능력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보장구를 교부받은 자의 부담액 인정에 대해서는 「갱생의료의 급부 또는 보장구의 교부 혹은 수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인정방법 실시 요령」에 의해 시행한다.

제 4 장 장애인 보장구 수요분석

제 1 절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현황

1.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현황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전체 재가장애인¹²⁾ 중 39.6%의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청각장애인의 보장구 소지율이 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의 순으로 보장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이나 심장장애 등의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해 보장구를 소지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소지여부

(단위: %, 명)

보장구 유무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전체
있다	38.4	49.4	60.0	63.0	13.1	3.9	3.4	2.6	7.2	7.8	39.6
없다	61.6	50.6	40.0	37.0	86.9	96.1	96.6	97.4	92.8	92.2	6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799)	(622)	(512)	(453)	(86)	(78)	(30)	(156)	(67)	(122)	(4,125)
전국추경수	597,851	220,965	180,403	146,431	26,633	93,529	13,274	50,068	25,149	43,873	1,398,17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장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보장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먼저 지체장애인용 보장구의 경우에는 지팡이가 53.9%로서 가장 많이 소지

12) 재가장애인이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가장애인은 총 1,398,177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9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목발(21.1%), 수동휠체어(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보조기는 13.7%, 의지는 8.0%의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전동휠체어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각장애이용 보장구의 경우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이고 있는 보장구는 안경·콘택트렌즈로서 59.2%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흰지팡이 22.6%, 의안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각장애이용 보장구에 있어서는 보청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언어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인 인공후두는 극히 미미한 소지율을 나타냈다.

〈표 4-2〉 재가장애인의 소지 보장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소지 보장구	비율	구분	소지 보장구	비율
지체장애용	상지의지	3.9	시각장애용	안경(콘택트렌즈)	59.2
	하지의지	4.1		저시력보조기	1.8
	척추보조기	5.0		흰지팡이	22.6
	상지보조기	1.3		의안	7.7
	하지보조기	7.4		기타	3.1
	정형외과용 구두	2.2			(128,537)
	지팡이	53.9	청각장애용	보청기	88.6
	목발	21.1		기타	0.5
	보행기	2.6			(118,758)
	전동휠체어	1.1	언어장애용	인공후두	1.6
	수동휠체어	15.8			(41,763)
	기타	3.5			
		(358,188)			

주: 복수응답 비율이며, ()는 전국추정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현재 보장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교적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56.4%,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는 14.5%로 전체적으로 71% 정도의 장애인이 보장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장구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사용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재가장애인의 현재 보장구 사용정도

(단위: %, 명)

사용정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전체
매우 자주 사용	50.8	48.2	69.5	68.8	37.9	23.6	-	37.3	40.7	18.3	56.4
자주 사용하는 편	15.5	19.4	17.4	2.7	6.1	17.1	-	38.2	22.9	13.5	14.5
자주 사용안함	14.6	15.4	5.8	6.8	26.2	17.9	100.0	24.5	36.4	41.0	12.1
거의 사용않음	19.2	17.1	7.3	21.7	29.8	41.5	-	-	-	27.2	1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13)	(314)	(292)	(269)	(11)	(8)	(1)	(3)	(5)	(10)	(1,626)
전국추정수	229,117	109,109	108,264	92,297	3,487	3,634	449	1,072	1,810	3,405	552,6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2. 재가 장애인의 필요 보장구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보장구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나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11%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인이 18.0%로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으며, 청각장애인(15.5%)과 지체장애인(12.5%)도 비교적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재가장애인의 필요 보장구 유무

(단위: %, 명)

필요 보장구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전체
있다	12.5	18.0	7.2	15.5	5.1	1.2	3.4	0.5	1.7	4.2	11.1
없다	87.5	82.0	92.8	84.5	94.9	98.8	96.6	99.5	98.3	95.8	8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799)	(622)	(512)	(453)	(86)	(278)	(30)	(156)	(67)	(122)	(4,125)
전국추정수	597,852	220,965	180,402	146,432	26,634	93,528	13,274	50,068	25,149	43,873	1,398,1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또한 향후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장애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지체장애인용 보장구의 경우 전동휠체어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지팡이(18.2%), 수동휠체어(17.7%)도 비교적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경우에는 안경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의안(17.8%)도 비교적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용에 있어서는 보청기에 대한 수

요가 78%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장애인용 보장구의 경우에는 인공후두가 7.3%로 나타났다.

〈표 4-5〉 재가장애인의 필요 보장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필요 보장구	비율	구분	필요 보장구	비율
지체장애용	상지의지	4.8	시각장애용	안경(콘택트렌즈)	21.3
	하지의지	1.2		저시력보조기	5.2
	척추보조기	5.4		원지팡이	6.9
	상지보조기	1.3		의안	17.8
	하지보조기	7.6		기타	16.1
	정형외과용 구두	4.3			(22,344)
	지팡이	18.2	청각장애용	보청기	78.0
	목발	4.1		기타	1.4
	보행기	6.3			(32,556)
	전동휠체어	30.7	언어장애용	인공후두	7.3
	수동휠체어	17.7			(20,689)
	기타	6.1			
		(118,710)			

주: 복수응답 비율이며, ()는 전국추정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필요한 보장구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보장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입비용 때문에’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 가장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사용이 불편하여’ 9.8%, ‘나에게 적합한 보장구를 선택하지 못해서’ 8.6%, ‘미관상 흠해서’ 8.1%, ‘구입처를 몰라서’ 7.5% 등의 순으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결국 장애인이 보장구를 필요로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고가의 보장구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4-6〉 필요 보장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입하지 않은 이유	응답률	(N)	전국추정수
구입비용 때문에	72.1	330	111,994
구입처를 몰라서	7.5	34	11,661
사용불편	9.8	45	15,189
미관상 흠해서	8.1	37	12,564
효과가 없어서	6.0	27	9,312
구입시간이 없어서	2.0	9	3,045
적합한 보장구가 없어서	8.6	40	13,428
기타	4.5	21	6,998

주: 중복응답 비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제 2 절 보장구 수요 전망 조사 결과¹³⁾

1. 전문의의 수요 전망

가.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대한 수요전망

건강보험 급여 품목은 크게 의지, 보조기, 그리고 기타 보장구로 구분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전문의의 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팔의지의 경우 현재보다 앞으로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0%로서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21.7% 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리의지의 경우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의의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의지는 보조기나 기타 보장구와는 달리 향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조기의 경우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팔보조기의 경우 현재보다 수요

13) 본 절에서는 장애인 보장구의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 보장구업체 운영자,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장구 수요 전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표는 전문의 3,400명, 보장구 업체 운영자 374명, 장애인단체 관계자 17명 등 총 3,791명에게 발송되었으나, 근무지 이전·주소변경·폐업·비해당 등으로 반송된 조사표를 제외하고 전문의 342부, 보장구업체 운영자 82부, 장애인단체 8부 등 총 432부가 회수되었다.

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9%인데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특히 다리보조기의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2%에 이른 반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2.2%에 불과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관절염 등의 유병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의들은 기타 보장구 중 향후에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휠체어를 꼽았다. 향후 휠체어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인 반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지팡이로서 58.9%의 전문의가 이 같이 응답하였으며, 목발의 수요 증가를 예상한 비율 역시 44.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향후에는 휠체어, 지팡이, 목발과 같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보장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청기의 수요증가를 전망한 전문가의 비율은 51.0%로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비율 2.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성 난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기타 보장구 중에서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꼽은 수요 증가 품목은 돋보기로서 전체의 40.3%가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저시력 보조안경(38.1%), 콘택트렌즈(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망원경의 경우에는 전체 전문의의 18.9%만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수요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용 인공후두는 전체의 24.8%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4-7〉 전문의의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단위: %, 명)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계	(N)
			증가	유지	감소	모름		
건강 보험 급여 품목	의지	팔 의지	28.0	34.2	21.7	16.1	100.0	161
		다리 의지	40.7	29.1	15.1	15.1	100.0	172
	보조기	팔 보조기	47.9	39.6	4.1	8.2	100.0	169
		척추 보조기	55.5	35.4	1.9	7.2	100.0	209
		골반 보조기	36.7	35.3	8.7	19.3	100.0	150
		다리 보조기	58.2	34.1	2.2	5.5	100.0	182
	기타 보장구	지팡이	58.9	27.4	3.4	10.3	100.0	175
		목발	44.4	38.3	5.0	12.2	100.0	180
		휠체어	64.1	25.8	1.0	9.1	100.0	198
		저시력보조안경	38.1	26.9	4.5	30.6	100.0	134
		콘택트렌즈	37.5	27.9	4.4	30.1	100.0	136
		돋보기	40.3	26.6	4.3	28.8	100.0	139
		망원경	18.9	30.7	7.9	42.5	100.0	127
		의안	22.9	32.9	10.0	34.3	100.0	140
		원지팡이	21.6	31.0	8.6	38.8	100.0	116
		보청기	51.0	19.3	2.0	27.6	100.0	145
		체외용 인공후두	24.8	27.5	5.5	42.2	100.0	109

나.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에 대한 수요전망

현행 건강보험 급여품목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수요가 높고 또한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들의 향후 수요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이러한 품목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전동휠체어로서 전문의의 75.8%가 그렇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욕창방지용품으로서 전문의의 72.4%가 지적하였으며, 그밖에 보행기, 대소변 처리용구, 세면·목욕용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비율도 각각 72.3%, 72.0%, 70.2%로 나타났다.

한편, 신장장애인이 사용하는 복막투석장치는 37.1%, 그리고 호흡기 장애인이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는 50.5%의 전문의가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8〉 전문의의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단위: %, 명)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계	(N)
			증가	유지	감소	모름		
건강 보험 비급여 품목	기타 보장구	전동휠체어	75.8	12.5	0.8	10.8	100.0	120
		스쿠터	60.0	16.4	1.8	21.8	100.0	110
		보행기	72.3	16.0	2.5	9.2	100.0	119
		욕창방지용구	72.4	14.6	3.3	9.8	100.0	123
		세면, 목욕용품	70.2	15.8	1.8	12.3	100.0	114
		대소변처리용구	72.0	16.0	1.6	10.4	100.0	125
		정형외과용 구두	59.0	22.2	7.7	11.1	100.0	117
		개인용 온열기	63.9	20.4	2.8	13.0	100.0	108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67.0	20.2	2.8	10.1	100.0	109
		안경	47.1	23.5	2.9	26.5	100.0	102
		팽인용 전자보행기	36.3	25.3	1.1	37.4	100.0	91
		저시력보조기	45.7	15.2	3.3	35.9	100.0	92
		인공후두	34.4	28.0	2.2	35.5	100.0	93
		음성증폭기	42.2	20.0	2.2	35.6	100.0	90
		복막투석장치	37.1	22.5	5.6	34.8	100.0	89
		인공호흡기	50.5	22.6	2.2	24.7	100.0	93
		체온계	38.7	31.2	4.3	25.8	100.0	93
		체온조절장치	34.1	27.5	2.2	36.3	100.0	91
		혈압계	52.3	25.3	3.2	18.9	100.0	95

2. 보장구업체의 수요전망

가.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대한 수요전망

보장구 업체의 경우 전문의와는 달리 의지·보조기의 향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팔의지의 경우 현재의 수요보다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2%로서 현재의 수요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 14.9%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리의지도 마찬가지로 향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조기에 있어서는 척추보조기를 제외한 다른 보조기의 수요는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팔보조기의 경우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17.5%인데 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보는 비율은

36.5%이며, 다리보조기의 경우 수요증가를 전망한 경우가 20.6%인데 비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은 34.9%나 되었다. 특히 골반보조기의 경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9.0%에 불과하고, 수요감소를 전망하는 비율이 38.8%나 되고 있어서 수요감소를 전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척추보조기의 경우에는 수요 증가가 30.8%인 반면, 감소가 20.0%로서 수요증가전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척추측만증 교정을 위한 보조기 수요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의지·보조기에 대한 향후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보장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또는 현재 업체가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한 데서 비롯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보장구의 경우 향후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보청기이다. 보청기의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본 업체의 비율이 48.1%에 이른 반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9.3%에 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수요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지팡이로서 34.4%의 업체가 이를 꼽았으며, 이어서 휠체어의 수요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한 업체의 비율도 30.8%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요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돋보기로서 34.0%의 업체가 지적하고 있으며, 이어서 콘택트렌즈로서 32.7%, 저시력 보조안경 3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망원경의 경우에는 보장구업체의 10.0%만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0%로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외용 인공후두의 경우에는 전체 업체의 21.3%만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9〉 보장구 업체의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단위: %, 명)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계	(N)
			증가	유지	감소	모름		
건강 보험 급여 품목	의지	팔 의지	14.9	29.9	52.2	3.0	100.0	67
		다리 의지	19.4	31.3	47.8	1.5	100.0	67
	보조기	팔 보조기	17.5	42.9	36.5	3.2	100.0	63
		척추 보조기	30.8	47.7	20.0	1.5	100.0	65
		골반 보조기	9.0	44.8	38.8	7.5	100.0	67
		다리 보조기	20.6	39.7	34.9	4.8	100.0	63
	기타 보장구	지팡이	34.4	39.1	20.3	6.3	100.0	64
		목발	19.0	44.4	30.2	6.3	100.0	63
		휠체어	30.8	43.1	18.5	7.7	100.0	65
		저시력보조안경	32.1	26.4	15.1	26.4	100.0	53
		콘택트렌즈	32.7	30.8	9.6	26.9	100.0	52
		돌보기	34.0	26.0	12.0	28.0	100.0	50
		망원경	10.0	24.0	28.0	38.0	100.0	50
		의안	13.2	22.6	30.2	34.0	100.0	53
		현지팡이	11.5	26.9	34.6	26.9	100.0	52
		보청기	48.1	27.8	9.3	14.8	100.0	54
		체외용 인공후두	21.3	31.9	17.0	29.8	100.0	47

나. 보장구 업체의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에 대한 수요 전망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 중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전동휠체어로써 전체 업체의 61.9%가 전동휠체의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품목은 혈압계로서 58.0%의 업체가 지적하였으며, 이어서 스쿠터 48.3%, 욕창방지용품 40.4%, 세면·목욕용품 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장장애인이 사용하는 복막투석장치와 호흡기 장애인이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24.0%, 23.5%로 나타났다.

〈표 4-10〉 보장구업체의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단위: %, 명)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계	(N)
			증가	유지	감소	모름		
건강 보험 비급여 품목	기타 보장구	전동휠체어	61.9	22.2	11.1	4.8	100.0	63
		스쿠터	48.3	30.0	13.3	8.3	100.0	60
		보행기	29.5	49.2	13.1	8.2	100.0	61
		욕창방지용구	40.4	38.6	12.3	8.8	100.0	57
		세면, 목욕용품	40.0	30.9	12.7	16.4	100.0	55
		대소변처리용구	37.0	35.2	16.7	11.1	100.0	54
		정형외과용 구두	19.3	40.4	24.6	15.8	100.0	57
		개인용 온열기	22.6	47.2	11.3	18.9	100.0	53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28.3	39.6	15.1	17.0	100.0	53
		안경	35.4	27.1	16.7	20.8	100.0	48
		맹인용 전자보행기	18.4	28.6	18.4	34.7	100.0	49
		저시력보조기	20.4	38.8	10.2	30.6	100.0	49
		인공후두	14.0	36.0	16.0	34.0	100.0	50
		음성증폭기	24.0	32.0	12.0	32.0	100.0	50
		복막투석장치	24.0	26.0	16.0	34.0	100.0	50
		인공호흡기	23.5	23.5	17.6	35.3	100.0	51
		체온계	28.8	32.7	9.6	28.8	100.0	52
		체온조절장치	25.5	37.3	5.9	31.4	100.0	51
		혈압계	58.0	22.0	4.0	16.0	100.0	50

3. 장애인 단체의 수요전망

가. 장애인 단체의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대한 수요 전망

전반적으로 장애인단체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팔의지와 다리의지의 경우 현재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전체의 75.0%, 현재의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5.0%로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수요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의 경우에도 역시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단체의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팔보조기와 척추보조기는 단체의 75.0%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골반보조기와 다리보조기는 62.5%의 단체가 수요 증가를 예상하였다.

기타 보장구의 경우 향후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지팡이, 휠

체어, 보청기로서 75.0%의 단체가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은 저시력보조안경과 돋보기로서 62.5%의 단체가 지적하였다. 한편, 망원경과 의안은 전체의 25.0%만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수요증가 전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장애인 단체의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단위: %, 명)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계	(N)
			증가	유지	감소	모름		
건강 보험 급여 품목	의지	팔 의지	75.0	25.0	0.0	0.0	100.0	8
		다리 의지	75.0	25.0	0.0	0.0	100.0	8
	보조기	팔 보조기	75.0	25.0	0.0	0.0	100.0	8
		척추 보조기	75.0	25.0	0.0	0.0	100.0	8
		골반 보조기	62.5	37.5	0.0	0.0	100.0	8
		다리 보조기	62.5	25.0	12.5	0.0	100.0	8
	기타 보장구	지팡이	75.0	12.5	12.5	0.0	100.0	8
		목발	37.5	37.5	25.0	0.0	100.0	8
		휠체어	75.0	25.0	0.0	0.0	100.0	8
		저시력보조안경	62.5	37.5	0.0	0.0	100.0	8
		콘택트렌즈	50.0	50.0	0.0	0.0	100.0	8
		돋보기	62.5	25.0	12.5	0.0	100.0	8
		망원경	25.0	50.0	12.5	12.5	100.0	8
		의안	25.0	50.0	25.0	0.0	100.0	8
		흰지팡이	50.0	37.5	12.5	0.0	100.0	8
		보청기	75.0	12.5	12.5	0.0	100.0	8
		체외용 인공후두	50.0	50.0	0.0	0.0	100.0	8

나. 장애인 단체의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에 대한 수요전망

장애인단체가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 중 향후에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 품목은 전동휠체어로서 응답한 모든 장애인단체가 이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수요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스쿠터로서 전체 단체의 87.5%가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정형외과용 구두, 혈압계, 체온조절장치, 체온계, 복막 투석장치, 욕창방지용구, 세면·목욕용품, 대소변 처리용구 등으로서 모두 50% 이상의 단체가 응답하였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요 증가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보행기와 음성증폭기로서 37.5%의 단체만이 응답하였다.

〈표 4-12〉 장애인 단체의 건강보험 비급여품목에 대한 향후 수요 전망

(단위: %, 명)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계	(N)
			증가	유지	감소	모름		
건강 보험 비급여 품목	기타 보장구	전동휠체어	100.0	0.0	0.0	0.0	100.0	8
		스쿠터	87.5	12.5	0.0	0.0	100.0	8
		보행기	37.5	50.0	0.0	0.0	100.0	8
		욕창방지용구	50.0	50.0	0.0	0.0	100.0	8
		세면, 목욕용품	50.0	37.5	12.5	0.0	100.0	8
		대소변처리용구	50.0	50.0	0.0	0.0	100.0	8
		정형외과용 구두	62.5	12.5	25.0	0.0	100.0	8
		개인용 온열기	42.9	42.9	14.3	0.0	100.0	7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71.4	14.3	14.3	0.0	100.0	7
		안경	75.0	25.0	0.0	0.0	100.0	8
		맹인용 전자보행기	50.0	37.5	12.5	0.0	100.0	8
		저시력보조기	50.0	50.0	0.0	0.0	100.0	8
		인공후두	50.0	50.0	0.0	0.0	100.0	8
		음성증폭기	37.5	62.5	0.0	0.0	100.0	8
		복막투석장치	62.5	25.0	12.5	0.0	100.0	8
		인공호흡기	50.0	50.0	0.0	0.0	100.0	8
		체온계	62.5	37.5	0.0	0.0	100.0	8
		체온조절장치	62.5	25.0	12.5	0.0	100.0	8
		혈압계	62.5	37.5	0.0	0.0	100.0	8

4. 조사 결과의 시사점

전문의,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 보장구와 관련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앞서의 보장구 수요 전망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전문의와 장애인 단체는 조사에 포함된 대부분의 품목이 향후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보장구업체는 현재의 수요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수요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품목이 많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보장구 업체가 처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즉, 의지·보조기 제작업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장구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첨단 제품의 보장구에 대한 장애인의 선호 및 잠재 수요를 국내 보장구 업체들이 흡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품목별 수요 전망 결과와 관련해서,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동휠체어가 향후에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지적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의의 75.8%, 보장구업체의 61.9%,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100.0%가 향후에 전동휠체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이어 전동휠체어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로서, 향후 건강보험 급여 품목 확대 시 전동휠체어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구, 복막투석기, 대소변 처리 용구 등의 비급여 품목도 향후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들 품목 또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3 절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분석

본 절에서는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재가 장애인의 보장구 수요를 추정해 보았다. 2000년 현재 보장구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553천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의 39.6%에 이르고 있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체장애인용 보장구의 경우 지팡이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이 193.2천명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목발로서 75.6천명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동휠체어는 56.7천명이, 하지보조기는 26.5천명, 척추보조기는 17.8천명, 하지의지는 14.6천명, 상지의지는 14천명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동휠체어는 불과 3.8천명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가 76.1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보청기가 105.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장애인용인 사용하는 인공후두는 687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들 보장구 소지자 외에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55.3천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는 전동휠체어로서 36.5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청기, 지팡이, 수동휠체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장구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보장구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합하면 약 708.4천명으로서 결국 이들이 보장구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가 가장 높은 보장구는 지팡이로서 214.8천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청기, 안경·콘택트렌즈, 목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의 순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동휠체어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3.8천명에 불과하나, 향후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6.5천명이나 되어 현재 보유품목을 제외한 향후 필요 품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다.

이러한 품목별 보장구 수요를 현행 건강보험 내구연한으로 나누어 연간 보장구 수요량을 추정한 결과, 결과 상지의지는 연간 약 3.9천건, 하지의지는 약 3.2천개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척추보조기는 8.1천개, 상지보조기는 2.1천개, 하지보조기 11.8천개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수동휠체어는 연간 15.5천개, 안경·콘택트렌즈는 26.9천개, 휠지팡이는 30.6천개, 그리고 보청기는 26.1천개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인 정형외과용 구두와 전동휠체어의 경우 각각 산재보험의 해당 내구연한인 2년과 6년을 적용할 경우 연간 수요량은 정형외과용 구두가 6.4천개, 전동휠체어는 8.1천개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3〉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수요(2000년)

(단위: 개, %)

보장구 종류	보유	필요	보유+필요	내구연한	연간수요
상지의지	14,034	5,659	19,693	4년	3,939
하지의지	14,636	1,418	16,054	4년	3,211
척추보조기	17,781	6,460	24,241	3년	8,080
상지보조기	4,740	1,563	6,303	3년	2,101
하지보조기	26,525	9,003	35,528	3년	11,843
정형화	7,756	5,094	12,850	2년	6,425
지팡이	193,170	21,589	214,759	2년	42,952
목발	75,577	4,891	80,468	2년	16,094
보행기	9,478	7,448	16,926	4년	4,232
전동휠체어	3,825	36,453	40,278	6년	8,056
수동휠체어	56,704	21,005	77,709	5년	15,542
안경(콘택트렌즈)	76,091	4,754	80,845	3년	26,948
저시력보조기	2,290	1,159	3,449	5년	690
휠지팡이	29,062	1,536	30,598	1년	30,598
의안	9,923	3,988	13,911	5년	2,782
보청기	105,167	25,399	130,566	5년	26,113
인공 후두	687	1,520	2,207	5년	441
계	553,087	155,321	708,408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장구 수요가 지난 5년간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추정하기 위하여 199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와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31.7%의 수요 증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요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보장구는 의안과 흰지팡이로서 각각 263.1%, 234.3% 증가하였으며, 다음이 정형외과용 구두로서 134.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보조기 역시 99.4%의 높은 수요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하지의지의 경우 1995년도 수요는 24.4천개였으나, 2000년도에는 16.1천개로 오히려 34.2% 감소하였다.

〈표 4-14〉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수요 비교(1995년, 2000년)

(단위: 개, %)

보장구 종류	1995			2000			증감률(%)
	보유	필요	보유+필요	보유	필요	보유+필요	
상지의지	13,688	4,142	17,830	14,034	5,659	19,693	10.4
하지의지	20,874	3,530	24,404	14,636	1,418	16,054	-34.2
척추보조기	-	-	-	17,781	6,460	24,241	-
상지보조기	-	-	-	4,740	1,563	6,303	-
하지보조기	-	-	-	26,525	9,003	35,528	-
보조기 소계	25,584	7,555	33,139	49,046	17,026	66,072	99.4
정형화	3,780	1,706	5,486	7,756	5,094	12,850	134.2
지팡이	186,821	28,335	215,156	193,170	21,589	214,759	-0.2
목발	71,233	8,953	80,186	75,577	4,891	80,468	0.4
보행기	4,511	2,500	7,011	9,478	7,448	16,926	141.4
전동휠체어	-	-	-	3,825	36,453	40,278	-
수동휠체어	33,141	20,330	53,471	56,704	21,005	77,709	45.3
안경(콘택트렌즈)	47,383	6,051	53,434	76,091	4,754	80,845	51.3
저시력보조기	-	-	-	2,290	1,159	3,449	-
흰지팡이	7,279	1,874	9,153	29,062	1,536	30,598	234.3
의안	3,219	612	3,831	9,923	3,988	13,911	263.1
보청기	82,511	34,715	117,226	105,167	25,399	130,566	11.4
인공 후두	672	331	1,003	687	1,520	2,207	120.0
계	424,416	113,374	537,790	553,087	155,321	708,408	3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편 2001년과 2002년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급 실적을 살펴 본 결과, 2001년에는 총 22천명, 2002년도에는 이보다 10.8% 증가한 24.4천명의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출된 품목은 보청기였으며, 수동휠체어, 하지보조기, 하지의지 등의 품

목도 급여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 실적이 실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1년과 2002년의 품목별 건강보험 급여 실적을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추정한 품목별 연간 수요량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하지의지와 저시력보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의 수요 충족률이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충족률이 가장 높은 보장구는 하지의지로서 2001년은 81.5%, 그리고 2002년도에는 68.4%의 충족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충족률이 높은 품목은 저시력보조기로서 2001년 58.0%, 2002년 62.9%의 충족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급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인 보청기의 경우에는 2001년에는 8,058건, 그리고 2002년에는 9,551건이 지급되어, 수요 충족률은 각각 30.9%, 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지급 건수가 많았던 수동휠체어의 경우 2001년에 4,139건, 2002년에 4,711건이 지급되어 각각 26.6%, 30.3% 충족률을 보였다.

〈표 4-15〉 재가장애인의 보장구 수요(2000년) 및 건강보험 지급 실적 비교

(단위: 건, %)

보장구 종류	연간수요	2001년		2002년	
		지급건수	수요대비비율	지급건수	수요대비비율
상지의지	3,939	1,106	28.1	1,127	28.6
하지의지	3,211	2,617	81.5	2,195	68.4
척추보조기	8,080	363	4.5	391	4.8
상지보조기	2,101	188	8.9	196	9.3
하지보조기	11,843	3,073	25.9	3,457	29.2
정형화	6,425	-	-	-	-
지팡이	42,952	383	0.9	323	0.8
목발	16,094	75	0.5	86	0.5
보행기	4,232	-	-	-	-
전동휠체어	8,056	-	-	-	-
수동휠체어	15,542	4,139	26.6	4,711	30.3
안경(콘택트렌즈)	26,948	49	0.2	61	0.2
저시력보조기	690	400	58.0	434	62.9
흰지팡이	30,598	244	0.8	340	1.1
의안	2,782	1,153	41.4	1,350	48.5
보청기	26,113	8,058	30.9	9,551	36.6
인공 후두	441	154	34.9	153	34.7
계	210,047	22,002	10.2	24,375	1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3.

제 5 장 보장구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산정

제 1 절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¹⁴⁾

1. 현행 건강보험 급여품목 기준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의 기준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먼저 팔의지부터 살펴보면, 전문의와 보장구업체 그리고 장애인단체 모두 현 기준금액이 낮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기준금액의 적정성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의 경우 현 기준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균 점수는 1.69로서 적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2점에 가장 근접하고 있으며, 전문의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1.62점으로서 장애인단체보다 약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장구업체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1.16에 불과하여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현재의 건강보험 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인식이 보장구업체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본 절에서는 전문의, 보장구업체 운영자, 그리고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품목별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문항은 조사 대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문의와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의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 시 현 급여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적정 내구연한 수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보장구업체의 경우에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의 조사항목 외에 현 급여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적정 기준금액까지 조사하였다. 조사표는 앞서 주요 전망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의 3,400명, 보장구업체 운영자 374명, 장애인단체 관계자 17명 등 총 3,791명에게 발송되었으며, 근무지 이전·주소변경·폐업·비해당 등으로 반송된 조사표를 제외하고 전문의 342부, 보장구업체 82부, 장애인단체 8부 등 총 432부가 회수되었다.

15) 현 기준금액의 적정성은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품목별로 ‘시가에 비해 기준금액이 낮다’(1점), ‘적정하다’(2점), ‘시가에 비해 기준금액이 높다’(3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평균점수가 2점에 가까우면 현 기준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평균점수가 1점에 가까우면 현 기준금액이 낮은 것으로, 평균점수가 3점에 가까우면 현 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 팔의지 현 기준금액 적정성

(단위: 점수)

유형	구분	전문의	업체	단체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1.61	1.17	1.83
	기능형	1.62	1.21	1.67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1.66	1.18	1.67
	기능형	1.60	1.20	1.67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1.62	1.16	1.67
	기능형	1.60	1.15	1.83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1.57	1.12	1.67
	기능형	1.60	1.14	1.83
팔꿈치관절의지	미관형	1.61	1.13	1.67
	기능형	1.65	1.13	1.83
아주짧은아래팔의지	미관형	1.67	1.20	1.67
	기능형	1.60	1.14	1.67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	1.62	1.19	1.67
	기능형	1.57	1.14	1.67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형	1.63	1.19	1.67
	기능형	1.60	1.15	1.67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1.66	1.16	1.67
	기능형	1.60	1.12	1.67
손 의지	미관형	1.62	1.14	1.67
	기능형	1.61	1.24	1.67
손가락 의지	미관형	1.60	1.12	1.50
전체	-	1.62	1.16	1.69

다리의지의 경우 역시 팔의지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팔의지의 적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전문의 1.62점, 보장구업체 1.15점, 그리고 장애인단체 1.64점으로 나타나 세 집단 모두 다리의지의 현행 건강보험 기준 금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보장구업체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다리의지 현 기준금액 적정성

(단위: 점수)

유 형	구분	전문의	업체	단체
한쪽편 골반 의지		1.62	1.09	1.83
엉덩이관절 의지		1.60	1.09	1.83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61	1.13	1.83
	실리콘형	1.59	1.13	1.83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1.63	1.16	1.83
	실리콘형	1.65	1.12	1.83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1.61	1.15	1.67
	실리콘형	1.62	1.15	1.67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일반형	1.62	1.23	1.50
	실리콘형	1.63	1.16	1.67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1.65	1.09	1.50
	실리콘형	1.61	1.12	1.50
종아리 의지	일반형	1.64	1.09	1.50
	실리콘형	1.62	1.14	1.50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1.65	1.15	1.67
	실리콘형	1.67	1.14	1.83
의족	일반형	1.56	1.18	1.50
	실리콘형	1.60	1.20	1.83
전체	-	1.62	1.15	1.64

팔보조기의 경우에도 전문의, 보장구업체 및 장애인단체의 평균점수가 각각 1.58, 1.14, 1.47로 모두 2점보다 낮아 시가에 비해 기준금액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보장구업체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보조기의 경우 역시 의사, 업체 그리고 단체의 경우 모두 현행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이 적정가격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팔의지나 다리의지에 비해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점수의 분포를 보면, 의사의 경우 1.74점, 업체는 1.60점, 그리고 단체 1.60점으로서 업체와 단체의 점수는 같았으며, 의사와의 차이도 팔의지나 다리의지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토마스 소프트칼라 목뼈 보조기의 경우 의사는 1.96점, 업체는 2.05점으로서 다른 품목에 비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골반보조기도 마찬가지로 세 집단의 평균점수가 전문의 1.57점, 보장구업체 1.36점, 그리고 장애인단체 1.67점으로서 현행 건강보험 기준 금액이 시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특히 보장구업체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보조기도 역시 앞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5-3〉 보조기 현 기준금액 적정성

(단위: 점수)

	유 형	전문의	업체	단체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1.67	1.11	1.33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1.60	1.13	1.50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1.57	1.11	1.50
	짧은 팔 보조기	1.49	1.12	1.50
	손가락관절 보조기	1.55	1.22	1.50
	소계	1.58	1.14	1.47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1.77	1.67	1.50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1.96	2.05	1.50
	목뼈 보조기	1.77	1.76	1.67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1.55	1.17	1.50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1.60	1.35	1.67
	등·허리·엉치뼈보조기- 재킷	1.75	1.42	1.83
	콜셋	1.75	1.78	1.50
	소계	1.60	1.21	1.47
골반보조기	골반 보조기	1.57	1.36	1.67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부착	1.63	1.20	1.83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미부착	1.64	1.21	1.8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1.64	1.17	1.67
	무릎관절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부착	1.58	1.18	1.50
	무릎 관절 보조기- 레눅스힐	1.62	1.19	1.50
	무릎 관절 보조기- 십자인대 손상	1.51	1.29	1.50
	짧은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1.65	1.43	1.8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1.43	1.17	1.50
	발목관절 보조기- 고정	1.71	1.42	1.83
	발목관절 보조기- 크렌자크식	1.61	1.14	1.67
	발목관절 보조기- 90 ° 고정	1.43	1.18	1.67
	소계	1.65	1.35	1.51

기타 보장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집단 모두 현행 건강보험 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팔의지나 다리의지에 비해서는 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돌보기의 경우 전문의는 1.96점, 보장구업체는 2.00점으로 나타나

현 기준금액이 거의 시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지팡이나 저시력 보조안경 등도 시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휠체어의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현 기준 금액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청기의 경우에는 업체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기타 보장구 현 기준금액 적정성

(단위: 점수)

유형	전문의	업체	단체
지팡이	1.82	1.88	1.43
목발	1.70	1.57	1.29
휠체어	1.66	1.72	1.29
저시력보조안경	1.77	1.89	1.50
콘택트렌즈	1.79	1.76	1.67
돋보기	1.96	2.00	1.83
망원경	1.75	1.76	1.83
의안	1.71	1.55	1.67
흰지팡이	1.72	1.31	1.50
보청기	1.58	1.23	1.43
체외용 인공후두	1.71	1.56	1.67

2. 현행 건강보험 급여품목 내구연한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의 내구연한이 적정한 지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⁶⁾ 먼저 팔의지부터 살펴보면, 팔의지의 현 내구연한 적정성에 대한 평균점수가 보장구업체 2.60점, 장애인단체 2.39점, 그리고 전문의 2.11점으로 나타나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 전문의 모두 내구연한을 줄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나, 특히 보장구업체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어깨가슴의지 미관형의 경우 세 전문가 집단 모두가 현 내구연한 5년이 짧아 내구연한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

16) 현 내구연한의 적정성은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품목별로 ‘현 내구연한이 짧다’(1점), ‘적정하다’(2점), ‘현 내구연한이 길다’(3점)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평균점수가 2점에 가까우면 현 내구연한이 적정한 것으로, 1점에 가까우면 현 내구연한이 짧은 것으로, 그리고 3점에 가까우면 현 내구연한이 긴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 있어서 다른 품목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현행 내구연한이 길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향후 단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 5-5〉 팔의지 현 내구연한 적정성

(단위: 점수)

유 형	구분	내구연한	전문의	업체	단체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5년	1.88	1.59	1.83
	기능형	5년	2.09	2.42	2.17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5년	2.10	2.52	2.17
	기능형	5년	2.12	2.44	2.17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5년	2.10	2.57	2.50
	기능형	5년	2.16	2.48	2.67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5년	2.13	2.62	2.40
	기능형	5년	2.12	2.51	2.67
팔꿈치관절의지	미관형	5년	2.11	2.59	2.50
	기능형	5년	2.11	2.47	2.67
아주짧은아래팔의지	미관형	5년	2.10	2.65	2.50
	기능형	5년	2.09	2.48	2.33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	5년	2.07	2.60	2.50
	기능형	5년	2.10	2.53	2.33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형	5년	2.11	2.71	2.50
	기능형	5년	2.10	2.59	2.50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5년	2.10	2.74	2.33
	기능형	5년	2.11	2.58	2.33
손 의지	미관형	5년	2.11	2.71	2.00
	기능형	5년	2.10	2.64	2.00
손가락 의지	미관형	5년	2.11	2.68	2.00
전체	-	-	2.11	2.60	2.39

다리의지 역시 평균점수가 전문의 2.11점, 보장구업체 2.56점, 그리고 장애인단체 2.44점으로 나타나 모두 2점을 상회하였다. 즉, 모든 전문가 집단이 현 건강보험 내구연한이 적정 내구연한보다 길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보장구업체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 내구연한의 단축에 대한 필요성을 보장구업체가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6〉 다리의지 현 내구연한 적정성

(단위: 점수)

유 형	구분	내구연한	전문의	업체	단체
한쪽편 골반 의지	-	5년	2.10	2.46	2.50
엉덩이관절 의지	-	5년	2.14	2.45	2.50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5년	2.13	2.51	2.17
	실리콘형	5년	2.15	2.45	2.40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5년	2.12	2.51	2.33
	실리콘형	5년	2.10	2.46	2.33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5년	2.12	2.53	2.50
	실리콘형	5년	2.13	2.51	2.50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일반형	5년	2.09	2.60	2.50
	실리콘형	5년	2.10	2.53	2.50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5년	2.09	2.61	2.50
	실리콘형	5년	2.11	2.57	2.50
종아리 의지	일반형	5년	2.15	2.61	2.50
	실리콘형	5년	2.11	2.56	2.50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5년	2.13	2.64	2.33
	실리콘형	5년	2.10	2.53	2.33
의족	일반형	5년	2.08	2.64	2.33
	실리콘형	5년	2.09	2.57	2.40
전체	-	-	2.11	2.56	2.44

보조기의 경우에도 세 집단 모두 현 내구연한이 적정 내구연한에 비해 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장구업체, 장애인단체, 전문의의 순서로 내구연한 단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전문가 집단의 보조기 유형별로 현 내구연한 적정성에 대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팔보조기의 경우 전문의 2.07점, 보장구업체 2.53점, 장애인단체 2.47점으로 나타났으며, 척추보조기의 경우에는 전문의 2.08점, 보장구업체 2.53점, 장애인단체 2.4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반보조기의 경우에는 전문의 2.09점, 보장구업체 2.51점, 장애인단체 2.33점으로 나타났으며, 다리보조기의 경우에는 전문의 2.11점, 보장구업체 2.44점, 장애인단체 2.38점으로 나타났다.

〈표 5-7〉 보조기 현 내구연한 적정성

(단위: 점수)

유 형		내구연한	전문의	업체	단체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5년	2.09	2.63	2.67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5년	2.06	2.67	2.67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3년	2.05	2.48	2.33
	짧은 팔 보조기	3년	2.08	2.43	2.33
	손가락관절 보조기	3년	2.08	2.44	2.33
	소계	-	2.07	2.53	2.47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3년	2.13	2.52	2.17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3년	2.13	2.58	2.33
	목뼈 보조기	3년	2.05	2.42	2.33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3년	2.08	2.51	2.33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3년	2.07	2.48	2.33
	등·허리·엉치뼈보조기- 재킷	3년	2.07	2.43	2.20
	쿨셋	3년	2.10	2.55	2.20
	소계	-	2.08	2.53	2.42
골반보조기	골반 보조기	3년	2.09	2.51	2.33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부착	3년	2.10	2.35	2.50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미부착	3년	2.06	2.35	2.50
	양쪽 긴 다리 보조기	3년	2.07	2.31	2.50
	무릎관절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부착	3년	2.11	2.47	2.33
	무릎 관절 보조기- 레녹스힐	3년	2.11	2.49	2.33
	무릎 관절 보조기- 십자인대 손상	3년	2.11	2.49	2.33
	짧은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3년	2.08	2.49	2.3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3년	2.16	2.48	2.33
	발목관절 보조기- 고정	3년	2.14	2.45	2.33
	발목관절 보조기- 크렌자크식	3년	2.17	2.51	2.33
	발목관절 보조기- 90 ° 고정	3년	2.15	2.50	2.33
	소계	-	2.11	2.44	2.38

기타 보장구의 현 내구연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의지, 보조기와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즉, 세 집단 모두 기타 보장구의 현 내구연한이 길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나, 의지·보조기와 달리 장애인단체가 오히려 보장구업체보다 현 내구연한을 더 길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흰지팡이의 경우 전문의와 장애인단체의 평균점수가 각각 1.97점, 1.73점으로 나타나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내구연한을 약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흰지팡이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현재의 1년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표 5-8〉 기타보장구 현 내구연한 적정성

(단위: 점수)

유 형	내구연한	전문 의	업체	단체
지팡이	5년	2.15	2.73	2.57
목발	5년	2.19	2.68	2.57
휠체어	5년	2.19	2.60	2.43
저시력보조안경	5년	2.08	2.41	2.50
콘택트렌즈	3년	2.12	2.24	2.67
돋보기	5년	2.09	2.29	2.17
망원경	5년	2.04	2.35	2.17
의안	5년	2.01	2.38	2.50
흰지팡이	1년	1.97	2.08	1.73
보청기	5년	2.03	2.44	2.71
체외용 인공후두	5년	2.04	2.38	2.50

제 2 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의 기본 원칙

1. 기준 금액의 현실화

현행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품목별 기준금액은 1999년 의지·보조기를 급여에 포함시키면서 당시의 산재보험 기준금액을 참고하여 책정된 것이다. 그 후 산재보험 기준금액은 인건비 및 재료비의 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2001년에 1차로 인상되었고 최근에 다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건강보험 기준금액은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산재보험이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 건강보험은 기준금액의 80%만을 지원하고 있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기준금액 차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장애인 본인 부담금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실제로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장구의 구입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의 80%로 구입 가능한 저품질의 보장구를 사용하

게 됨으로써 재활의 효과가 미미함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다. 결국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은 적절한 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만 한다.

2. 품목별 원가산출을 통한 기준금액 산정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원가 산출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 그리고 이윤을 구성요소로 하여 원가를 산출하였다. 우선 재료비의 경우 산재보험 기준금액 산정의 근거자료인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이하 산재의료관리원)의 품목별 재료비와 통계청의 물가인상률을 참조하였으며,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지급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보장구협회가 산출한 재료비를 사용하되 0.8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한편 인건비는 2003년 5월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용종업원 중 제조업 종업원의 월 평균 임금, 월 평균 근로일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참조하여 시간당 평균 임금을 산출하였고 품목별 평균 제작시간은 산재의료관리원과 보훈병원의 평균 제작시간을 적용하였다. 또한 제세공과금이나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으로 이루어진 경비와 이윤¹⁷⁾은 재료비 및 인건비의 10%를 적용하였다.

3. 기준금액의 단계적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전체 건강보험 급여지출 총액에서 보장구 급여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기준금액 조정이 이루어져도 건강보험 총 급여에서 보장구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기준금액 현실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 인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품목의 원가는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추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기에 들어서면 기준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산재환자와 상이군경을 상대로 보장구를 지급하는 산재의료관리원과 보훈병원은 사회보험기금이나 조세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준금액 산정 시 이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들 등록장애인들이 민간 보장구업체에서 보장구를 구입한다는 점에서 보장구 급여 기준금액 산출내역에 이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4. 지급품목의 확대

현행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의 범주는 사회 참여의 확대 및 첨단 보장구의 출현 등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시 지급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앞서의 수요 전망 조사 결과 및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 그리고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대소변 처리 용품의 기준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고가인 전동휠체어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스쿠터도 추가 품목에 포함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였다.

제 3 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 방법

1. 의지·보조기·정형구두 등 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제작되는 품목

가. 재료비

1999년 의지·보조기가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포함되면서 기준금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인 것은 당시 산재보험의 기준금액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기준금액 조정을 위해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작성한 품목별 원가산출 내역을 토대로 재료비를 산정하였다. 구체적인 재료비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산재의료관리원의 품목별 재료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지급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보장구협회가 산출한 재료비를 사용하되 0.8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여기에 1999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인상분을 재료비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보에 제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였다(통계청, 2003.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0.5이고, 1999년의 물가지수는 97.8로서 지난 4년간의 물가인상분은 1.13(즉, $110.5/97.8=1.13$), 즉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인건비

대부분의 보장구는 휠체어나 보청기와 같이 자동화된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개별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맞춤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장구 제작에는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적정 인건비 산출을 위해 산재의료관리원의 품목별 제작시간과 보훈병원의 품목별 제작시간을 평균한 시간을 적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순수 제작시간 뿐만 아니라 A/S를 위한 출장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5월의 상용종업원 중 제조업 인력의 시간당 인건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제조업 종업원의 월 평균 임금은 1,932,985원이고, 월 평균 근로일수는 24.7일이므로, 일 평균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 시간당 평균 임금은 $1,932,985\text{원}/24.7\text{일}/8\text{시간} \approx 9,800\text{원}$ 으로 산정되었다.

다. 경비

경비는 위에서 산출한 재료비와 인건비 합액의 10%를 적용하였다.

라. 이윤

이윤 역시 재료비와 인건비 합액의 10%를 적용하였다.

마. 기준금액 산정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기준금액은 위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품목별 재료비, 인건비, 경비, 그리고 이윤의 합으로 하였으며, 천원단위는 절삭하였다.

2. 지팡이 · 콘택트렌즈 등 완제품

지팡이 등 완제품의 경우 현행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3. 휠체어 · 보청기 · 전동휠체어 · 스쿠터 등 조립품

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고가의 보장구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서

요구한 재료비의 80%를 적용하였다. 이들 품목은 주로 완성된 부품의 조립을 통해 제작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경비와 이윤은 재료비의 10%를 적용하였다. 다만 다른 품목과 달리 아직까지 장애인이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스쿠터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적용하였다.

4. 장루·요루 용품

장루·요루 장애인이 사용하는 대소변 처리 용품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¹⁸⁾

제 4 절 적정 기준금액 산정 결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품목별 기준금액은 다음의 <표 5-9> 와 같다. 산출된 기준금액은 현행 기준금액에 비해 평균 36.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지의 경우 팔의지가 63.9%, 다리의지가 42.7% 인상되는 등 전체 평균 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휠체어도 평균 6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의 기준금액 30만원으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휠체어밖에 구입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산정된 기준금액이 향후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시 그대로 반영된다면 장애인들의 휠체어 구입의 선택의 폭은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청기의 경우 36.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품목의 평균 인상률과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번 적정 기준금액 산정 결과 가장 인상률이 높은 품목은 손가락의지로서 10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가락의지의 재료를 실리콘으로 대체한데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18) 장루·요루 장애인이 사용하는 대소변처리용품은 보호판과 주머니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twp-piece)과 보호판과 주머니가 붙어있는 일체형(one-piece)으로 구분된다. 각 품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살펴보면, 먼저 장루의 경우 분리형이 6,254원(보호판 4,044원, 주머니 2,210원), 일체형은 4,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요루의 경우에는 분리형이 10,362원(보호판 4,348원, 주머니 6,014원), 일체형이 6,1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각 품목의 평균 사용 내구일수를 살펴보면, 장루의 경우 분리형이 보호판 5일·주머니 3일, 일체형이 2일이며, 요루의 경우에는 분리형이 보호판 3일·주머니 3일, 일체형이 3일이다(Convatec 내부자료, 2003).

〈표 5-9〉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적정 기준금액 산정 결과

(단위: 원, %)

분류	유형	구분	현 기준금액	적정 기준금액	인상율
팔의지	어깨가슴의지	미관형	510,000	720,000	41.2
		기능형	1,000,000	1,400,000	40.0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500,000	790,000	58.0
		기능형	1,000,000	1,470,000	47.0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330,000	570,000	72.7
		기능형	820,000	1,250,000	52.4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290,000	570,000	96.6
		기능형	780,000	1,250,000	60.3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300,000	560,000	86.7
		기능형	790,000	1,240,000	57.0
	이주 짧은아래팔 의지	미관형	340,000	560,000	64.7
		기능형	560,000	860,000	53.6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	240,000	450,000	87.5
		기능형	460,000	750,000	63.0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형	240,000	450,000	87.5
		기능형	460,000	750,000	63.0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240,000	450,000	87.5
		기능형	460,000	750,000	63.0
	손 의지	미관형	160,000	250,000	56.3
		기능형	570,000	590,000	3.5
	손가락 의지	미관형	60,000	120,000	100.0
다리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1,070,000	1,740,000	62.6
	양당이관절 의지		1,070,000	1,740,000	62.6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000,000	1,560,000	56.0
		실리콘형	1,520,000	2,270,000	49.3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1,000,000	1,560,000	56.0
		실리콘형	1,520,000	2,270,000	49.3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950,000	1,490,000	56.8
		실리콘형	1,350,000	2,010,000	48.9
	종아리굴곡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950,000	1,290,000	35.8
		실리콘형	1,350,000	1,810,000	34.1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610,000	860,000	41.0
		실리콘형	1,090,000	1,520,000	39.4
	종아리 의지	일반형	540,000	740,000	37.0
		실리콘형	1,080,000	1,480,000	37.0
	짜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460,000	530,000	15.2
		실리콘형	840,000	1,040,000	23.8
	의족	일반형	170,000	220,000	29.4
		실리콘형	540,000	720,000	33.3

〈표 5-9〉 계속

(단위: 원, %)

분류	유형	현 기준금액	적정 기준금액	인상율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250,000	290,000	16.0
	긴 팔 보조기	190,000	240,000	26.3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190,000	260,000	36.8
	짧은 팔 보조기	80,000	90,000	12.5
	손가락관절 보조기	40,000	50,000	25.0
척추 보조기	목뼈 보조기(필라텔피아)	70,000	70,000	0.0
	목뼈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60,000	60,000	0.0
	목뼈 보조기(cervical Jacket)	380,000	380,000	0.0
	척추보조기(나이트-테일라식)	120,000	150,000	25.0
	허리영치뼈보조기(윌리암식)	170,000	190,000	11.8
	등허리영치뼈 보조기(- 재킷)	360,000	400,000	11.1
	콜셋	80,000	80,000	0.0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120,000	120,000	0.0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부착)	310,000	540,000	74.2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미부착)	290,000	410,000	41.4
	양쪽 긴 다리 보조기	510,000	790,000	54.9
	무릎관절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180,000	190,000	5.6
	무릎관절 보조기(테녹스힐)	160,000	160,000	0.0
	무릎관절 보조기(십자인대 손상용)	80,000	80,000	0.0
	짧은 다리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270,000	370,000	37.0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70,000	120,000	71.4
	발목관절 보조기(고정)	220,000	240,000	9.1
	발목관절보조기(크렌자크식)	220,000	320,000	45.5
	발목관절 보조기(90도고정)	140,000	140,000	0.0
기타 보장구	지팡이	20,000	20,000	0.0
	목발	15,600	15,000	0.0
	휠체어	300,000	480,000	60.0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100,000	0.0
	콘택트렌즈	80,000	80,000	0.0
	돌보기	100,000	100,000	0.0
	망원경	100,000	100,000	0.0
	의안	300,000	300,000	0.0
	환지팡이	14,000	14,000	0.0
	보청기	250,000	340,000	36.0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00,000	0.0
	환지팡이	14,000	14,000	0.0
	보청기	250,000	340,000	36.0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00,000	0.0
추가 보장구	전동휠체어		2,090,000	
	전동스쿠터		1,670,000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제 5 절 적정 내구연한 산정

적정 내구 연한은 산재의료관리원 내구연한과 보장구업체 요구 내구연한, 그리고 일본 신체 장애인복지법의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표 5-10> 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만 흰지팡이에 대해서는 지팡이가 잘 부러짐으로 인해 현재의 내구연한 1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요구를 감안하여 적정 내구연한을 0.5년(6개월)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장루·요루 용품의 내구일수는 제2절 각주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10>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적정 내구연한

분류	유형	구분	현 내구연한	산재보험	일본	업체요구	적정 내구연한
팔 의지	어깨가슴의지	미관형	5년	4년	4년	3년	4년
		기능형	5년	4년	3년	3년	4년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5년	4년	4년	3년6월	4년
		기능형	5년	4년	3년	3년6월	4년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5년	4년	3년	2년	4년
		기능형	5년	4년	3년	2년	4년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5년	4년	3년	3.6년	4년
		기능형	5년	4년	3년	3년6월	4년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5년	3년	3년	2년	3년
		기능형	5년	3년	3년	2년	3년
	아주 짧은아래팔의지	미관형	5년	3년	3년	2년	3년
		기능형	5년	3년	3년	2년	3년
	짧은 아래팔의지	미관형	5년	3년	3년	2년	3년
		기능형	5년	3년	3년	2년	3년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형	5년	3년	3년	2년	3년
		기능형	5년	3년	3년	2년	3년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5년	3년	3년	1년	3년
		기능형	5년	3년	3년	1년	3년
	손 의지	미관형	5년	1년	1년	1년	1년
		기능형	5년		2년	1년	2년
다리 의지	손가락 의지	미관형	5년	1년	1년	1년	1년
	한쪽편 골반 의지		5년	4년	4년	4년	4년
	엉덩이관절 의지		5년	4년	3년	4년	4년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5년	3년	3년	3년	3년
		실리콘형	5년	5년	2년(작업용)	3년	5년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5년	3년	3년	3년	3년
		실리콘형	5년	5년	2년(작업용)	3년	5년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5년	3년	3년	3년	3년
		실리콘형	5년	5년	2년(작업용)	3년	5년
	종아리굴곡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5년	3년	3년	3년	3년
		실리콘형	5년	3년	2년(작업용)	3년	3년
	짧은 종아리의지	일반형	5년	3년	3년	3년	3년
		실리콘형	5년	3년	2년(작업용)	3년	3년

〈표 5-10〉 계속

분류	유형	구분	현 내구연한	산재보험	일본	업체요구	적정 내구연한
	종아리 의지	일반형	5년	3년	3년	3년	3년
		실리콘형	5년	3년	2년(작업용)	3년	3년
	싸임식 발목관절의지	일반형	5년	2년	2년	2년	2년
		실리콘형	5년		2년(작업용)	2년	3년
	의족	일반형	5년	1년	1년	1년	1년
		실리콘형	5년			1년	2년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3년	3년	3년	2년	3년
	긴 팔 보조기		3년	3년	3년	2년	3년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3년	3년	3년	2년	3년
	짧은 팔 보조기		3년	3년	3년	2년	3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3년	3년	3년	1년	3년
척추 보조기	목뼈 보조기(펠라텔피아)		3년	3년	3년	6월	3년
	목뼈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3년	3년	3년	6월	3년
	목뼈 보조기(cervical Jacket)		3년	3년	3년	8월	3년
	척추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3년	3년	3년	8월	3년
	허리영치뼈보조기(월리암식)		3년	3년	3년	8월	3년
	등허리영치뼈 보조기(재킷)		3년	3년	3년	8월	3년
	콜렛		3년	3년	3년	8월	3년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3년	2년	2년	1년	2년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부착)		3년	3년	3년	1년6월	3년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미부착)		3년	3년	3년	1년6월	3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3년	3년	3년	1년6월	3년
	무릎관절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3년	3년	3년	1년6월	3년
	무릎관절 보조기(레크스힐)		3년	3년	3년	1년6월	3년
	무릎관절 보조기(십자인대 손상용)		3년	3년	3년	1년6월	3년
	짧은 다리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3년	3년	3년	1년6월	3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3년	3년	3년	1년6월	3년
	발목관절 보조기(고정)		3년	5년	3년	1년	3년
	발목관절보조기(크렌자크식)		3년	5년	3년	1년6월	3년
기타 보장구	발목관절 보조기(90도고정)		3년		3년	1년	3년
	지팡이		5년				2년
	목발		5년	2년			2년
	휠체어		5년	6년	4년		5년
	저시력보조안경		5년	5년	4년		5년
	콘택트렌즈		3년	3년	4년		3년
	돋보기		5년		4년		4년
	망원경		5년		4년		4년
	의안		5년	5년	2년		5년
	원지팡이		1년	3년	2년		0.5년
	보청기		5년	5년	4년		5년
	체외용 인공후두		5년	5년	5년		5년
추가 보장구	전동휠체어			6년	5년		6년
	전동스쿠터						6년
	정형외과용구두			2년		1년	2년

제 6 절 수리비 급여의 필요성

현행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에서는 보장구의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수리비 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산재보험이나, 미국의 일본에서는 수리비 급여를 보장구 급여제도에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에 수리비 급여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명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보장구 급여 지출액의 증가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리를 통해 보장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수리비 기준금액 산정은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에서는 산재보험의 현 수리비 기준금액을 참고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5-11〉 산재보험 수리비 기준금액

분류	유형	기준금액	분류	유형	기준금액
팔의지	상박통교환	184,000	다리의지	실리콘내피교환	398,000
	상박관절장식교환	492,000		하지의지 파이프어답터교환	69,000
	전박통교환(작업용)	136,000		회전테이블 교환	276,000
	혹크교환	321,000		대퇴의지소켓 교환(실리콘형)	607,000
	반자동 의수교환	486,000		하퇴의지소켓 교환(실리콘형)	482,000
	케이블교환	109,000		고관절장식 교환	495,000
	어깨밴드 교환	22,000	보조기	장보조기 장식교환	84,000
다리의지	미관용의수교환(실리콘)	233,000		쥬라늄커브교환	23,000
	대퇴통교환	406,000		발목장식교환(보조기용)	31,000
	무릎 관절장식	646,000		가죽밴드교환	20,000
	발목장식교환(의족용)	145,000		무릎띠 교환	18,000
	족부교환	30,000		크렌자크식 교환	63,000
	(대퇴용)폼카바교환	126,000		속신	148,000
	흡인밸브 교환	13,000		장형화교환	92,000
	(대퇴용)스타키넬트 교환	22,000	의자차	시트교환	25,000
	(하퇴용)폼카바 교환	95,000		등받이교환	25,000
	하퇴통 교환	380,000		뒷바퀴교환	45,000
	(하퇴용)스타키넬트교환	20,000		앞바퀴교환	23,000
	(단소하퇴용)장식교환	109,000		팔받이교환	11,000
	(단소하퇴용)콜셋밴드교환	76,000		발판교환	13,000
	(하퇴용)콜셋밴드교환	38,000		핸드링교환	23,000

제 6 장 소요 재정 분석

제 1 절 소요 재정 추계 방법

앞서 산출된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식으로 소요 재정을 추계해 보았다. 먼저 산출된 적정 기준금액을 2002년도 건강보험 실제 지급 건수에 적용하여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추계해 보았다(추계 1).

둘째, 산출된 적정 기준금액을 2001년도와 2002년도의 건강보험 실제 지급건수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보장구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재정 지출을 추계해 보았다(추계 2). 이 경우 추계 1에서 나타난 기준금액 인상 요인과 함께 보장구 수요증가가 소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추계 2에서 추계 1의 결과를 빼면 보장구 수요 증감에 따른 순수한 재정지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현행 건강보험 급여 품목 외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장루·요루용품 등 추가 품목의 적정 기준금액을 장애인실태조사의 수요 추정 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품목별 수요량을 적용하여 소요 재정을 추계해 보았다(추계 3). 추가 품목의 수요량에 대해서는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수요 추정 결과를 활용하되, 건강보험·산재보험·국가보훈처 등 전체 보장구 급여제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재정분담률(약 50%)과 이들 추가 품목의 엄격한 수급 자격¹⁹⁾을 감안하여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총 수요의 50%를 실제 수요로 정하였다.²⁰⁾ 아울러 추계 3에서 추계 2의 결과를 빼면 추가

19) 보훈병원의 경우 전동휠체어 수급자격을 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팔의 기능이 전폐되었거나, 또는 한팔이 절단되었으나 남아 있는 손가락의 기능으로 개호인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의사 처방을 통해 ①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②휠체어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수동으로는 휠체어 작동이 불가능할 때, ③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전동휠체어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형외과용 구두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의 지급규정을 보면, 다리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하지보조기 또는 보조화를 필요로 하는 자(단,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20) 장루·요루 용품의 수요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첫째, 전체 장루·요루 장애인 중에서 장루 장애인과 요루 장애인의 비중을 추정하고자 일본의 사례를 참조한 결과, 일본의 경우 방광 장

품목 급여 실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순수 증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적정 기준금액을 적정 내구연한에 적용하여 건강보험 소요 재정의 총량을 파악하였다(추계 4). 이 경우 추계 4에서 추계 3의 결과를 빼면 적정 내구연한의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제 2 절 재정추계 결과

2002년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출 총액은 6,686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1년 건강보험 급여 지출 총액인 14,107,500백만원의 0.0474%에 지나지 않는 금액으로서 2002년 미국 메디케어 보장구 급여 지출액이 전체 급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의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을 2002년도 건강보험 실제 지급 건수에 적용해 본 결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9,178백만원으로서 2002년도 지출액에 비해 2,49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추계 1).

또한 이러한 기준금액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에 더하여 2001년과 2002년의 건강보험 실제 지급 건수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품목별 수요 증감률을 적용한 결과 총 지출액은 9,713백만원으로 나타나 2002년도 지출액에 비해서는 3,027백만원, 그리고 추계 1에 비해서는 535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추계 2).

전동 휠체어, 정형구두 등 급여 품목 추가에 따른 재정 지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추계한 결과를 보면 총 지출액이 17,425백만원으로서, 품목 확대에 의한 추가 소요 재정은 7,71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추가 소요 재정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 14억원, 스쿠터 11억원, 정형구두 282백만원, 그리고 장루·요루 용품이 49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

에인(요루 장애인)이 22천명, 대장 및 소장 장애인(장루 장애인)이 각각 24천명, 1천명인 점을 참조하여 국내 장루 장애인과 요루 장애인의 비중을 6:4로 추정하였다. 둘째, 장루·요루 용품의 종류별 실제 사용 비중을 파악하고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루·요루 용품 중 분리형(twp-piece)의 사용 비율이 85%, 일체형(one-piece)의 사용 비율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장루·요루 장애인 중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대상자 비중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15,000~30,000명으로 추정되는 장루·요루 장애인 중에서(보건복지부, 2003), 본 연구에서는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15,000명으로 추정하였으며, 또한 공적 보장구 급여 제도 중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여 실제 급여 대상은 7,500명으로 추정하였다.

악되었다(추계 3).

마지막으로 기존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적정 기준금액을 적정 내구연한에 적용하여 건강보험 소요 재정의 총량을 파악한 결과, 약 192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금액은 2001년도 건강보험 전체 급여 지출의 0.13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추계 4).

한편 각 품목이 소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전체 보장구 급여 지출 총액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을 살펴보았다. 먼저 2002년 지급실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다리의지로서 30.4%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보청기(28.4%), 수동휠체어(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품목의 기준금액 인상효과가 반영된 추계 1의 경우 다리의지나 보청기의 비중은 각각 30.4%, 28.3%로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수동휠체어는 19.7%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품목의 기준금액 인상 및 2001년과 2002년의 수요 증감이 반영된 추계 2의 경우에는 다리의지의 비중은 24.6%로서 크게 낮아진 반면, 보청기와 수동휠체어의 비중은 각각 31.8%, 21.2%로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 다리의지의 지급 실적이 2001년에 비해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계 2에서는 전체 급여 지출에서 보청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 2에 추가 품목을 적용하여 소요 재정을 산출한 추계 3에서는 장루·요루 용품의 비중이 28.2%로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청기, 다리의지, 수동휠체어의 비중은 각각 17.7%, 13.7%, 11.8%로서 현저히 낮아졌다. 그 외 추가품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가 8.1%, 스쿠터가 6.4%, 그리고 정형구두가 1.6%인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장루·요루 용품을 포함한 추가 품목의 전체 비중은 총 44.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추가 품목이 기존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준금액이 높은데서 비롯된 결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품목 및 추가 품목의 적정 기준금액을 적정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계 4에서는 장루·요루 용품의 비중이 25.5%로서 전체 지출의 약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리의지(19.2%), 보청기(16.1%), 수동휠체어(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계 4에서 추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1%로 나타나 내구연한을 고려할 경우 추계 3보다는 약간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1〉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재정추계 결과

(단위: 천원)

보장구 유형	2002년 (A)	추계 1 (B)	추계 2 (C)	추계 3 (D)	추계 4 (E)
팔의지	387,812	591,272	611,272	611,272	1,078,583
다리의지	2,030,379	2,794,440	2,389,792	2,389,792	3,683,031
팔보조기	18,380	20,416	35,968	35,968	35,968
척추보조기	96,034	108,480	125,648	125,648	125,648
골반보조기	1,776	1,824	1,824	1,824	2,736
다리보조기	742,536	807,616	893,872	893,872	893,872
지팡이	4,748	5,168	4,352	4,352	10,880
목발	1,033	1,032	1,176	1,176	2,940
수동휠체어	1,067,598	1,808,256	2,060,544	2,060,544	2,060,544
저시력보조안경	33,316	34,640	37,440	37,440	37,440
콘택트렌즈	3,517	3,904	4,800	4,800	4,800
돋보기	8,363	10,320	10,720	10,720	13,400
망원경	3,370	3,440	3,520	3,520	4,400
의안	322,972	324,000	379,920	379,920	379,920
환지팡이	3,788	3,808	5,298	5,298	10,595
보청기	1,900,463	2,598,144	3,084,208	3,084,208	3,084,208
체외용 인공후두	60,193	61,200	62,800	62,800	62,800
전동휠체어	0	0	0	1,402,808	1,402,808
스쿠터	0	0	0	1,120,904	1,120,904
정형구두	0	0	0	282,832	282,832
장루·요루용품	0	0	0	4,905,680	4,905,680
계	6,686,280	9,177,960	9,713,154	17,425,377	19,203,989
비고	-	B-A=2,491,680 (기준금액인상효과)	C-B=535,194 (수요증가 효과)	D-C=7,712,224 (품목추가 효과)	E-D=1,778,612 (내구연한 조정 효과)

〈표 6-2〉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수요 추계 결과

(단위: 건수)

보장구 유형	2002년	추계 1	추계 2	추계 3	추계 4
팔의지	1,126	1,126	1,177	1,177	1,177
다리의지	2,194	2,194	1,911	1,911	1,911
팔보조기	196	196	259	259	259
척추보조기	391	391	448	448	448
골반보조기	19	19	19	19	19
다리보조기	3,455	3,455	4,056	4,056	4,056
지팡이	323	323	272	272	272
목발	86	86	98	98	98
수동휠체어	4,709	4,709	5,366	5,366	5,366
저시력보조안경	433	433	468	468	468
콘택트렌즈	61	61	75	75	75
돋보기	129	129	134	134	134
망원경	43	43	44	44	44
의안	1,350	1,350	1,583	1,583	1,583
환지팡이	340	340	473	473	946
보청기	9,552	9,552	11,339	11,339	11,339
체외용 인공후두	153	153	157	157	157
전동휠체어	0	0	0	839	839
스쿠터	0	0	0	839	839
정형구두	0	0	0	1,607	1,607
장루·요루용품	0	0	0	7,500	7,500
계	24,560	24,560	27,879	31,164	31,637

〈표 6-3〉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재정추계 결과 구성비

(단위: %)

보장구 유형	2002년	추계 1	추계 2	추계 3	추계 4
팔의지	5.8	6.4	6.3	3.5	5.6
다리의지	30.4	30.4	24.6	13.7	19.2
팔보조기	0.3	0.2	0.4	0.2	0.2
척추보조기	1.4	1.2	1.3	0.7	0.7
골반보조기	0.0	0.0	0.0	0.0	0.0
다리보조기	11.1	8.8	9.2	5.1	4.7
지팡이	0.1	0.1	0.0	0.0	0.1
목발	0.0	0.0	0.0	0.0	0.0
수동휠체어	16.0	19.7	21.2	11.8	10.7
저시력보조안경	0.5	0.4	0.4	0.2	0.2
콘택트렌즈	0.1	0.0	0.0	0.0	0.0
돌보기	0.1	0.1	0.1	0.1	0.1
망원경	0.1	0.0	0.0	0.0	0.0
의안	4.8	3.5	3.9	2.2	2.0
휠지팡이	0.1	0.0	0.1	0.0	0.1
보청기	28.4	28.3	31.8	17.7	16.1
체외용 인공후두	0.9	0.7	0.6	0.4	0.3
전동휠체어	0.0	0.0	0.0	8.1	7.3
스쿠터	0.0	0.0	0.0	6.4	5.8
정형구두	0.0	0.0	0.0	1.6	1.5
장루·요루용품	0.0	0.0	0.0	28.2	2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총 급여지출대비 ¹⁾	0.0474	0.0651	0.0689	0.1235	0.1361

주: 2001년 건강보험 총 급여지출액 14,107,500,000원에서 2002년 보장구 급여 실제 지급액 및 추계의 보장구 급여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이와 같은 재정 추계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나타난 장루·요루 용품의 품목별 소요 재정을 추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6-4〉와 같다.

〈표 6-4〉 장루·요루 용품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소요 재정 추계 결과

(단위: 명, 원)

구분	품목	유형	보험가	내구일수	월필요량	총금액	월소요액	장애인수	소요 재정
장루	투피스	보호판	4,044	5	6	24,264	43,634	3,825	1,702,486,080
		주머니	2,210	3	10	22,100			
	원피스	일체형	4,120	2	15	61,800	61800	675	400,464,000
요루	투피스	보호판	4,348	3	10	43,480	103,620	2,550	2,536,617,600
		주머니	6,014	3	10	60,140			
	원피스	일체형	6,160	3	10	61,600	61,600	450	266,112,000
계								7,500	4,905,679,680

이렇듯 다양한 추계 결과 중, 향후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추계 4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추계 4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기준금액 인상, 내구연한 단축 및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품목의 추가 지급 등 보장구와 관련한 장애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추계 4의 전면적 반영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제도의 개선은 먼저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이며 수요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개인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리비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7 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 1 절 결론

장애는 단지 신체상의 기능적 결함에 그치지 않고 노동능력 및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감퇴·상실로 이어지며 그 결과 소득활동의 제한이나 추가생활비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파급된다(이선우 외, 2001; 변용찬 외, 2001).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 보장구라고 할 수 있다. 보장구는 장애로 인한 불편을 제거, 완화시켜주는 기구나 장치로서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신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보장구는 단순히 신체기능의 향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효과가 장애인의 교육, 취업, 사회복귀 등에도 확대된다. 보장구 사용여부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 직업, 사회적 생활의 성과도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발생 즉시 국민 누구나 경제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장구를 적정 가격에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보장구 사용으로 생산능력을 갖게 된 장애인들의 납세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보장구 구입비의 차등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장구 보험급여(의료급여)사업의 전면적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오늘날 교통사고, 산업재해의 증가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장구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욕구는 점차 첨단 기술이 가미된 보장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현행 보장구 급여 기준만으로는 첨단제품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고 보장구 산업의 육성 및 보장구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가격의 현실화와 품목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보장구의 가격은 사용하는 재료의 질과 제작소의 규모 및 시설 등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장구의 값은 산재의료관리원이나 보훈병원 가격, 건강보험

가격, 그리고 개인에게 판매시의 가격이 서로 다른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고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보장구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보장구 제조업자는 채산성을 맞추기 위하여 값싼 저질의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품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로서 재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료급여)에 있어서 보장구 품목의 확대, 보장구 가격의 현실화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장구를 지급함으로써, 첫째, 장애인의 신체 기능상의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하고 교육, 직업, 사회, 심리적 재활의 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잠재력의 극대화를 유도하고, 둘째, 신체적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성을 갖춘 재활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장애인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를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 하에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현행 지급 품목의 기준금액 인상

현재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별 기준금액은 판매업체의 시가는 물론 산재보험 및 보훈병원의 기준금액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기준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보장구를 구입하는 장애인의 본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높은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보장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에 맞는 낮은 품질의 보장구를 구입함으로써 충분한 재활의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나아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및

보훈병원의 보장구 기준가격을 검토한 후 건강보험 보장구 기준가격을 가능한 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험급여 적정 기준가격은 현행 기준금액에 비해서는 평균 36.4% 정도 인상된 것이지만, 시장 가격을 100% 반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장애인의 자부담 축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가격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2. 지급 품목의 단계적 확대

현재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구는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총 17종 74개 품목에 불과하여 산재보험 및 보훈병원의 지급 품목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전동휠체어나 정형외과용 구두 등은 현행 지급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장애범주 확대에 의해 새로 추가된 장루·요루 장애인 및 호흡기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소변 처리용품이나 인공호흡기 등도 아직까지 포함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의 범주는 사회 참여의 확대 및 첨단 보장구의 출현 등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의 보장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중요한 현실에서 급여 품목의 확대는 비록 그 비중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먼저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려하되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이며 수요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개인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리비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품목으로서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를 우선 확대하고, 다음으로 장루·요루 품목, 욕창방지용 매트 및 스쿠터, 호흡기 장애인 관련 품목(산소발생기, 네블라이저 등) 및 복막투석장치의 순서로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수리비도 보험 급여에 포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한편, 2004년에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품목으로 제안한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서는 보장구의 남용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

원 등의 지급 규정과 같이 엄격하게 지급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훈병원의 경우 전동휠체어 수급자격을 휠체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팔의 기능이 전폐되었거나, 또는 한팔이 절단되었으나 남아 있는 손가락의 기능으로 개호인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의사 처방을 통해 ①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② 휠체어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수동으로는 휠체어 작동이 불가능할 때, ③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전동휠체어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중도의 하지기능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보행기능을 할 수 없는 자, 호흡기기능장애인, 심장기능장애인 등으로 보행에 의한 이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자로 의학적 견지에서 적응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만 전동휠체어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형외과용 구두의 경우 보훈병원의 지급규정을 보면, 다리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하지보조기 또는 보조화를 필요로 하는 자(단,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표 7-1〉 단계적 품목 확대 방안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확대 품목	전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장루·요루 용품	스쿠터, 욕창방지용 매트	호흡기장애 용품, 복막투석장치	수리비 급여

3. 보장구 보험급여 수가 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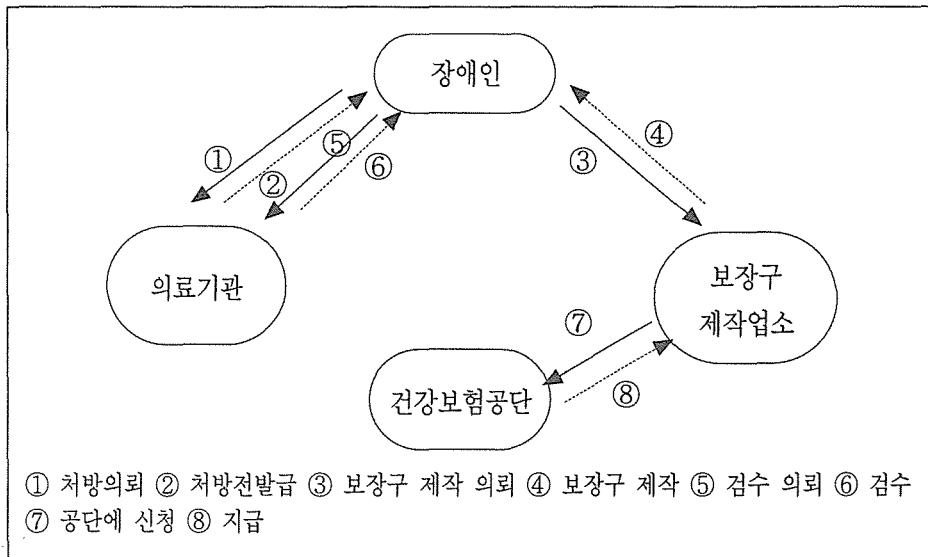
장애의 양상이 점차 노령화, 만성화 되어가고 내부장애, 정신장애 등 범주 확대에 따라 보장구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따라서 학계, 제조업계 및 기타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보장구 보험급여 수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미국의 메디케어의 경우와 같이 매년 보험급여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장구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가위원회에서는 보험급여의 기준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품목 및 내구연한의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보장구 장착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및 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방안 등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4.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 절차 개선

장애인들은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지급절차 가운데 처방 및 검수 절차는 보장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최소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간소화는 오히려 보장구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보장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인 급여 신청을 보장구 제작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장구 제작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의한 보험급여비 신청은 보장구 지급 단계의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즉,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장구 가격의 전액을 제작업체 또는 판매업체에게 지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0%까지 환불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은 전액 지급 능력이 부족하여 보장구 제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장구 제작업체가 보험급여 상한액의 80%를 신청하게 할 경우 장애인은 제작 가격에서 상한액의 80%를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면 되므로 장애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된 기관에 한하여 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품목은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거치는 품목으로 한정하여 부담 청구를 방지하며, 또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3회 부담 청구 적발시 제작 또는 판매업체의 자격을 정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부담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급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1]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급절차 개선(안)



5. 보장구 처방 및 검수 담당 의사교육 강화

현행 보장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관리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정확한 처방과 검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 보장구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김봉옥, 2002). 즉, 실제 보장구 처방시 처방전에 기입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상하지 의지·보조기 등 품목명만 기입하는 경우가 전체의 5%이고, 해당 의지·보조기의 세부 유형만 기입하는 경우가 전체의 39%에 이르러, 전체의 44% 정도가 처방전에 component 별로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서 전체 의사의 59.5%가 자세히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김봉옥, 2002). 따라서 장애인 보장구의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연수 및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방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수 및 보수교육은 대한재활의학회나 국립재

활원 등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장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각 보장구의 적절한 사용 방법, 금기사항 등 사용시 주의할 점을 자세히 기록한 지침(manual)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6. 관련 통계의 정비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공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과 원활한 사회 참여의 기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요 부문으로서의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실태 및 수요 추정과 공급 부문으로서의 장애인 보장구 산업 실태 및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의 보장구 지급 실적 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정례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들 필요한 통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실태 및 수요 추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장애정도별 보장구 사용 현황, 향후 수요량 및 보장구 구입 방법·재원 등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어야 하며, 또한 공급 부문과 관련해서는 보장구 종류별 생산 및 판매량, 경영 및 운영실태와 건강보험·산재보험·보훈병원의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의 품목별 지급 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계의 생산은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우선 급여의 종류와 관련된 것으로서 현행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구 구입에 한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미국의 메디케어와 같이 품목의 특성에 따라 급여의 형태를 신제품 구입·급여뿐만 아니라 중고품 구입 및 임대 급여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의 제약 및 연구 기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고가의 첨단 제품이 등장하고, 제품의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중고품 구입이나 임대를 보장구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수립을 목

표로 하는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적 보장구 급여제도인 산재보험 및 보훈병원의 기준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건강보험의 품목별 적정기준금액을 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제도의 기준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기준금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욕창방지용 매트, 산소호흡기, 복막투석장치 등 본 연구에서 단계적 추가 확대 품목으로 제시되었던 보장구의 향후 수요량 추정 및 적정 기준금액 및 내구연한 산정, 소요 재정 추계 등의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 2003.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조사』, 2000.
- 권선진, 『장애인 보장구 산업의 육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김명희, 「우리나라 보장구 산업의 현황」, 『장애인고용』, 16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 김봉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기술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02.
- 박윤서, 「장애인 보장구 개발·생산·교부의 변천」,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한국재활재단, 1996.
- 박을중, 「우리나라 장애인 보장구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박을중, 「우리나라 보장구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애인 고용』 22호, 1996, pp.92~99.
-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보건복지부,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03.
- 이선우 외,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장애복지21,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재활보조기구 편람』, 장애복지21, 1999.
- 장현숙 외, 『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조사 및 개발지원체계 구축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최일섭 외, 『보장구 품목고시 및 용어의 단일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한국보장구협회, 『보장구 수가표』, 199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을 통한 고용환경개선 연구』, 2002.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재활보조기구 품목고시에 관한 연구』, 1998.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아태장애인 10년 평가논문집』, 2001.

_____, 『제10회 RI Korea 재활대회』, 2002.

ABLEDATA, The Guide to ABLEDATA Indexing Terms, 2002.

CMS, *2003 Annual Report of The Boards of Trustees of The Federal Hospital Insurance and The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s*, 2003.

D. Carlson, N. Ehrlich, B. Berland, N. Bailey, *Assistive technology survey results: Continued benefits and needs reported by American with disabilities*. 2001.

G. DeJong, S. Palsbo, P. Beatty, G. Jones, T. Kroll, M. Neri, "The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Health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ilbank Quarterly*, Vol.80, No.2, 2002.

<http://www.csun.edu/cod/conf/2000/proceedings/0238HANSON.htm>

<http://www.techaccess-ri.org/fundintr.htm>

ISO, *ISO 9999 Technical Aids for Disabled Persons-Classific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92.

J. Kaiser, Development in Durable Medical Equipment(DME) Payment, CMS, 2002.

J. Russell, G. Hendershot, F. LeClere, L. Howie, M. Adler, Trends and Differential Use of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United States, 1994, Advance Data No.292, 1997. NCHS.

NIDRR,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for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and Services*, 2000.

Protection and Advocacy, *Accessing Assistive Technology*, 2002.

T. Hoerger, E. Finkelstein, S. Bernard, "Medicare Beneficiary Satisfaction with Durable Medical Equipment Suppliers",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Vol.23, No.1, 2001.

U.S. Census Bureau, *Disability Status*, 2003.

U.S. Commerce, *Technology Assessment of the U.S. 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2003.

부 록

1. 보장구 수요 전망 및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관한 조사표
2. 보장구 품목별 적정 기준금액(수가) 산출 내역
3. 보장구 기준금액(수가) 비교표
4. 보장구 명칭 비교표
5. 일본의 보장구 급여관련 법·제도 및 보장구 목록

빈 면

부록 1. 보장구 수요 전망 및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관한 조사표

재활보조기구 수요 추정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조사(의사용)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 및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관련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기준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재활보조기구의 향후 수요 추정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아울러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대한 귀 단체의 답변은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산업의 육성 정책수립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오니, 조사내용이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성의있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후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 조사표 발송 및 연락처

1. 주소: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107호 장애인복지연구팀
2. 담당자: 윤상용 Tel. 02-380-8335 , 박성민 Tel. 02-380-8274
fax. 02-382-45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일반적 사항 및 재활보조기구 수요 추정

1.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 병원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① 종합병원(3차 진료기관) ② 병원(2차 진료기관) ③ 의원(1차 진료기관) ④ 기타: _____

2.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① 29세 이하 ② 2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3. 귀하의 해당하는 성별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남 ② 여

4. 귀하께서는 전문의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전문과목을 기재해 주십시오.

① 예 (전문의) → 전문과목: _____ ② 아니오 (일반의)

5. 현재 월 평균 보장구 처방 건수 및 향후 수요는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보장구 품목			월 평균 처방 건수	향후 수요			
				① 현재 수요보다 증가할 것이다	② 현재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 수요보다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보 험 급여 품목	의지	팔 의지	건	①	②	③	④
		다리 의지	건	①	②	③	④
	보조기	팔 보조기	건	①	②	③	④
		척추 보조기	건	①	②	③	④
		골반 보조기	건	①	②	③	④
		다리 보조기	건	①	②	③	④
	기타 보장구	지팡이	건	①	②	③	④
		목발	건	①	②	③	④
		휠체어	건	①	②	③	④
		저시력보조안경	건	①	②	③	④
		콘택트렌즈	건	①	②	③	④
		돋보기	건	①	②	③	④
		망원경	건	①	②	③	④
		의안	건	①	②	③	④
		흰지팡이	건	①	②	③	④
		보청기	건	①	②	③	④
	체외용 인공후두	건	①	②	③	④	

보장구 품목			월 평균 처방 건수	향후 수요			
				① 현재 수요보다 증가할 것이다	② 현재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 수요보다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 보험 미급여 품목	기타 보장구	전동휠체어		①	②	③	④
		스쿠터		①	②	③	④
		보행기		①	②	③	④
		욕창방지용구		①	②	③	④
		세면, 목욕용품		①	②	③	④
		대소변처리용구		①	②	③	④
		정형외과용 구두		①	②	③	④
		개인용 온열기		①	②	③	④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①	②	③	④
		안경		①	②	③	④
		맹인용 전자보행기		①	②	③	④
		저시력보조기		①	②	③	④
		인공후두		①	②	③	④
		음성증폭기		①	②	③	④
		복막투석장치		①	②	③	④
		인공호흡기		①	②	③	④
		체온계		①	②	③	④
		체온조절장치		①	②	③	④
		혈압계		①	②	③	④
		기타 1 ()		①	②	③	④
		기타 2 ()		①	②	③	④
		기타 3 ()		①	②	③	④
		기타 4 ()		①	②	③	④

※ 다음은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입니다. 각 품목의 현 기준액 및 내구연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절한 내구연한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단체에 해당되는 재활보조기구에만 기입해 주세요).

4. 팔의지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어깨가슴 의지	미관 형	5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길다 ③짧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어깨관절 의지	미관 형	5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위팔 의지	미관 형	33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8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표준 위팔 의지	미관 형	2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7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팔꿈치관절의 지	미관 형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7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아주짧은아래팔 의지	미관 형	3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5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손목관절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 의지	미관 형	1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5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가락 의지	미관 형	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팔의지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5. 다리의지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한쪽편 골반 의지		1,0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엉덩이관절 의지		1,0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5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넓적다리체중 부하 의지	일반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5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9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3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종아리굴곡 채중부하의 지	일반형	9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3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6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0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종아리 의지	일반형	5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0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8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의족	일반 형	1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 콘형	5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다리의지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6. 팔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어깨뼈 외전 보조기	2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1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1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팔 보조기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팔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7. 척추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목뼈 보조기	3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1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1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등·허리·엉치뼈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제킷	3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쿨셋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척추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8. 골반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골반 보조기	1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골반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9. 다리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3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2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5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무릎관절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부착	1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 관절 보조기 - 레눅스힐	1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 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2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2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크렌자크식	2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90 ° 고정	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다리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10. 기타 보장구

유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지팡이	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목발	15,6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휠체어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콘택트렌즈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돋보기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망원경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의안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원지팡이	14,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1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보청기	2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u>기타보장구</u>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11.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십시오.

재활보조기구 수요 추정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조사(재활보조기구업체용)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 및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관련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기준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재활보조기구의 향후 수요 추정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아울러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대한 귀 업체의 답변은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산업의 육성 정책수립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오니, 조사내용이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성의있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후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 조사표 발송 및 연락처

- 주소: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107호 장애인복지연구팀
- 담당자: 윤상용 Tel. 02-380-8335 , 박성민 Tel. 02-380-8274
fax. 02-382-45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일반적 사항 및 재활보조기구 수요 추정

1. 단체명:

2. 응답자 직위:

3. 재활보조기구의 향후 수요는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V표를 해주세요.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① 현재 수요보다 증가할 것이다	② 현재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 수요보다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보 험 급 여 품 목	의지	팔 의지	①	②	③	④
		다리 의지	①	②	③	④
	보조기	팔 보조기	①	②	③	④
		척추 보조기	①	②	③	④
		골반 보조기	①	②	③	④
		다리 보조기	①	②	③	④
	기타 보장구	지팡이	①	②	③	④
		목발	①	②	③	④
		휠체어	①	②	③	④
		저시력보조안경	①	②	③	④
		콘택트렌즈	①	②	③	④
		돋보기	①	②	③	④
		망원경	①	②	③	④
		의안	①	②	③	④
		흰지팡이	①	②	③	④
		보청기	①	②	③	④
	체외용 인공후두	①	②	③	④	
건강보 험 미 급 여 품 목		전동휠체어	①	②	③	④
		스쿠터	①	②	③	④
		보행기	①	②	③	④
		욕창방지용구	①	②	③	④
		세면, 목욕용품	①	②	③	④
		대소변처리용구	①	②	③	④
		정형외과용 구두	①	②	③	④
		전동휠체어	①	②	③	④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① 현재 수요보다 증가할 것이다	② 현재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 수요보다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보험 미급여 품목	기타 보장구	스쿠터	①	②	③	④
		보행기	①	②	③	④
		욕창방지용구	①	②	③	④
		세면, 목욕용품	①	②	③	④
		대소변처리용구	①	②	③	④
		정형외과용 구두	①	②	③	④
		개인용 온열기	①	②	③	④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①	②	③	④
		안경	①	②	③	④
		맹인용 전자보행기	①	②	③	④
		저시력보조기	①	②	③	④
		인공후두	①	②	③	④
		음성증폭기	①	②	③	④
		복막투석장치	①	②	③	④
		인공호흡기	①	②	③	④
		체온계	①	②	③	④
		체온조절장치	①	②	③	④
		혈압계	①	②	③	④
		기타 1 ()	①	②	③	④
		기타 2 ()	①	②	③	④
		기타 3 ()	①	②	③	④
		기타 4 ()	①	②	③	④

※ 다음은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입니다.
 각 품목의 현 기준액 및 내구연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이 적정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절한 내구연한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단
 체에 해당되는 재활보조기구에만 기입해 주세요).

4. 팔의지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어깨가슴 의지	미관 형	5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길다 ③짧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어깨관절 의지	미관 형	5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위팔 의지	미관 형	33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8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표준 위팔 의지	미관 형	2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7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팔꿈치관절의 지	미관 형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7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아주짧은아래팔 의지	미관 형	3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5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손목관절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 의지	미관 형	1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5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가락 의지	미관 형	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팔의지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5. 다리의지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한쪽편 골반 의지		1,0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영덩이관절 의지		1,0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5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넓적다리체중 부하 의지	일반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5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9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3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종아리굴곡 체중부하의 지	일반형	9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3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6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0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종아리 의지	일반형	5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0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8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의족	일반 형	1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 콘형	5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다리의지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6. 팔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어깨뼈 외전 보조기	2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1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 준 액		내 구 연 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1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팔 보조기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팔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7. 척추 보조기

유 형	기 준 액		내 구 연 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 준 액		내 구 연 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목뺨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목뺨 보조기	3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1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허리·엉치뼈 보조기 - 월리암식	1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등·허리·엉치뼈보조기 -등·허리·엉치뼈 제킷	3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콜셋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척추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8. 골반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골반 보조기	1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골반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9. 다리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3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2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5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 준 액		내 구 연 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무릎관절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부착	1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 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1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 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2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2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크렌자크식	2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90 ° 고정	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다리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10. 기타 보장구

유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지팡이	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목발	15,6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휠체어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콘택트렌즈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 준 액		내 구 연 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돋보기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망원경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의안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원지팡이	14,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1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보청기	2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적정액은?(원)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기타보장구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11.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십시오.

재활보조기구 수요 추정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조사(장애인단체용)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 및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관련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기준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재활보조기구의 향후 수요 추정 및 건강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아울러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재활보조기구산업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표에 대한 귀 단체의 답변은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산업의 육성 정책수립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오니, 조사내용이 부담스러우시더라도 모든 질문에 성의있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전산처리 후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응답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 조사표 발송 및 연락처

1. 주소: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107호 장애인복지연구팀
2. 담당자: 윤상용 Tel. 02-380-8335 , 박성민 Tel. 02-380-8274
fax. 02-382-45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 복 지 부

※ 일반적 사항 및 재활보조기구 수요 추정

1. 단체명:

2. 응답자 직위:

3. 재활보조기구의 향후 수요는 어떻게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V표를 해주세요.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① 현재 수요보다 증가할 것이다	② 현재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 수요보다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보 험 급 여 품 목	의지	팔 의지	①	②	③	④
		다리 의지	①	②	③	④
	보조기	팔 보조기	①	②	③	④
		척추 보조기	①	②	③	④
		골반 보조기	①	②	③	④
		다리 보조기	①	②	③	④
	기타 보장구	지팡이	①	②	③	④
		목발	①	②	③	④
		휠체어	①	②	③	④
		저시력보조안경	①	②	③	④
		콘택트렌즈	①	②	③	④
		돌보기	①	②	③	④
		망원경	①	②	③	④
		의안	①	②	③	④
		흰지팡이	①	②	③	④
		보청기	①	②	③	④
		체외용 인공후두	①	②	③	④
건강보 험 미 급 여 품 목		전동휠체어	①	②	③	④
		스쿠터	①	②	③	④
		보행기	①	②	③	④
		욕창방지용구	①	②	③	④
		세면, 목욕용품	①	②	③	④
		대소변처리용구	①	②	③	④
		정형외과용 구두	①	②	③	④
		전동휠체어	①	②	③	④

보장구 품목			향후 수요			
			① 현재 수요보다 증가할 것이다	② 현재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③ 현재 수요보다 감소할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건강보험 미급여 품목	기타 보장구	스쿠터	①	②	③	④
		보행기	①	②	③	④
		욕창방지용구	①	②	③	④
		세면, 목욕용품	①	②	③	④
		대소변처리용구	①	②	③	④
		정형외과용 구두	①	②	③	④
		개인용 온열기	①	②	③	④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①	②	③	④
		안경	①	②	③	④
		맹인용 전자보행기	①	②	③	④
		저시력보조기	①	②	③	④
		인공후두	①	②	③	④
		음성증폭기	①	②	③	④
		복막투석장치	①	②	③	④
		인공호흡기	①	②	③	④
		체온계	①	②	③	④
		체온조절장치	①	②	③	④
		혈압계	①	②	③	④
		기타 1 ()	①	②	③	④
		기타 2 ()	①	②	③	④
		기타 3 ()	①	②	③	④
		기타 4 ()	①	②	③	④

※ 다음은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입니다.
 각 품목의 현 기준액 및 내구연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이 적정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절한 내구연한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단
 체에 해당되는 재활보조기구에만 기입해 주세요).

4. 팔의지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어깨가슴 의지	미관 형	5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길다 ③짧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어깨관절 의지	미관 형	5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위팔 의지	미관 형	33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8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표준 위팔 의지	미관 형	2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7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팔꿈치관절의 지	미관 형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7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아주짧은아래팔 의지	미관 형	3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5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손목관절 의지	미관 형	2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 의지	미관 형	1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기능 형	5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가락 의지	미관 형	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팔의지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5. 다리의지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한쪽편 골반 의지		1,0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엉덩이관절 의지		1,0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5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넓적다리체중 부하 의지	일반형	1,0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5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9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형	1,3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종아리굴곡 체중부하의 지	일반형	9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3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6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0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종아리 의지	일반형	5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1,0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4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콘 형	8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의족	일반 형	1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실리 콘형	5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u>다리의지</u>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	

6. 팔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어깨뼈 외전 보조기	2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1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 준 액		내 구 연 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1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팔 보조기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팔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7. 척추 보조기

유 형	기 준 액		내 구 연 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목뼈 보조기 - 필라텔피아	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목뼈 보조기	3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1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1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등·허리·엉치뼈보조기 -등·허리·엉치뼈 재킷	3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콜셋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척추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8. 골반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골반 보조기	1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u>골반보조기</u>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9. 다리 보조기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3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29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51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무릎관절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부착	1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 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16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무릎 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2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7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2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크렌자크식	2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발목관절 보조기 - 90° 고정	4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다리보조기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10. 기타 보장구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지팡이	2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목발	15,6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휠체어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콘택트렌즈	8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3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유 형	기준액		내구연한	
	현 기준액(원)	적정성 여부	현내구 연한	적정성 여부
돋보기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망원경	1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의안	3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원지팡이	14,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1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보청기	25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①적정하다 ②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높다 ③시가에 비해 기준액이 낮다	5년	①적정하다 ②짧다 ③길다 →적정내구연한은?(년)
※ 위에서 제시한 품목 외에 <u>기타보장구</u> 중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이 있으면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을 기입해 주십시오.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	

11. 우리나라 제활보조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하여 주십시오.

부록 2. 보장구 적정 기준금액(수가) 산출 내역

분류	유형	구분	재료비	시간	시간당 인건비	인건비	경비	이윤	계	최종(안)	인상율
팔의지	어깨가슴의지	미관형	381,590	23.0	9,800	225,400	60,699	60,699	728,388	720,000	0.412
		기능형	936,420	24.0	9,800	235,200	117,162	117,162	1,405,944	1,400,000	0.400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381,590	28.8	9,800	281,750	66,334	66,334	796,008	790,000	0.580
		기능형	936,420	29.8	9,800	291,550	122,797	122,797	1,473,564	1,470,000	0.470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177,048	31.0	9,800	303,800	48,085	48,085	577,018	570,000	0.727
		기능형	731,878	32.0	9,800	313,600	104,548	104,548	1,254,574	1,250,000	0.524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177,048	31.0	9,800	303,800	48,085	48,085	577,018	570,000	0.966
		기능형	731,878	32.0	9,800	313,600	104,548	104,548	1,254,574	1,250,000	0.603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177,048	30.0	9,800	294,000	47,105	47,105	565,258	560,000	0.867
		기능형	731,878	31.0	9,800	303,800	103,568	103,568	1,242,814	1,240,000	0.570
	아주 짧은아래팔의지	미관형	257,211	22.0	9,800	215,600	47,281	47,281	567,373	560,000	0.647
		기능형	509,201	22.0	9,800	215,600	72,480	72,480	869,761	860,000	0.536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	159,500	22.0	9,800	215,600	37,510	37,510	450,119	450,000	0.875
		기능형	411,490	22.0	9,800	215,600	62,709	62,709	752,507	750,000	0.630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형	159,500	22.0	9,800	215,600	37,510	37,510	450,119	450,000	0.875
		기능형	411,490	22.0	9,800	215,600	62,709	62,709	752,507	750,000	0.630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159,500	22.0	9,800	215,600	37,510	37,510	450,119	450,000	0.875
		기능형	411,490	22.0	9,800	215,600	62,709	62,709	752,507	750,000	0.630
	손 의지	미관형	131,498	8.5	9,800	83,300	21,480	21,480	257,758	250,000	0.563
		기능형	411,490	8.5	9,800	83,300	49,479	49,479	593,747	590,000	0.035
	손가락 의지	미관형	73,600	2.8	9,800	26,950	10,055	10,055	120,660	120,000	1.000
다리 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891,688	57.5	9,800	563,500	145,519	145,519	1,746,225	1,740,000	0.626
	엉덩이관절 의지		891,688	57.5	9,800	563,500	145,519	145,519	1,746,225	1,740,000	0.626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832,283	48.5	9,800	475,300	130,758	130,758	1,569,100	1,560,000	0.560
		실리콘형	1,423,443	48.5	9,800	475,300	189,874	189,874	2,278,492	2,270,000	0.493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832,283	48.5	9,800	475,300	130,758	130,758	1,569,100	1,560,000	0.560
		실리콘형	1,423,443	48.5	9,800	475,300	189,874	189,874	2,278,492	2,270,000	0.493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778,021	47.5	9,800	465,500	124,352	124,352	1,492,225	1,490,000	0.568
		실리콘형	1,209,980	47.5	9,800	465,500	167,548	167,548	2,010,576	2,010,000	0.489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일반형	778,021	30.5	9,800	298,900	107,692	107,692	1,292,305	1,290,000	0.358
		실리콘형	1,209,980	30.5	9,800	298,900	150,888	150,888	1,810,656	1,810,000	0.341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442,723	28.5	9,800	279,300	72,202	72,202	866,427	860,000	0.410
		실리콘형	987,552	28.5	9,800	279,300	126,685	126,685	1,520,223	1,520,000	0.394
	종아리 의지	일반형	362,436	26.5	9,800	259,700	62,214	62,214	746,563	740,000	0.370
		실리콘형	981,337	26.5	9,800	259,700	124,104	124,104	1,489,245	1,480,000	0.370
	싸임식 발목관절의지	일반형	274,274	17.5	9,800	171,500	44,577	44,577	534,928	530,000	0.152
		실리콘형	703,335	17.5	9,800	171,500	87,483	87,483	1,049,802	1,040,000	0.238
	의족	일반형	54,975	13.5	9,800	132,300	18,727	18,727	224,729	220,000	0.294
		실리콘형	474,826	13.5	9,800	132,300	60,713	60,713	728,551	720,000	0.333

분류	유형	재료비	시간	시간당 인건비	인건비	경비	이윤	계	최종(안)	인상율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95,259	15.0	9,800	147,000	24,226	24,226	290,711	290,000	0.160
	긴 팔 보조기	74,399	13.0	9,800	127,400	20,180	20,180	242,159	240,000	0.263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74,250	15.0	9,800	147,000	22,125	22,125	265,500	260,000	0.368
	짧은 팔 보조기	16,408	6.0	9,800	58,800	7,521	7,521	90,249	90,000	0.125
	손가락관절 보조기	7,074	4.0	9,800	39,200	4,627	4,627	55,529	50,000	0.250
척추 보조기	목뼈 보조기(필라델피아)							70,000	70,000	0.000
	목뼈보조기(토마스스포츠칼라)							60,000	60,000	0.000
	목뼈 보조기(cervical jacket)	126,447	20.0	9,800	196,000	32,245	32,245	386,936	380,000	0.000
	척추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55,675	7.5	9,800	73,500	12,918	12,918	155,010	150,000	0.250
	허리영치뼈보조기(윌리암식)	32,714	13.0	9,800	127,400	16,011	16,011	192,136	190,000	0.118
	등허리영치뼈 보조기(- 재킷)	79,233	26.0	9,800	254,800	33,403	33,403	400,840	400,000	0.111
	콜셋							80,000	80,000	0.000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글반 보조기 부착)	235,097	22.0	9,800	215,600	45,070	45,070	540,836	540,000	0.742
	긴 다리 보조기(글반 보조기 미부착)	219,808	13.0	9,800	127,400	34,721	34,721	416,649	410,000	0.414
	양쪽 긴 다리 보조기	384,155	28.0	9,800	274,400	65,855	65,855	790,266	790,000	0.549
	무릎관절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87,677	8.0	9,800	78,400	16,608	16,608	199,292	190,000	0.056
	무릎관절 보조기(레눅스힐)	60,704	8.0	9,800	78,400	13,910	13,910	166,924	160,000	0.000
	무릎관절 보조기(십자인대 손상용)	42,185	3.0	9,800	29,400	7,159	7,159	85,902	80,000	0.000
	짧은 다리보조기(무릎관절 체증부하식)	198,112	11.5	9,800	112,700	31,081	31,081	372,974	370,000	0.370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29,617	8.0	9,800	78,400	10,802	10,802	129,621	120,000	0.714
	발목관절 보조기(고정)	113,245	9.0	9,800	88,200	20,145	20,145	241,734	240,000	0.091
	발목관절보조기(크렌치크식)	175,794	9.5	9,800	93,100	26,889	26,889	322,673	320,000	0.455
기타 보장구	발목관절 보조기(90도고정)	21,263	10.5	9,800	102,900	12,416	12,416	148,996	140,000	0.000
	지팡이							20,000	20,000	0.000
	목발							15,000	15,000	0.000
	휠체어	405,600				40,560	40,560	486,720	480,000	0.600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100,000	0.000
	콘택트렌즈							80,000	80,000	0.000
	돋보기							100,000	100,000	0.000
	망원경							100,000	100,000	0.000
	의안							300,000	300,000	0.000
	휠지팡이							14,000	14,000	0.000
	보청기	285,832	3.0	9,800		28,583	28,583	342,998	340,000	0.360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00,000	0.000
추가 보장구	전동휠체어	1,745,000				174,500	174,500	2,094,000	2,090,000	
	전동스쿠터	1,268,430			부가세10%	126,843	126,843	1,674,327	1,670,000	
	정형외과용구두	145,560	5.5	9,800	53,900	14,556	14,556	228,572	220,000	

부록 3. 보장구 기준금액(수가) 비교표

분류	유형	구분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훈병원	업체요구	보사연
팔의지	어깨가슴의지	미관형	510,000	688,000	830,900	1,225,664	720,000
		기능형	1,000,000	1,272,000	1,286,300	1,726,320	1,400,000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500,000	688,000	830,900		790,000
		기능형	1,000,000	1,272,000	1,286,000		1,470,000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330,000	499,000	474,000	1,575,113	570,000
		기능형	820,000	1,080,000	1,179,800	1,736,148	1,250,000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290,000	504,000	474,600	977,313	570,000
		기능형	780,000	1,009,000	1,179,800	1,657,748	1,250,000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300,000	471,000	488,200	984,166	560,000
		기능형	790,000	959,000	1,179,800	1,658,056	1,240,000
	아주 짧은아래팔의지	미관형	340,000	365,000	390,900		560,000
		기능형	560,000	622,000	1,035,000		860,000
	짧은 아래팔의지	미관형	240,000	278,000	390,900	856,136	450,000
		기능형	460,000	592,000	1,035,000	1,238,854	750,000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형	240,000	278,000		733,408	450,000
		기능형	460,000	592,000		1,214,357	750,000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240,000	278,000		642,142	450,000
		기능형	460,000	592,000		1,054,824	750,000
	손 의지	미관형	160,000	271,000	188,000	466,228	250,000
		기능형	570,000				590,000
	손가락 의지	미관형	60,000	82,000	80,700		120,000
다리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1,070,000	1,864,000	1,611,000	2,520,972	1,740,000
	엉덩이관절 의지		1,070,000	1,864,000	1,611,000		1,740,000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000,000	1,003,320		2,117,354	1,560,000
		실리콘형	1,520,000	1,526,470		3,214,499	2,270,000
	넓적다리체중부하의지	일반형	1,000,000	1,351,000		2,363,096	1,560,000
		실리콘형	1,520,000	1,864,150		3,350,152	2,270,000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950,000	1,315,000	1,439,000	2,002,001	1,490,000
		실리콘형	1,350,000	1,827,000	1,949,500	3,221,501	2,010,000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일반형	50,000	1,315,000	1,397,200		1,290,000
		실리콘형	1,350,000	1,827,000	1,884,100		1,810,000
	짧은 종아리의지	일반형	610,000	760,000	849,700		860,000
		실리콘형	1,090,000	1,271,000	1,317,400		1,520,000

분류	유형	구분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훈병원	업체요구	보사연
	종아리 의지	일반형	540,000	635,000	769,100	1,169,312	740,000
		실리콘형	1,080,000	1,196,000		2,081,010	1,480,000
	싸임식 발목관절의지	일반형	460,000	655,000	973,600	1,265,506	530,000
		실리콘형	840,000			1,765,506	1,040,000
	의족	일반형	170,000	313,000	363,300	999,786	220,000
		실리콘형	540,000			1,211,000	720,000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250,000	291,000	353,000	670,040	290,000
	긴 팔 보조기		190,000	203,000	252,000	409,982	240,000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190,000	251,000	252,100	460,525	260,000
	짧은 팔 보조기		80,000	89,000	121,900	245,427	90,000
	손가락관절 보조기		40,000	42,000	55,100	169,849	50,000
	목뼈 보조기(필라델피아)		70,000	40,000	70,000	90,000	70,000
척추 보조기	목뼈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60,000	21,000	60,000	50,000	60,000
	목뼈 보조기(cervical Jacket)		380,000	343,000	380,000		380,000
	척추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120,000	73,000	147,000	292,942	150,000
	허리엉치뼈보조기(윌리암식)		170,000	186,000	170,000	274,996	190,000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제킷)		360,000	378,000	412,300	576,203	400,000
	콜셋		80,000	53,000	80,000	150,852	80,000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120,000	129,760	80,000	90,000	120,000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부착)		310,000	336,000	473,900	624,260	540,000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미부착)		290,000	312,000	362,000	528,190	410,000
	양쪽 긴 다리 보조기		510,000	632,000	742,100	1,058,896	790,000
	무릎관절 보조기(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180,000	104,000	180,000	343,755	190,000
	무릎관절 보조기(레녹스힐)		160,000	180,000	168,000	353,133	160,000
	무릎관절 보조기(십자인대 손상용)		80,000	66,000	60,000	145,841	80,000
	짧은 다리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270,000	277,770	355,500	465,708	370,000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70,000	120,000	206,500	259,909	120,000
	발목관절 보조기(고정)		220,000	226,840	258,600	347,419	240,000
	발목관절보조기(크렌자크식)		220,000	234,000	286,500	406,595	320,000
	발목관절 보조기(90도고정)		140,000			337,042	140,000
	지팡이		20,000				20,000
기타 보장구	목발		15,000	15,600			15,000
	휠체어		300,000	638,000		750,000	480,000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100,000			100,000
	콘택트렌즈		80,000	80,000			80,000
	돋보기		100,000				100,000
	망원경		100,000				100,000
	의안		300,000	300,000		344,000	300,000
	원지팡이		14,000	14,000			14,000
	보청기		250,000	250,000		850,000	340,000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00,000			500,000
	전동휠체어			2,310,000		2,500,000	2,090,000
	전동스쿠터					1,750,000	1,670,000
추가 보장구	정형외과용구두			114,900	153,400	340,015	220,000

부록 4. 보장구 명칭 비교표

분류	건강보험	용도	산재보험	보훈병원	보장구협회
팔의지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전4박 절단의지	전사박절단의수	전4박견갑절단의수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견갑관절 이단의지	견갑의수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단 상박절단의지	단 상박의수	짧은상박절단의수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표준 상박절단의지	상박의수	상박절단의수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주관절 이단의지	주관절의수	주관절 이단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단소 전박절단의지	단소 전박의수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단 전박절단의지	전박 의수	짧은 전박의수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장 전박절단의지		전박절단의수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완관절 이단의지		수근골 및 수장골절단의수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수근골 및 수장골 절단의수지	수부의수	수부절단의수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완용 절단의수지	수지의수	

분류	유 형	용 도	산재보험	보훈병원	보장구협회
다 리 의 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하지 후4박 절단의지	후4박 절단의지	고관절4박 절단의족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고관절 이단의지	고관절 의지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대퇴의족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짧은대퇴의족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슬관절 이단의지	슬관절 의지	슬관절이단의족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하퇴절단 굴곡체중부하의지	하퇴의지 (굴곡체중부하)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단소하퇴제단의지	하퇴의지 (재래식)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하퇴절단의지	하퇴의지 (표준)	하퇴의족 (P.T.B식)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싸임식 절단의지	싸임의지	싸임하퇴의족
팔 보 조 기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족부 절단의족	족부의지	발부분절단의족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견갑골 외전 보조기	견관절 외전 보조기	견관절 외전보조기
	긴 팔 보조기 (long arm brace) - 일반형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장상지 보조기	주관절 고정 보조기	상박골절 보조기(통압)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각도조절형 장상지보조기	주관절 구동 보조기	주관절각도 조절보조기

분류	유형	용도	산재보험	보훈병원	보장구협회
팔 보조기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단상지보조기	완관절 고정 보조기	전박골절보조기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Universal cuff		손등관절운동보조기
척추 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경추보조기 또는 경추칼라 (cervical spine brace or Thomas soft collar)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Thomas soft collar	토마스칼라	토마스칼라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cervical Jacket	물딩 경추보조기	
	척추 보조기-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나이트-테일러식 보조기	나이트테일러형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보조기
	허리·영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 sacral spinal brace)	허리·영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윌리엄식 요추 보조기	윌리엄스형 보조기	윌리엄스 백브레이스
	등·허리·영치뼈 보조기 - 등·허리·영치뼈 제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영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흉요추 보조기 TLSO	경요추플라스틱형 보조기	흉요추프라스틱형보조기(TLSO)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콜셋	콜셋(요추추형)	콜셋
	골반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영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골반콜셋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골반보조기 부착 정하지보조기	골반대/편측장보조기	허리밴드 이스키알링 장하지 보조기

분류	유형	용도	산재보험	보훈병원	보장구협회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 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골반보조기 없는 장하지보조기	일반형 장하지보조기	일반형 장하지보조기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양하지 마비를 위한 보조기	골반대/양측장보조기	양하지 장보조기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슬관절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부착)	슬관절보조기	슬관절보조기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레녹스힐보조기	레녹스힐	레녹스힐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결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내외측 측부인대손상 및 전방십자인대 손상용 슬관절보조기	니케이지	무릎보호보조기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식)	중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patellar tendon bearing식 단보조기	P.T.B.식 단하지보조기	P.T.B.식 단하지보조기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플라스틱 단하지보조기	기능적 플라스틱형 단보조기	플라스틱형 단하지보조기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족관절 고정보조기	일반형 단보조기	일반형단하지보조기
	발목관절 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크렌자크식 족관절 보조기	크렌작 단보조기	크렌작식단하지보조기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기능적프라스틱형 단하지보조기

분 류	유 형	용 도	산재보험	보훈병원	보장구협회
기 타 보장 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목발(crutches)				
	휠체어(wheel chair)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plastic eye)				
	환지팡이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부록 5. 일본의 보장구 급여관련 법·제도 및 보장구 목록

가. 일본의 보장구 급여관련 법·제도 개요

사회보장구분		노재보험기금		
제도	노동자재해보상보험	공무원재해	공공기업체	선원보험
법률	노동자재해보상 보험법(1947)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1851)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1967)	노동협약	선원보험법 (1939)
조항·규칙·요강 등	29조·보험시설 취급규정	인사원규칙 16-3 국공제 22,23조 지방제 47조	-	57조 및 복지시설설치요강
제도명	노동복지사업	복지사업	-	복지사업
운영·관리 주체	정부	정부,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기금	각 기업체	정부
소관기관	노동국	인사원, 지방자치단체	-	선원보험회
창구	노동기준감독서	인사담당부서	-	지방사회보험사무국 사회보험사무소
급여자격	장애급부 수급자 또는 수급받은적이 있는 자 (산재장애인)	퇴직후에는 지급없음	퇴직후에는 지급없음	선원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 있었던 자 및 보험급부를 받은적이 있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자
보 장 구 종 류	의지	○	○	○
	보조기	○	○	○
	앞은자세유지장치	○	○	
	앞은자세유지의자			
	기립유지보조구			
	머리유지보조구			
	배변보조기구	○	○	
	머리보호호모자			
	보행기	○	○	○
	보행보조지팡이	○	○	
	수노기	○	○	○
	휠체어	○	○	○
	전동휠체어	○	○	○
	맹인안전지팡이	○	○	
	의안	○	○	
	안경	○	○	○
	점자기	○	○	
	보청기	○	○	○
	인공후두	○	○	
	스토마용보조기	○	○	
	기타	가발 등	가발 등	가발 등
비용부담 (부담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처방·적합검사·적요 등	노재병원 의지체형지도의사	실시기관에 일임		선원보험,사회보험 병원 및 후생연금병원
제작업자 지정	없음	실시기관에 일임		없음

사회보증구분		연금기금	사회복지기금		
제도		후생연금보험	전상병자원호	신체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1954)	전상병자 특별 원호법 (1963)	신체장애자 복지법 (1950)	아동복지법 (1950)
조항·규칙·요강 등		79조 후생연금보험복지 시설, 후생연금실시규정, 사무취급절차	21조, 정성령	20조, 고시, 국장통지	21-6, 고시, 국장통지
제도명		복지시설	보장구지급	보장구지급	보장구지급
운영·관리 주체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소관기관		후생단·후생연금병원	도·도·부·현	시·정·촌	시·정·촌
창구		사회보험사무소	도·도·부·현	시·정·촌	시·정·촌
급부자격		(1) 피보험자 또는 피 보험자로 있었던자로서 장애수급을 받은자 또는 받을려고 신청한 자 (2) 연금수급자	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신체장애인 수첩 소지자 (18세이상)	신체장애인 수첩 소지자 (18세미만)
보 장 구 종 류	의지	○	○	○	○
	· 보조기	○	○	○	○
	앉은자세유지장치		○	○	○
	앉은자세유지의자				○
	기립유지보조구				○
	머리유지보조구				○
	배변보조기구				○
	머리보호모자		○	○	○
	보행기	○	○	○	○
	보행보조지팡이		○	○	○
	수노기		○	○	○
	휠체어	○	○	○	○
	전동휠체어	○	○	○	○
	맹인안전지팡이		○	○	○
	의안		○	○	○
	안경		○	○	○
	점자기		○	○	○
	보청기	○	○	○	○
	인공후두		○	○	○
	스토마용보조기		○	○	○
	기타		-	-	-
비용부담 (부담유무)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처방·적합검사·적요 등		후생단이 경영하는 후생연금병원	도·도·부·현 지사에게 위임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육성의료지정 보건소·동 의료기관
제작업자 지정		후생연금병원 및 지정제작·수리소	도·도·부·현 지사에게 위임	지방자치단체지정	지방자치단체지정

나. 보장구 교부 판정기관

품 목		교부판정기관				품 목		교부판정기관				
		갱생상담소		시정촌				갱생상담소		시정촌		
		내소	서류	의견	없음			내소	서류	의견	없음	
의지	곡 구조	○				휠체어	편수구동형	○	●			
	골격구조	○					리클라이닝식 편수구동형	○	●			
보 조 기		○					수동체인형	○	●			
앉은자세유지장치		○					리클라이닝식 수동체인형	○	●			
맹인안전지팡이					○		레버구동형	○	●			
안경	보통의안			○			수압형	○		●		
	특수의안			○			리클라이닝식 수압형	○	●			
	콘택트의안			○		전 동 휠체어	보통형	○				
	색안경				○		리클라이닝식 보통형	○				
	교정안경			○			전동리클라이닝식 보통형	○				
	콘택트렌즈			○			전동리프트식 보통형	○				
		약시안경		○		보행기	사륜형			○		
	차광안경			○			삼륜형			○		
점자기기				○			이륜형			○		
보청기	표준형박스형		○					고정형			○	
	표준형귀걸이형		○				교차형			○		
	고도난청용박스형		○			머리보호모자			○		●	
	고도난청용귀걸이형		○			수노기	남자용				○	
	귀속형		○				여자용				○	
인공 후두	골도형		○			스토마용 보조기	착변주머니				○	
	피리식			○			착노주머니				○	
휠체어	전동식				○	보행보조 지팡이	지팡이				○	
	보통형	○	●				목발					○
	리클라이닝식 보통형	○	●				카나디안 클러치					○
	수동리프트식 보통형	○	●				로프스트랜드 클러치					○
	전방큰바퀴형	○	●				다점지팡이					○
	리클라이닝식 전방큰바퀴형	○	●									

주: ●는 기성품에만 적용

다.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품 목록

1) 의지(義肢) · 보조기(裝具)

구 분	종 류
의수	견관절의수, 상완의수, 주관절의수, 전완의수, 완관절의수, 수부의수, 수지의수(손가락의족)
의족	고관절의족, 대퇴의족, 슬관절의족, 하퇴의족, 싸임의족, 근중족의족, 족지의족(발가락의족)
하지보조기	장하지보조기, 단하지보조기, 구두형보조기, 발바닥보조기, 고관절보조기, 슬관절보조기
구도형보조기	장화, 반장화, 처카부츠, 단화
척추보조기	경추보조기, 흉추보조기, 요추보조기, 천추장보조기, 측만교정보조기
상지보조기	견관절보조기, 주관절보조기, 수배굴보조기, 장대립보조기, 단대립보조기, 파지보조기, MP(굴곡 및 신전)보조기, 손가락보조기, B.F.O

2) 앉은자세 유지장치

앉은자세 유지장치는 기능장애 및 신체 변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탈착가능한 각종 부착물(attachment)을 사용하고, 신체에 밀접하게 적합하는 보조기이다.

3) 기타 보장구

구 분	종 류
맹인안전지팡이	보통용, 휴대용
의안	보통의안, 특수의를안, 콘택트의를안
안경	색안경, 교정안경, 차광안경, 콘택트렌즈, 약시안경
점자기기	표준형, 휴대용
보청기	표준형(박스형, 귀걸이형), 고도난청용박스형, 고도난청용 귀걸이형, 귀속형(기성품, 주문제작), 골도형(박스형, 안경형)
인공후두	피리식, 전동식
휠체어	보통형, 리클라이닝식 보통형, 수동리프트식 보통형, 전방큰휠체어형, 리클라이닝식 전방큰휠체어형, 편수구동형, 리클라이닝식 편수구동형, 레버구동형, 수압형, 리클라이닝식 수압형
전동휠체어	보통형, 수동겸용, 리클라이닝식 보통형, 전동리클라이닝식 보통형, 전동리프트식 보통형
앉은자세유지의자	
기립자세유지보완기	
보행기	사륜형(의자장착형, 의자없는형), 삼륜형, 이륜형, 고정형, 교차형
머리보호모자	
머리유지보조기	
배변보조기	
수뇨기	남자용, 여자용
스토마용 보조기	축변주머니, 축뇨주머니
보행보조지팡이	지팡이, 목발, 캐나다안 클러치, 로프스트랜드 클러치, 다점지팡이

4) 일상생활용품

구 분	종 류
급부품목	맹인용 테이프 레코더, 맹인용 시계, 맹인용 타입스위치, 맹인용타이프 라이터, 점자 타이프 라이터, 맹인용 전자계산기, 전자 조리기, 맹인용 채운계(음성식), 맹인용 저울, 점자도서, 맹인용 체중계, 시각장애인용 확대독서기, 보행시간 연장신호기용 소형송신기, 청각장애인용 옥내 신호장치, 청각장애인용통신장치, 문자방송 리코더, 육조, 변기, 특수변기, 특수메트, 특수침대, 특수노기, 목욕들것, 채워변환기, 중도장애인용 의사전달장치, 휴대용회화보조장치, 목욕보조용구, 이동용 리프트, 보행지원 용구, 거택생활동작보조용구, 투석액 가온기, 산소통 운반차, 네블라이저(액상약품용 분무기),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전기식 흡인기
대여품목	복지전화, 팩스
공동이용	시각장애인용 워드프로세스